

# 세경본풀이

## 풍흉(豊凶)은 어디서 오는가?

조현설

### I. 제주 무속신화의 대표,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이하 <세경본>으로 약칭)는 제주도 큰곳에서 불리는 무가(巫歌)다. 시왕맞이나 요왕맞이에 이어 불리는 무가로, 농경신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본풀이, 다시 말해 무속신화다. 주인공 자(조)청비이기 때문에 자청비 신화로도 불린다.

<세경본>은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인물들의 결합과 분리, 갈등과 화해의 결과로 신직(神職)이 결정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세 명의 신이 함께 좌정한다는 점이다. 마치 당(堂) 신화인 <세화본향당본풀이>의 천자또·금백주·금상님처럼 성격이 다른 존재들이 농경신으로 동좌(同坐)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둘째, 세 명의 농경신들 가운데 중심에 있는 존재는 여신 자청비라는 사실이다.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다수의 여신들이 있지만 자청비는 그 서사의 편폭이나 개성적 형상 등에서 제주 여신들의 대표주자라고 할 만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셋째, 제주 무속신화 가운데 최장편이라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장편으로 조직되는 과정에서 근원이 다른 서사들, 이를테면 당(唐) 시기의 문헌설화나 원명대(元明代)의 잡극(雜劇)이나 보권(寶卷), 조선시대의 국문소설, 제주의 당본풀이나 건국신화 등 다양한 서사 재료가 저수지처럼 혼성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서사 종들이 혼성되는 과정에서 무교·불교·유교적 세계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조정되는 현상도 특징적이다. 이를 네 번째 특징이라고 해도 좋겠다.

이런 특이성 때문에 <세경본>은 연구자들의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일찍이 아카마스 지조(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sup>1)</sup>나 현용준·진성기<sup>2)</sup> 등의 선구적인 제주 본풀이 자료의 채록과 소개에 힘입어 <세경본>에 대한 상당한 연구들이 이뤄진 바 있다. 연구사를 개괄하면 대체로 1)농경신으로서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논의, 2)세 농경신의 서차를 둘러싼 논쟁적 논의, 3)당본풀이나 건국신화와와의 관계 또는 <세경본>의 서사적 원천에 대한 논의, 4)여신 자청비의 성격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세경본>에 대한 새로운 논점과 해석을 제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제주 본풀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교양을 위해 이미 이뤄진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세경본>의 특징적 성격을 유념하고, 연구 결과들을 참조하면서 <세경본> 이해의 지름길을 닦아 보려고 한다.<sup>3)</sup>

### II. <세경본>, 한국 무속서사와 이미지의 저수지

1) 赤松智城·秋葉隆, 1937,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2)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진성기, 1980, 『남국의 무속서사시』, 정음사;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3) 글의 성격상 연구 성과에 대한 개별적인 인용은 생략하고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세경본>은 장편에 걸맞게 다양한 사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 단락을 집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짐진국 부부의 기자 의례와 주인공 자청비, 조연 정수남의 출생
- ② 천상에서 내려온 문선왕의 아들 문도령과 자청비의 결연 및 분리
- ③ 정수남의 반복된 성폭력과 자청비의 정수남 살해
- ④ 부모에게 쫓겨난 자청비와 조력자 마고할미와의 만남
- ⑤ 자청비의 비단 짜기를 통한 문도령과의 재결합 시도와 실패
- ⑥ 문도령과 자청비의 천상 재회와 통과의례를 통한 결혼
- ⑦ 천상의 변란과 자청비의 참전 및 공적 쌓기
- ⑧ 이웃 일천선비에 의한 문도령 살해와 새로운 위기의 도래
- ⑨ 문도령을 살리기 위한 자청비의 서천꽃발행과 문도령의 재생
- ⑩ 반복되는 천상의 애정 갈등과 지상의 세경신으로 좌정하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연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갈등은 1)기자 의례와 결과 사이의 갈등, 2)결혼 이전 두 유형의 애정 갈등, 3)결혼 이후 두 종류의 애정 갈등, 4)신직 좌정 과정에서의 갈등이다.

먼저 흥미로운 지점은 기자치성 화소다. 기자치성은 고전 서사에 흔히 등장하는 화소인데 단군신화에 보이는 웅녀의 잉태에 대한 기원이나 북부여 해부루의 후사를 비는 산천 제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서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치성이 자식이 아니라 아들 낳기에 집중되는 경향은 종법제적 가부장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 나타난다.

그런데 다른 고전 서사와 달리 무속신화에 표현되어 있는 기자치성 화소의 특이점은 치성과 결과 사이의 부조화에 있다. <세경본>의 짐진국 대감님과 조진국 부인님 부부도 늘도록 자식이 없어 슬퍼한다. 그때 동개남상주절의 중이 등장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자식이 없을 팔자인데 팔자를 바꾸려면 수록불공[水陸齋]을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점괘에 따른 일종의 ‘계약’이다. ‘수록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점지한다’는 신과 인간, 갑을간의 계약이다. 하지만 이 계약은 지켜지지 않는다.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무속 서사의 특성이다.

부부는 동개남상주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하는데 도중에 서개남금법당의 중을 만나면서 계약서가 찢어지기 시작한다. ‘그 절에는 덕이 없다’는 서쪽 절 중의 동쪽 절에 대한 험담에도 불구하고 동쪽 절에서 불공을 드리든(이달춘 본) 서쪽 절에서 불공을 드리든(강을생 본) 계약 위반은 발생한다. 동쪽 절에 불공을 드렸어도 서쪽 절의 중을 이미 만났으므로 ‘한 근이 모자란 수록재’가 되기 때문이다. 서쪽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사건 전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요컨대 이본들 사이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저 계약은 위반되게 되어 있다. 계약이 위반되어야 기대하지 않았던 딸이 출생하고, 그래야 딸이라도 좋다는, 스스로 청해서 얻은 딸로 풀이되는 ‘자청비(自請妃)’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바리데기 신화의 경우에도 위반이 발생한다. 세자의 혼례 일시를 점쳤을 때 천하궁의 다지박사를 비롯한 여러 점쟁이들이 점괘를 제출한다. ‘폐길년에 길례를 하면 칠공주를 보고 대개년에 길례를 하면 삼동궁을 보시리라!’<sup>4)</sup> 그러나 마음이 급한 왕은 비공직자인 점쟁이들의 점괘를 무시한다. 대신 공직자인 관상감(觀象監)의 택일을 받아 혼사를 서두른다. 여기

4) 赤松智城·秋葉隆, 앞의 책에 실린 <배경재본> 참조.

서도 점괘라는, 신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무시된다. 위반은 철공주의 출생으로 귀결된다.

<바리공주>와 달리 <세경본>은 승려가 계약의 한 쪽이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다. 바리데기와 마찬가지로 자청비도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로 탄생함으로써 결핍 상태에서 주인공의 여행은 시작된다. 이런 결핍된 출발은 이 서사가 결핍의 충족에 이르러 대단원을 맞을 것이라는 ‘주인공의 행로’를 암시한다. 동시에 이 서사가 신화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결핍의 충족이 신성의 획득, 곧 신으로의 좌정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시(豫示)하는 것이다.

<세경본>의 기자치성 화소는 <세경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보를 준다. 동쪽 절의 육관대사가 점지해 준 딸자식이 통과의를 거쳐 무속의 신, 세경신이 된다는 설정이 그 하나다. 이런 설정은 제주도의 무(巫)와 불(佛)은 깊이 결속되어 있으며 상호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김진국 대감님이 자식 운을 알아보려고 중을 불러들이기 전 ‘원천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데 <원천강본풀이>와 연결시켜 보면 이 물음은 점을 칠 줄 아느냐고 묻는 것이다. 무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하나는 <바리공주>를 비롯한 여러 무속신화와의 연속선상에서 <세경본>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세경본>이 제주 무속의 독자적인 산물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점은 다음에 논의할 <세경본>의 원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세경본>은 애정 갈등을 매개로 삼아 서사를 전개한다. 최초의 애정 갈등, 그리고 골간이 되는 애정 갈등은 자청비와 문도령 사이의 갈등이다. 둘의 갈등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공부하러 천상에서 하강한 문도령을 따라 자청비는 남장으로 떠난다. 기실 이 남장 자체에 이미 성적 갈등이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본격적인 갈등은 남장한 자청비의 정체를 밝히려는 문도령을 포함한 남성들에 의해 조장된다. 그런데 이 동문수학 모티프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동진(東晉) 시기에 저장 상우(上虞)의 축씨(祝氏) 집안의 축영대라는 아름답고 총명한 처녀가 남장을 하고 항저우에 유학하였는데 회계(會稽)에서 유학 온 양산백을 만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3년간 함께 공부하며 우정을 나누었는데 양산백은 축영대가 여자라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였다. 3년이 지나 축영대가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축영대를 배웅하며 비로소 3년간 동문수학하며 절친했던 친구가 남장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축씨 집안에 청혼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축영대는 마문재(馬文才)에게 시집가기로 되어있는 상태였다. 이후 양산백은 은당현(鄞當縣)의 현령에 부임하였으나 과도한 우울증에 빠져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축영대가 시집가는 날 양산백의 무덤 근처를 지나갈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며 신부의 행차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축영대가 꽃가마에서 내려 양산백의 무덤 앞에 제를 지내고 절을 하자 갑자기 양산백의 무덤이 갈라지며 축영대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참 후에 무덤에서 한 쌍의 나비가 솟아나와 함께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唐, 梁載言, 『十道四蕃志』)

당나라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중국을 대표하는 ‘4대 전설’의 하나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다. 그 유명세 덕분에 양축(梁祝) 전설은 이후 <양산백하산(梁山伯下山)>과 같은 예극(豫劇, 하남성 지방극), 명청대의 강창문예양식인 <양산백보권(梁山伯寶卷)>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재창작되어 왔다. 그 영향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구전설화, 서사무가, 서사민요, 국문소설 등의 형식으로 재창조되어 전승되어 왔다.

서사무가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작품이 함경도의 문곳에서 불리는 <치원대양산복>이다. <치원대양산복>의 경우 당나라 이래의 양축 전설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다.<sup>5)</sup> <치원

5) 함흥에서 월남한 무녀 강춘옥과 이고분이 구연한 자료가 남아 있는데 대동소이하다. [양추양의 아들

대양산복>과 달리 <세경본>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과 이별의 기본 형식만 차용할 뿐이다. 더 초점화되어 있는 것은 자청비의 성적 정체를 밝히려는 서당 남성들의 시험, 그리고 시험에서 늘 승리하는 자청비의 형상이다. <세경본>은 <치원대양산복> 무가를 경유하여 축영대 설화를 수용하되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조적으로 변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양축 설화나 <치원대양산복>에서는 두 남녀의 이별이 여자 쪽 부모에 의한 일반적 정혼에서 비롯되는데 비해 <세경본>은 문도령 쪽 부왕의 일방적 정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변형된다. 이는 향후 난제의 해결을 여주인공 자청비한테 일임하려는 창의적 서사 전략이다. 어쨌든 이런 수용과 변형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경본>의 형성에 관여한, 중국과 함경도라는 서사적 원천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도령이 서수왕의 딸한테 장가가라는 부왕의 호출을 받아 천상으로 떠난 뒤 자청비는 같은 날 태어난 하인 정수남의 연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린다. 정수남은 다양한 형식으로 주인집 딸한테 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자청비한테 피살된다. 정수남을 달래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한 뒤 청미래덩굴이나 담뱃대로 귓구멍을 찔러 살해하는 장면은 <세경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왜 두 인물은 이런 극단적 갈등을 보이는가? 이는 애정 갈등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경본>의 또 다른 원천인 제주의 당본풀이를 참조해야 한다.

제주 당본풀이 가운데 <세경본>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작품은, 권태효가 규명한 대로 ‘송당계본풀이’다. 송당계본풀이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윗송당의 백주또와 아랫송당의 소천국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 자식들을 모시는 신당들의 기원에 관한 일군의 신화들을 부르는 말이다. 이 송당계본풀이의 근간에 여신 백주또와 남신 소천국의 결합과 분리가 터를 잡고 있다. 한데 이들의 결합과 분리에는 문화 갈등과 젠더 갈등이라는 두 가지 특징적인 국면이 혼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둘은 자식을 낳기 위해 결합하지만 문화적 갈등으로 분리된다. 소천국은 수렵문화를 표상하는 토착자이고 백주또는 농경문화를 표상하는 도래자다. 둘은 이질적인 생산 양식을 화해시키지 못해 이혼의 형식으로 분리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소천국의 형상이다. 소천국은 게으른 사냥꾼에 고기를 먹는 대식가다. 이런 소천국의 형상은 <세경본>의 정수남과 자연스레 겹쳐진다. 정수남은 하인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게으른 인물이다. 더구나 그는 <세경본>에서는 하세경신으로 좌정하지만 본래 마불림제<sup>6)</sup>에서 모셔지는 축산신이다. 제주 사회의 생산 양식의 변화에 따라 고기를 획득하는 방식이 사냥에서 목축으로 확장되었지만 축산신은 수렵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수남과 소천국의 연결고리는 젠더 갈등에도 있다. 송당계본풀이의 하나인 <세화분향당본풀이>를 보면 도래자 백주또가 입도하여 외조부 천자또를 찾아갈 때 자신을 천자또의 집사라고 소개한 소천국은 백주또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시도한다. “치맷깍을 붓잡는고, 털뜨리고 나오니 흘목이를 비여잡는고. 토시동이 전전마기를 내여놓고, 흘목이를 기차두고”<sup>7)</sup> 천자

---

산백과 추성의 딸 영대는 백일기도를 드린 뒤에 태어난다. 여덟 살에 은하사 절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한다. 추영대는 남장을 했지만 나중에 여자임이 밝혀진다. 산백이 청혼을 하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온다. 산백의 청혼 이야기에 부모는 영대의 혼사를 다른 가문으로 정한다. 산백은 영대의 정혼 소식을 듣고 그리워하다가 죽는다. 영대는 산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다가 시집가는 길에 산백의 묘를 지날 때 가마에서 내려 묘 속으로 뛰어든다. 산백의 묘는 갈라졌다 다시 달히고 영대의 나삼 자락만 틈에 끼어 있었다. 사람들이 나삼 자락을 떼어 내자 나비가 된다.]

6) 7월 백중에 지내는 우마번성(牛馬繁盛) 기원 의례.

7) 진성기, 1991, 390면.

또를 찾아간다. 풀이하자면 치맛자락을 붙잡은 소천국의 손목을 칼로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청비한테 성폭력을 행사하는 정수남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나아가 청미 래덩쿨이나 담뱃대로 귀를 쑤셔 정수남을 죽이는 자청비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 <세경본>의 남녀 갈등에 보이는 과도한 폭력은 당본풀이, 정확하게는 송당계본풀이에 그 원천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청비는 여러 고난을 겪은 뒤, 최종적으로는 시아버지 문선왕의 천상 시험을 거쳐 며느리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문도령과 지상(제주)에 내려온 이후에도 고난은 그치지 않는다. 이웃에 사는 일천선비로 표상되는 사악한 남성들에 의해 다시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청비를 둘러싸고 문도령과 일천선비 사이에 일종의 삼각관계의 애정 다툼이 일어난다. 자청비와 편히 사는 문도령을 시기하여 문도령을 잔치에 초대한 뒤 “고압약주 맥영 죽여 두영 조청비랑 드라당 우리 차례배기 하게 이논을”(강을생 본)<sup>8)</sup> 하는 무서운 계락을 꾸미기 때문이다. 독한 술을 먹여 죽인 뒤 자청비를 차례로 겁탈하겠다는 끔찍한 계략이다.

이 계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문도령이 결국 일천선비 일당에 의해 피살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도령이 금지를 위반한다는 점이다. 자청비는 잔치에 가는 문도령한테 솜옷을 입혀 보내면서 술잔을 받으면 먹는 척 솜옷에 부으라고 한다. 일천선비의 계락을 인지한 자청비가 고지한 ‘술을 받아 적지 말라’는 금지다. 그러나 금지는 늘 위반을 전제로 한다. 잘 대응하고 돌아오다가 ‘팔 오그라진 절뚝발이’의 권주를 뿌리치지 못해 독주를 받아먹고 죽는다. 물론 이 죽음은 자청비의 서천꽃밭 행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도령의 금지 위반은 경기도 용인에서 전승되던 <성주본가>(이성녀 본)에 보이는 황우양씨의 금지 위반과 겹친다. 성주신의 내력을 풀이한 <성주본가>의 황우양씨는 천하궁의 무너진 누각을 재건하러 떠나는데 부인은 대목 일에 필요한 연장까지 챙겨주면서 한 가지 당부 를 한다. ‘도중에 말대답을 하지 말라!’ 그러나 황우양씨는 소진뜰의 소진랑이 욕을 해대며 시비를 걸자 아내의 금지를 위반한다. 그 결과는 부인의 위기로 돌아온다. 황우양씨의 옷까지 바꿔 입은 소진랑이 황우양씨의 집에 찾아가 부인을 범하려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위기를 통하여 부인은 죽음과 다를 바 없는 통과례의 과정을 거쳐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재탄생하지만, 아내가 발부한 금기를 위반하는 남편의 동일한 형상은 <성주본가>의 황우양씨와 <세경본>의 문도령이 서사적으로 상관성이 없지 않다는 좌증이다. 말하자면 <세경본>의 형성 과정에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한반도 지역의 무속서사들이 두루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천선비의 형상이다. 문도령을 제거하고 자청비를 차지하려는 일천선비의 모습은 정수남의 폭력적 이미지와 일정 부분 겹친다. <세경본>은 애정 서사를 근간을 삼고 있으므로 여자를 차지하려는 남성들의 싸움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일천선비’라는 이미지다. 정수남은 개인이지만 일천선비는 특정한 집단이다. 왜 선비였을까?

선비 이미지는 <세경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제주 무속신화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를 죽이려는 세력도 ‘선비’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초공본>의 자지맹왕아기씨의 아들 삼형제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 삼형제를 시기하여 제거하려고 하는 집단이 ‘일만제자’ 또는 ‘일천선비’이다. 이들은 과거시험에 나갈 때 “개새끼들 시성제가 감을 흐민 우리들 과걸 못홀 건디 후연”<sup>9)</sup> (개새끼들 삼형제가 가면 우리들이 과거급제를 못할 것이라고 하여/김명운 본) 일천선비가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거나, 도중에 배나무의 배를 따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삼

8) 진성기, 위의 책, 305면.

9) 진성기, 위의 책, 59면.

형제를 배제하려고 한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삼형제가 장원급제의 자리에 오르자 중의 자식이라고 밀고를 하여 급제와 벼슬을 취소하게 만든다.

동문수학을 했지만 삼형제에 적대적인 일천선비, 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삼형제를 축출하는 조정의 상시관은 반불교적·반무속적 세력을 상징한다. 같은 계열에 속하는 한반도 지역의 <제석본풀이>나 제주의 <초공본풀이>는 황금산 도단땅 주자선생, 곧 중(석가모니)의 자식이 제석신이 되고, 저승 삼시왕이 된다. 주지하듯이 이는 불교와 무속의 습합, 나아가 무속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불교와 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담론의 신화적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경본>의 일천선비 이미지는 조선 건국 이후 음사(陰邪)로 규정된 무속의 입장, 다시 말해 조선 이후의 지배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갈등을 중심으로 <세경본>을 보면 <세경본>의 형성 과정에서 관여한 원천 서사들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이 원산인 설화에서부터 함경도를 비롯한 한반도 지역의 서사 무가, 제주도의 당본풀이를 중심으로 한 무속신화, 나아가 조선 시대를 경유하면서 획득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의 서사화 등 다양한 원천들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면 <세경본>은 제주와 한반도 지역에 전승되던 서사들의 거대한 저수지와 같은 일반신본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세경본>을 제주 무속신화의 대표로 봐도 좋을 이유다.

### Ⅲ. 농경신의 배치와 서차, 그리고 하세경신

<세경본>의 마지막 갈등 혹은 주제는 세경신의 배치와 서차에 대한 것이다. 강을생 본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서천꽃밭에서 구해온 환생화로 문도령을 살려낸 자청비는 시아버지 문선왕의 명에 따라 중세경이 되어 오곡씨를 받아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때 문도령은 상세경이 되어 동반한다. 내려오는 중에 죽은 정수남의 뼈를 모아 “문도령이 살리단 남은 고장으로 팡오를고장, 솔오를고장 오장육부 그릴 고장 숨드릴 고장, 말 7를 고장....매떡 좇어 놓”<sup>10)</sup>고 때죽나무 회초리로 세 번 때려 살린다. 문도령도 살리고, 정수남도 살린 자청비는 마침내 두 남성 세경신과 더불어 세경신으로 세경 땅에 좌정한다.

<세경본>의 서사에 따르면 세 세경신 가운데 핵심적인 존재는 자청비다. 세경신은 농경신인데 농경신의 능력이란 갈무리 둔 곡식을 봄에 소생시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자청비는 ‘스스로 청해 얻은 딸’이고 남성신 문도령과 정수남을 죽음에서 재생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 남성신의 역할이란 자청비와 짝을 맺고 도망치거나 자청비를 괴롭힌 것 밖에 없다. 자청비가 주인공이고 주신(主神)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심방 강을생은 “즈청비 씨아방, 문선왕이 말을 흐되, ‘즈청비야! 늘을 상세경을 맏기젠 흐였져마는 중세경으로 느려스라. 문도령이랑 상세경을 맏기라. 정수남이랑 하세경을 맏기라.’”<sup>11)</sup>라고 구술한다. 시아버지가 자청비를 상세경에 임명하려고 했다가 중세경을 주었다는 뜻이다. 아들 문도령한테 상세경을 주겠다는 뜻이다. 왜 그랬을까? 본풀이의 전후 맥락으로 보면 꽃감관 막내딸한테 가서 살다가 자청비를 잊었기 때문에 문도령은 ‘가슴에 곱팡이가 피고 피가 고인’ 자청비한테 외면당한다. 시아버지의 처지에서 보면, 다시 말해 가부장의 위치에서 보면 며느리 자청비의 ‘질투’가 문제였다. 이룩한 업적으로 보면 자청비가 마땅히 상세경이 되어야 하지만 가부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문도령한테 상세경의 신직을 부여할 수밖에

10) 진성기, 위의 책, 314-315면.

11) 진성기, 위의 책, 314면.

없었다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에는 이미 남성중심적 시각이 투여되어 있고, 한경면 고산리의 무녀 강을생도 그 시각의 자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청비가 지닌 이 같은 위계를 놓치면 중세경의 ‘중’을 상중하의 위계로 보지 않고 상하를 중계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로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청비가 <세경본>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문선왕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직의 배치에 있어서는 역할에 걸맞은 위계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앞서 <세경본>과 서사적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 <세화본향당본풀이>의 신직 배치와 대비해 보면 잘 드러난다. <세화본향당본>의 여신 백주또는 남신 천자또와 금상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같은 당에 나란히 좌정한다. 그러나 <세경본>의 자청비는 남편보다 지위가 낮은 두 번째 세경신일 뿐, 두 남성신 사이에서 특별한 중재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를 이소운은 ‘위계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적절히 해석한 바 있다.

그런데 농경신의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세경본>의 사건을 구성하는 핵심 인물인 자청비·문도령·정수남 외의 인물이 새롭게 세경신으로 호명된다는 점이다. 이용옥·양창보·고대중 심방이 구연한 <세경본>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

상세경은 염제실농씨(炎帝神農氏) 중세경, 하늘 옥황(玉皇), 문왕상(文王星)은 문도령, 하세경은 자청비(自請妃)~ 세경장남(--馬男), 정어엇인정수남이 정술대이 거느령, 세경신중 마누라님 전에 난산국은 본산국, 본을 풀져 영협네다.<sup>12)</sup>

이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존재가 염제신농씨이고, 그는 상세경의 자리에 배치된다. 그 결과 자연스레 문도령과 자청비는 각각 중세경·하세경신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하세경신의 자리에 있던 정수남은 세경장남이라는 특이한 신직을 받는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세경본>의 사건들 속에 염제신농씨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 신은 분명 후대에 심방에 의해 자의적으로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옥 심방의 설명<sup>13)</sup>이 흥미롭다. 옛날 자신의 스승들은 염제신농씨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경본>은 농사에 대한 것이고 농사짓는 법을 제일 먼저 마련한 신은 염제신농씨이고 자청비는 그 법을 따라하는 것이 때문에 상세경의 자리에 염제신농씨를 두었다는 말이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힘에 의해 이룩된 것이다. 하나는 염제신농씨가 농경신의 기원이라는 정보의 공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신이 더 우월하다는 중화주의의 힘이다. 두 가지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겠지만 일반화된 시기는 조선시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용옥 심방 등의 구연본에 보이는 염제신농씨의 문제는, 이 심방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심방의 세대가 처음으로 창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세경 염제신농씨 역시 일찍부터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사실 이런 신직의 대체 혹은 재구성은 전혀 낯선 사태가 아니다. 특정 이념이나 의례가 기대하는 신성성의 추이가 달라지면 새로운 신(혹은 상징물)이 기존의 신화 속으로 들어오거나 기존의 신성을 대체할 수 있다. 불교가 단군신화의 최고신을 제석천(帝釋天, Indra)로 해석하거

12) 허남춘 외, 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37면.

13) 이소운, 2019, 「해계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성들로부터의 탈주-〈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101-102면.

나 도교가 환인을 동방의 진인(眞人)으로 주장한 것이 그런 사례들이다. 고려가 건국되자 왕건의 건국신화가 제작되었는데 이 시기의 중화주의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당나라 속종이 왕건의 혈통 속으로 유입된다. 왕건의 조부인 작제군이 아버지를 찾아 당나라로 떠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신성 계보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화본향당본풀이>에서도 유사한 신직의 재배치가 이뤄진다. 제주의 본풀이는 일반적으로 한양이나 강남천자국 등으로 표상되는 외부를 새로운, 강력한 권력의 원천으로 표상한다. 그래서 <세화본향당본>에서도 금상님이라는 강력한 무력을 지닌 영웅이 입도하자 천자또와 백주또라는 제주 출신의 당신(堂神)들은 자신들의 식성을 양보하면서까지 금상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같은 형식으로, 염제신농씨가 외부의 강력한 농경신으로 인식되자 기존의 농경신의 기원에 관한 신화인 <세경본>에 수용된 것이다. 그것도 최고위 농경신의 자리로!

세경신의 배치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사안은 하세경신 정수남이다. 정수남은 상세경신의 자리에 염제신농씨가 밀고 들어와도 완전히 밀려나지 않는다. 하세경신의 자리를 자청비한테 주고 자신은 '세경장남' 혹은 '세경테우리'라는 이름을 지닌 채 여전히 세경신의 하나로 텍스트와 의례 내부에 남아 있다. 이는 정수남이 마블림제와 관련이 있는 목축신이라고 하더라도 <세경본>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희는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를 '풍요를 위한 농경과 목축의 바람직한 관계를 농경을 위한 목축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신화'로 읽은 바 있다. 제주의 전통적 농경 방식에서 가축이 아주 긴요한데 제주 토양의 특성상 조와 같은 작은 씨앗을 뿌릴 때는 말을 동원해서 땅바닥을 밟아주어야 하고, 휴경을 하는 동안에는 밭에 마소를 몰아넣어 분변을 통해 거름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청비와 정수남의 성적 갈등에서 보듯이 농경과 목축을 표상하는 양자 사이에 충돌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수남을 세경신의 자리 한 쪽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였다 살림으로써 '농경을 위해 활용되는 목축'이라는 제주 식의 농업생산양식을 신화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동시에 하세경신에서 밀려 나더라도 세경신의 하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IV. 자청비의 논쟁적 행로와 세레스의 자청비

<세경본>의 주역 자청비는 '세경신되기'를 향해 여러 시공을 휘저으며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 과정에서 문도령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정수남을 죽이고 살린다. 이 달리기가 수렵에서 농경으로의 변화라는 제주 사회의 역사적인 추이를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목축에서 농경으로의 역사적 변화가 아니라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양자의 국면, 다시 말해 역사적 국면과 동시대적 국면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세경본> 이해에 이르는 길일 것이다. 한반도 지역과 달리 제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렵과 목축, 농경과 어업이 공존한 사회였다. 무속의례는 이런 사회 내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본풀이(무속신화)는 신들의 좌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조절의 과정을 표현한다.

자청비와 정수남이 살해에 이를 정도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주종 관계의 세경신으로 함께 좌정하는 것은 여전히 제주의 농경에 마소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추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세경본>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

계가 송당계본풀이의 백주또와 소천국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백주또는 도래한 농경 양식, 소천국은 토착적 수렵 양식을 상징한다. 이들의 결연과 분리 과정은 선주자와 후래자, 서로 다른 생산 양식 사이의 접촉과 분리와 공존 과정을 표상한다. 이 과정이 역사적 추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세경본>이 송당계본풀이를 수용했다면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에도 역사적 추이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향후 이 문제는 더 깊이 탐구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세경본> 읽기다. 자청비는 남장으로 서당에서 공부하면서 남성들의 시험을 반복적으로 극복한다. 문도령과 결연을 맺기는 했지만 문도령을 오히려 거부하기도 하고, 살해된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남장으로 서천꽃밭 행을 감행한다. 정수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들 말할 필요도 없다. 자청비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당하고 시험받지만 이를 가뿐히 물리친다. 자청비의 지속적인 ‘남성성으로부터의 탈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세경본> 해석에서 대단히 긴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한 최근의 해석은 자청비의 탈주가 “정수남으로 상징되는 남성성과 문도령으로 상징되는 남성성, 곧 생산 양식의 층위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성과 문화 양식의 층위에서 여성을 희생시키는 남성성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소윤의 견해다. 그런데 자청비는 거부하면서도 양자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세경신으로의 공동 좌정이 문선왕의 결정에 의해 이뤄지고, 문도령이 상세경으로 좌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자청비의 남성성으로부터의 탈주가 무산되는 듯이 보이지만 자청비의 탈주가 아니라면 신직 배치는 불발에 이르고, 남성성의 발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저 탈주는 전혀 무용한 것이 아니다.

동시에 자청비의 탈주를 탈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음미해 봐야 한다. 주지하듯이 <송당본풀이>의 백주또와 소천국의 살림 분산은 ‘당가르기’라는 전형적인 제주의 마을 형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세경본>은 당본풀이가 아니라 일반신본풀이지만 자청비의 형상 안에 백주또의 문화적 유산이 있다면 자청비의 반복적인 탈주 역시 당가르기의 신화적 표현이라는 구술적 관습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각은 자청비의 탈주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만 해독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역시 향후 더 깊이 탐구할 논제이다.

<세경본>의 주인공 자청비는 한때 술병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세경본>에 형상화되어 있는 자청비의 능동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자청비가 우주로 갔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왜소행성 ‘세레스(Ceres)’의 크레이터(구덩이)들에 국제천문연맹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한 곳에 자청비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2017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왜 그랬을까? 세레스는 그리스신화의 데메테르에 해당하는 로마 신화의 농경신이다. 그래서 세레스의 지명으로 삼을 다른 농경신을 찾았고 제주의 자청비도 선택된 것이다. 이 이름을 제안한 독일항공우주센터의 슈테판 슈뢰더 박사는 “자청비 크레이터가 한국이 준비하는 달 탐사와 같은 행성과학 연구를 알리고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sup>14)</sup>고 했다고 한다. 제주를 대표하는 여신 자청비가 향후 우주로 날아갈 미래 한국의 이정표가 된 셈이다.

## 참고문헌

14) 이영혜, 2017.10.13., 「왜행성 ‘세레스’ 지명에 한국 神 이름 붙인다」,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013/86726950/1>)

- 赤松智城·秋葉隆, 1937,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 진성기, 1980, 『남국의 무속서사시』, 정음사.
- 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 허남춘 외, 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박경신, 1986, 「제주도 巫俗神話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 이수자, 1993,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 좌혜경, 1998, 「즈청비-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 고은지, 1999,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 권태효, 1999,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 김경희, 2004, 「중국 <梁·祝>故事的 한국적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강진옥, 2005,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회.
- 신태수, 2006, 「<세경본풀이>의 세계관적 기저와 담론 구조」,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 최원오, 2006,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주몽신화> <세경본풀이><목도령형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 정인혁, 2008,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 “중(中)”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조현설, 2009,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종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김재용, 2009,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 오세정, 2010,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류정월, 2013,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 정진희, 2013, 「풍농의 원리: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 신동훈, 2013,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 이소윤, 2015, 「<세경본풀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진희, 2015, 「풍요 여신은 ‘생산’하는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김나영, 2018, 「노비로 등장하는 정수남과 느진덕정하님의 정체-안사인본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회.
- 이소윤, 2019,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성들로부터의 탈주-<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 <부록>

### 1. 제주 대표 여신 자청비

우리 신화에는 여신들이 유독 많습니다. 바리데기를 비롯하여 당금애기.월강암이.감은장애기.청정각시.백주또.삼승할망.저승할망.마고할미.명월각시.오늘이, 그리고 자청비. 하나같이 소중한 여신들이고, 듣고 보면 가슴 아픈 사연도 적지 않은 여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여신들은 처음부터 신이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다른 점이지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화의 신들, 특히 여신들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여신 신화들은 한 여성이 여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여신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분이 바리데기입니다. 바리공주라는 고귀한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분은 왕자를 간절히 바라는 오구대왕의 일곱째 공주로 태어난 잘못으로 버려지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구대왕은 그 잘못으로 죽을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죽음의 길, 저승길로 떠나는 분이 바로 바리공주지요. 바리공주를 심청과 닮았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데기는 저승에서 약수를 구해 아버지를 살린 공덕으로 여신이 됩니다. 우리의 많은 여신들은 대개 이런 희생의 길을 통해 여신이 된 분들입니다.

이런 여신들 가운데 바리데기만큼이나 돋보이는 분이 자청비입니다. 자청비는 제주도 무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이지요. 제주도 심방(무당)들이 농사나 목축이 잘 되기를 비는 곳을 할 때 모시는 신이 세경신인데 『세경본풀이』는 세경신 자청비의 내력을 풀어내는 심방의 노래입니다. 『세경본풀이』의 여주인공 자청비는 바리데기처럼 인간 세상 김진국 대감의 딸로 태어나 갖은 시련을 거쳐 여신으로 거듭나는 존재입니다. 한반도를 대표하는 여신이 바리데기라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여신이 자청비입니다.

그런데 자청비가 겪는 시련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리데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바리데기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길을 조용히 걸어간다면 자청비는 운명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청비의 얼굴에서 고전소설의 주인공 춘향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경본풀이』를 깊이 읽으려고 한다면 바리데기와는 다른, 나아가 어느 여신들과도 다른, 시련에 맞서는 자청비 특유한 모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2. 자청비는 어떤 시련을 겪었는가?

『세경본풀이』를 끝까지 따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자청비이지요. 그런데 자청비만 세경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문도령도 세경신이 되고, 나쁜 놈인 정수남도 덩달아 세경신이 된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자청비는 문도령보다 지위가 낮은 중 세경신이 됩니다. 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문이지요. 이 의문을 풀어야 우리는 『세경본풀이』가 이야기하는 자청비의 시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문의 실마리는 이미 이야기의 첫머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들의 상투적인 공식대로 『세경본풀이』에도 집안은 넉넉하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그들이지요. 이야기 공식에 따르면 다음에 이들이 해야 할 행동은 기자치성(祈子致誠)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나타나 주셔야 하는 분이 도우미 스님입니다. 제주도 동쪽에 있는 절의 화주승이 등장해 우리 절에 정성을 들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권하지요. 그런데 정성을 바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실수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불공을 드리러 가는 도중에 먼 동쪽 절대신 가까운 서쪽 절로 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쌀 백 근을 바쳐야 하는데 아흔아홉 근을 바친 것입니다. 『세경본풀이』는 이 두 가지 실수 때문에 아들 대신 딸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자청비의 이런 출생 내력은 여성을 모자라는 존재로 인식하는 남성중심적 문화 탓입니다. 요즘은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거의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니다.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달빛을 마시거나 개구리 알을 먹기도 하고, 돌미륵의 코를 굽어 먹기도 했지요. 바리데기가 쫓겨난 이유도 아들을 낳지 못한 아버지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청비도 바리데기와 비슷한 처지로 태어난 셈이지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자청비가 당하는 시련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빨래하러 갔다가 문선왕의 아들 문도령을 만난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떠나지요. 하지만 자청비는 자청비가 아니라 자청도령의 이름으로 동행합니다. 남장을 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였으니까요. 우리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영웅적 여주인공의 대부분이 남장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남장 자체도 자청비가 겪는 시련이지만 더 큰 시련은 글공부를 하면서 당하는 시련입니다. 자청도령을 의심한 글방 선생은 젖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고, 달리기나 씨름을 시키고, 오줌 멀리 싸기 시험을 하게 하지요.

자청비가 지상에서 겪는 시련의 압권은 정수남의 괴롭힘입니다. 학수고대하던 문도령 소식에 흑한 자청비가 정수남을 따라 나서지요. 이때부터 정수남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청비를 괴롭힙니다. 역지로 고사를 지내게 하여 고사 음식 혼자 먹기, 말안장에 소라껍질 넣어 말 못 타고 걸어가게 만들기, 점심으로 싸운 메밀 범벅 사기 쳐서 혼자 먹기, 옷 벗고 꿈무니 보이며 물마시게 하기 등등. 가히 놀부심술타령의 여성학대판이라 할 만하지요. 그러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그때부터 정수남은 노골적으로 손을 만져보자, 입을 맞춰보자, 허리를 안아보자며 달려듭니다. 자청비가 상전인데도 정수남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글방의 수난이나 하인의 학대나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지요.

이 시련의 정점에 하늘옥황 문선왕의 시험이 있습니다. 문도령과 결혼하겠다는 자청비에게 시아버지가 될 문선왕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문제지요. ‘내 며느리 될 사람은 구덩이에 숯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칼날이 선 다리를 놓고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수남보다 더한 학대지요. 요즘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시아버지가 있다면 정신병원에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은 무당이 내림굿을 할 때 칼을 타는 장면을 상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험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겪는 며느리-여성의 간난신고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문도령과 결혼했지만 수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 선비들에게 독살당한 남편을 살려야 하는 또 다른 고난이 자청비를 기다리고 있지요. 참으로 끝없는 시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주도 대표 여신 자청비입니다.

### 3. 자청비는 어떻게 시련을 넘어서는가?

하지만 자청비의 시련만을 이야기했다라면 『세경본풀이』는 한 여자의 눈물어린 신세타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의 진면목은 시련이 아니라 시련을 넘어서는 자청비의 활달한 활약상에 있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딸이 태어났지만 아버지 김진국 대감은 “부인님아, 아기 이름을 자청하여 낳았으므로 자청비(自請妃) 석 자로 지으면 어떻습니까?”라고 묻지요. 아버지의 이 물음은 『세경본풀이』가 여성을 버려야할 존재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청비가 대단히 적극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리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첫머리의 암시대로 자청비는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시련을 이겨나갑니다. 아버지가 ‘계집의 글공부’를 막아서자 글 모르면 제삿날 지방도 못쓴다고 반박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남성중심적 사회의 통념에 대한 참으로 통쾌한 반론이지요. 우리가 읽은 강을생 창본에서는 부모가 글공부를 적극 권유하기까지 합니다. 자청도령의 정체를 밝히려는 글방 선생의 시험 앞에서는 소라껍데기를 사타구니에 매달거나 대나무 붓 자루를 이용해 오줌을 갈기는 꾀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에 뛰어나다는 것은 자청비가 ‘똑순이’라는 것이지요.

자청비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역사(力士)나 전사(戰士)로서의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글방 선생이 여자는 힘이 약하다고 문도령과 씨름을 시키자 문도령을 넘어뜨립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옥황에 올라가 문도령과 결혼한 뒤 시아버지 문선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는 천리마를 타고 단숨에 적군을 무찌르는 전사가 됩니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문도령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힘센 남자, 약한 여자라는 상대적 이미지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것이지요. 정수남에게서 성적 학대를 당하던 자청비가 새벽녘에 어쩔 수 없이 담뱃대나 청미래덩굴로 정수남의 귓구멍을 찔러 죽이는 것도 이런 능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자청비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지닌 능력으로 시련에 맞섭니다.

이런 자청비의 지혜와 힘이 압축되어 나타난 것이 서천꽃밭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칼선다리의 고초를 건너고 전공을 세운 자청비가 문도령과 제주도에서 정착하는데 둘의 행복을 시기하는 못된 선비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자청비의 당부를 어긴 문도령은 결국 선비들에게 살해되고 말지요. 서천꽃밭은 바로 죽은 문도령의 목숨을 되살릴 수 있는 환생꽃이 피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바리데기도 갔던 곳이지요. 그런데 바리데기에게 그곳이 환생꽃을 얻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던 공간이라면 자청비에게 그곳은 지혜와 힘을 발휘하는 공간입니다. 자청비는 옷을 훌쩍 벗는 꾀를 쓰고, 화살로 귀를 꿰뚫는 힘을 써서 서천꽃밭의 골칫덩어리인 궁덕새를 잡은 덕으로 꽃밭감독관의 사위가 되고, 또 그 덕에 환생꽃을 얻어와 문도령을 되살려내고 있으니까요. 바리데기가 빨래 삼년 나무 삼년 밥 삼년을 하고, 아들 셋 낳는 힘겨운 삶을 살았다면 자청비는 여성적 제약을 넘어서는 능동적 활약을 펼칩니다.

자청비는 이처럼 남성중심적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한 여러 가지 제약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여성입니다. 자청비를 찬양과 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 여성들을 ‘남자 없이도 잘사는 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삼다도라는 별명을 지닌 섬의 팍팍한 삶이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빚어내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적으니 남자 없이도 잘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런 제주 여성들이 모인 곳판에서 불리는 무가가 『세경본풀이』입니다. 그러

니 자청비의 얼굴에는 진취적인 제주 어머, 제주 할망들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제주도 토박이 여신 자청비의 씩씩한 모습은 바로 제주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 4. 자청비는 왜 세경신이 되었을까?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시련을 이기고 문도령과 결혼한 자청비가 농사의 흥풍을 좌우하는 농경신이 되었을까’하는 의문입니다. ‘문선왕이 내려준 오곡의 씨앗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곧바로 ‘왜 자청비에게 오곡을 씨앗을 주었지’하는 또 다른 물음이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이 의문을 해결하려면 자청비가 시련을 이기는 과정에서 한 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청비가 꾀도 쓰고, 힘도 쓰지만 꾀와 힘으로 결국 죽은 문도령을 살리지요. 이미 뼈만 남은 문도령의 뼈를 모아 뼈오를 꽃, 살 오를 꽃, 환생꽃으로 되살려냅니다. 문도령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해한 정수남까지 살립니다. 자청비는 마른 땅처럼 메마른 두 사내의 뼈를 모아 생명을 주는 영험한 존재입니다. 이는 마치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린 뒤 새 생명이 솟아오르는 자연의 순환과정과 유사합니다. 죽은 것처럼 땅 속에 갇혀 있던 씨앗이 되살아나는 것이니까요. 자청비가 농사의 흥풍을 좌우하는 여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청비가 겪은 갖은 시련이 한해의 농사에 닥쳐오는 갖은 재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이런 세경신의 영험한 능력이 『세경본풀이』의 마지막 장면에서 구체화됩니다. 자청비는 세경신이 되어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인색한 부잣집 아홉 머슴들에게 급체를 주고, 또 낮게 하는 신성한 능력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 청태산 할머니 부부가 범벅을 대접하자 농사가 잘 되도록 복을 줍니다. 세경신은 인색한 부잣집의 농사는 돌보지 않고, 범벅도 나누는 가난한 백성들의 농사는 잘 돌봐주는 공평한 여신, 가난한 백성들의 소망이 스며 있는 여신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세경본풀이』를 읽는 이들 가운데는 ‘왜 사악한 정수남을 살려주는 거야’하고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정수남만이 아닙니다. 세경신 자청비 일행을 푸대접한 마음씨 나쁜 아홉 머슴들에게 급체를 내리지만 결국은 살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다르거나 약하다고 해서 내치거나 없애지 않고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우리 신화의 특징입니다. 하늘과 땅, 저승과 이승, 남자와 여자, 사람과 자연, 선과 악은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나아가 이는 모든 것을 품을 정도로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세경신 자청비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먹이는 땅이 그런 것이니까요. 모름지기 농사의 신이라면 자청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청비가 오늘날 되살아나는 것도 자청비가 지닌 이런 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1980년대에 제주 출신의 한 시인이 <자청비>라는 서사시를 쓴 바 있고, 몇 년 전에 무대에 오른 제주도의 첫 창작 뮤지컬도 <자청비>였지요. 그뿐 아니라 여신 자청비 이야기는 오늘날 옛이야기로,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다시 쓰여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청비 이야기를 만나든 우리는 자청비가 가져오는 농사의 흥풍이, 나아가 세상의 온갖 흥풍이 어디서 오는지를 음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청비가 제주도의 여신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세경신, 온 세상의 세경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경본풀이 현대역 및 주석

### 자청하여 태어난 자청비

옛날 옛적 윗마을에는 김진국이 살고 아랫마을에는 조진국이 살았다. 두 사람은 열다섯에 하늘이 정해 준 대로 아름다운 배필이 되었다. 알콩달콩 사이 좋게 십수 년을 살았지만 부부는 서른 가깝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고대광실<sup>15)</sup> 높은 집에 집안에는 종도 많아 기는 종도 아홉 나는 종도 아홉이었다. 남쪽으로는 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논밭이 있어, 살림살이도 음식도 늘 가득하여 곡식 무더기에서는 덩굴이 오를 만큼 모든 것들이 풍족하였다. 하지만 혈육이 없어서 늘 근심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국은 답답한 마음도 달랠 겸 꽃구경이나 하려고 서천꽃밭에 들어갔다. 한창 꽃구경을 하며 보니 까마귀도 알을 낳고, 썩은 나무 밑동에도 새싹이 나는가 하면, 지난 가을에 잎 떨어진 온갖 초목들은 봄이 되자 파릇파릇 다시 싹이 돋아나고, 까마귀가 품은 알에서는 새끼가 나와 어미가 물어다 준 작은 벌레를 늘름늘름 받아먹고 있었다.

이리저리 꽃구경을 마친 김진국은 더욱 허전해진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다가 허름한 움막 앞을 지나게 되었다. 움막 앞에는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은 거지가 아이 하나와 함께 앉아서 놀고 있었다. 해가 저물도록 배고픈 것도 잊고, 해지는 줄도 모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멀찌감치 떨어져 그 모습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진국, 발길을 돌려 고대광실 같은 집으로 돌아온 김진국, 허전한 마음은 더 답답해졌다.

말없이 사랑방에 들어가 능화자리,<sup>16)</sup> 꽃방석을 번지르르 깔아놓고, 머리에는 한서병풍,<sup>17)</sup> 발밑에는 족자병풍을 휘휘친친 두르고, 고운 베개에 비단이불 네 귀퉁이 반듯이 개어놓은 방에 앉아 있으니, 허전한 마음은 더할 길이 없었다. 은당병<sup>18)</sup>을 꺼내놓고 이리저리 굴러 봐도 입 벌리고 즐겁게 웃을 일이 없고, 금봉채<sup>19)</sup>를 내어놓고 이리저리 만져 봐도 입 벌리고 웃을 생각이 없고, 귀한 연적을 내어놓고 이리저리 살피봐도 즐거운 생각은 도무지 들지 않았다.

‘아! 아무리 귀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아이 있는 집의 즐거움을 어찌 따라갈꼬.’ 웃을 일도 없고, 입맛도 들지 않아 말없이 돌아누운 김진국은 한숨만 푹푹 쉬며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속만 부여잡고 끄끙대고 있었다.

그때 조진국 부인이 부지런히 아침밥을 지어놓고, 통영반상에 메밀묵 적 담아내고, 안성 녹기 꺼내 열두 가지 찬을 가득 담아 푸짐한 밥상을 정성스레 마련하여 김진국에게 들고 갔다. 그러나 아침때가 한참 지나도록 김진국은 도무지 밥상을 받지 않고 있었다. 놀란 조진국 부인 방에 들어가 김진국을 살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시기에 이리 근심이 가득하여 아침도 안 드시고 계신가요?”

15) 매우 크고 좋은 집.

16) 마름꽃 문양이 있는 자리.

17) 한서(漢書)를 적어 놓은 병풍.

18) 은을 박아 넣은 병

19) 머리 부분에 봉황의 모양을 새겨서 만든 금비녀.

“부인이 내 근심을 안다고 어찌할 수가 있겠소?”

“여보시오, 대감님아. 아버지 몸에서 뼈를 얻고 어머니 몸에서 살을 얻어 어머니 배 속에서 아홉 달, 열 달을 꼬박 채워, 이 밝은 세상으로 나올 적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오니 한 살이 되자 어머니는 배넛저고리 지어 입히고, 두세 살이 되어가니 노봉옷<sup>20)</sup>을 지어 입히고 그럭저럭 네다섯 살을 지나가니 위아랫막이<sup>21)</sup>를 지어 입혀가며 나를 키워 열다섯이 가까워지자 당신과 천생배필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럭저럭 한술밥을 지어먹고, 한 자리에서 잠을 자며 서른 가까이 살았는데 내게 굶은 일이 있거든 대감님께 아니 말할 수가 있겠으며, 대감님이 굶은 일 있으나 좋은 일 있으나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시오. 부인님아! 그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처지가 더욱 가련하오. 우리는 고대광실 높은 집에 남쪽에는 산, 북쪽에는 논밭이 넓게 있고, 설설 기는 종도 아홉이요 일 잘하고 날랜 종들도 아홉이니 남부러울 게 없지요. 그러나 어제는 심심하고도 심심하여 서천꽃밭 들어가 꽃구경을 하다 보니 구시월에 떨어진 풀잎사귀도 이삼월이 되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썩은 나무에도 새순이 나고, 까마귀도 알을 쳐서 작은 벌레 물어다 새끼들 먹이니 주는 족족 늠름늠름 잘도 받아먹더구려. 꽃구경을 실컷 했어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은 더욱 허전하여 쓸쓸히 돌아오던 중에 한 허름한 움막을 지나는데, 아 글썩, 그 움막에 사는 거지도 아침밥 굵고 점심밥 굵고 앉아서도 종일토록 아이 하나와 함께 놀면서 해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를 만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자식 없는 우리는 까마귀만도 못하고, 거지만도 못한 것 같아 이렇게 근심하고 있대오.”

“여보시오, 가장님아! 그러지 말고 우선 아침진지부터 드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게는 돈이 풍족하니 영험한 산에 들어가서 정성스럽게 수록공양<sup>22)</sup>을 드리면, 자식을 볼 수 있을 것이요. 정 안되면 마을 밖에 가서 양아들을 데려와 자식을 삼으면 되지 않겠소?”

“부인님아! 부인님아! 그 말씀 듣고 봐도 가련하오. 아침식사나 합시다.”

무거운 마음을 누르며 말없이 아침식사를 마친 부부는 상을 물린 뒤 쓸쓸히 앉아 있었다. 그때 동개남은중 절의 육관대사가 내려와 먼 대문 밖에서 외쳐대는 소리가 들렸다.

“시주 좀 하시오. 시주 받아 낚고 오래된 절 수리 좀 하려 하오.”

스님 왔다는 소리에 두 귀가 번쩍 뜨인 부부는 얼른 하녀를 찾았다.

“늦인득이 정하님아! 대문 밖에 좀 나가 보거라. 어느 절의 대사께서 여기까지 오셨는고?”

늦인득이 정하님은 대문 밖 멀리까지 나가 스님을 찾아 물었다.

“대사님아! 대사님아!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절은 동개남은중 절이옵니다.”

늦인득이 정하님은 그 말 듣자마자 곧장 집으로 들어와 부부에게 말을 전하였다.

“상전님! 상전님! 저 스님은 동개남은중 절에서 오신 대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천강(遠天綱)<sup>23)</sup>은 가졌는지 원수룩은 가졌는지<sup>24)</sup>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오너라.”

늦인득이 정하님이 다시 달려 나가 부부가 시킨 대로 물어보자, 대사는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다.

20) 바짓가랑이가 트여 있는 옷.

21) 아래옷과 윗옷을 속되게 이르는 말.

22) 물과 물의 여러 귀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드리는 불공(水陸祭).

23) 원천강은 중국의 유명한 점쟁이인데 와전되어 점복에 관한 책을 가리키는 말로 무속에서 쓰임.

24) 수록제는 음식을 물이나 땅이 뿌려 외로운 혼령이나 아귀들을 위로하는 불교식 제의로 원수룩을 가졌다는 말은 수록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왼손에는 단수육갑(單手六甲), 오른손에는 오행팔괘(五行八卦) 벌려 있고<sup>25)</sup>, 원천강도 원수륙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늦인득이 정하님은 다시 방안까지 달려 와서 말을 전하였다.

“상전님! 상전님! 저 스님께서는 왼손에는 단수육갑, 오른손에는 오행팔괘가 벌려 있고 원천강과 원수륙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리로 청하여 모시고 오너라.”

부부는 반가운 마음에 육관대사를 안사랑까지 불러 공손히 모셨다.

“대사님! 대사님! 우리 부부의 사주 좀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 부부 열다섯에 천생배필을 삼아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서른이 다 되도록 아기가 없어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답니다. 우리 부부 사주팔자나 한 번 봐주십시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왼손에 든 단수육갑, 오른손의 오행팔괘 벌려 놓고 한참동안 두 부부의 사주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김진국 대감님, 지금부터라도 정성껏 공을 들이면 맨 마지막 메밀농사<sup>26)</sup>로 아들 자손 한 명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아니 드린다면 머리 깎고 바다 밖 절을 떠도는 중이 될 팔자입니다.”

깜짝 놀란 김진국은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공을 들여야 합니까?”

“음... 좁쌀도 일만 석, 흰쌀도 일만 석을 신고, 가는 물명주<sup>27)</sup>도 통째로 굵은 강명주도 통째로 초록 명주도 통째로 마련한 뒤 명(命)에 맞은 명쇠<sup>28)</sup>도 백 근 열 양을 준비하여 석 달 열흘 동안 정성을 다한 후에 우리 절에 와서 수록재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김 대감은 스님이 일러준 대로 정성껏 마련하여 매일매일 절에 시주하기 시작하였다. 조진국 역시 그날 이후로 푸른 대나무밭에 참실밭줄(참바)<sup>29)</sup>을 동에서 서로 매고, 남에서 북으로 매어 굵이 겹겹 신(神)줄을 만들어 두고, 아래에는 능화자리 번지르르하게 퍼 두고, 참바에는 물명주며, 강명주며, 초록 명주와 온갖 비단 넣어 두고 앞에는 이백미도 일만 석, 대백미도 일만 석 넣어놓아 낮에는 찬바람에 찬이슬 밤에는 은(銀)바람에 은이슬 석 달 열흘 정성을 다하였다.

마침내 약속했던 대로, 석 달 열흘 정성이 차니 조진국이 말하였다.

“여보, 대감님아! 이제 차려놓고 시주하는 일을 마쳤으니 어서 짐을 꾸리십시오. 내일은 동개 남은중 절에 들어가 수록공양을 드려서 자식을 점지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말을 마친 김진국 대감은 조진국 부인이 차려 놓은 물명주, 강명주의 무게를 모두 달아보더니 너무 많아 보이자 덜어내며 혼잣말을 했다.

“반 근 정도 없다고 뭐 누가 알겠나!”

25) 육갑은 10간 12지를 결합하여 만든 60간지(干支), 곧 육십갑자의 준말이고, 오행은 음양오행설의 오행, 팔괘는 주역의 8괘를 뜻하는 말로 두 손에 그런 것들이 벌려 있다는 말은 두 손에 점복 책을 펼쳐 놓고 육갑을 짚거나 오행과 8괘를 따져 운세를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

26) 자식을 얻기 위해 하는 남녀 간의 교합을 이르는 은유인 듯?

27) 얇은 남빛 명주실로 짠 피륙.

28) 무당들이 사용하는 아흔아홉 상쇠방울 가운데 명을 주는 방울(명쇠).

29) 삼이나 칩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

두 부부는 짐을 꾸려두고 김진국 대감은 바깥사랑에, 조진국 부인은 안사랑에 각각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내일이면 수록공양을 드리고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시간은 유난히도 더디 더디 가는 것만 같더니 결국 앓은 채로 밤을 새우고 말았다. 밖에서는 천왕(天王) 닭이 목을 들어 울고, 지왕(地王) 닭이 목을 꺾어 울고, 인왕(人王) 닭이 날개 치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먼동이 트여가자 조진국은 아침상을 차려놓고 김진국을 불렀다.

“여보, 대감님아! 어서 와서 조반식사 드십시오.”

“그렇시다.”

김진국 대감님과 조진국 부인님은 서둘러 조반을 마친 뒤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어쨌죽지에 밧줄을 제대로 매지 않고 짐을 지고 가니 얼마 걸지도 않아서 힘들어져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발도 콩꼬투리같이 부풀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서개남무광 절 곁을 지나던 부부는 절에 들어 잠시 쉬면서 긴 한숨을 내쉬며 쉬고 있었다. 그러자 서개남무광 절에 있던 스님이 나와 두 부부를 보고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기에 두 어른께서 이리 나란히 앉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대사님아, 말씀도 마십시오. 우리 부부 열다섯에 서로 천생의 배필을 맺어 더불어 지내길 서른이 다 되어도 슬하에 자식이 생기질 않아 동개남은중 절에서 온 대사에게 사주를 보니 우리가 중이 될 팔자를 타고나서 아기가 없다고 하지 않겠소. 그러고는 그 스님 하시는 말이 우리 절에 불공을 잘 드리면 맨 마지막 메밀농사에 아들자식을 하나 보겠다고 하여 온갖 정성을 드린 후 오늘 드디어 수록재를 드리러 가는 길이라오.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지쳐버렸도오. 마음은 급하고 갈 길은 먼데 발길은 안 떨어지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염치 불구 여기 앉아 잠시 쉬는 중이라오.”

“그런 사연이라면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있겠습니까? 괜히 발품 팔 것 없이 우리 절에 수록재를 드리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럼 이 절에서 수록재를 드려도 자식 얻을 덕을 볼 수 있습니까?”

“아이고! 있고말고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우리 절에 와서 수록재를 드리고 간 뒤에 모두 크게 덕을 보았습니다.”

“이것 참 잘 되었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절에서 수록재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국과 조진국은 스님의 말에 반색을 하며 곧장 서개남무광절에 들어가 수록재를 올리기 시작했다. 두 부부는 오로지 자식 얻을 생각만으로 동개남은중절 스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석 달 열흘 수록 공양을 정성스레 지내고 있었다.

그동안 동개남은중 절 육관대사는 김진국 부부가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었다.

‘참으로 이상타! 김진국, 조진국 부부가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동개남은중 절의 육관대사가 천리통<sup>30)</sup>을 들고 그간의 상황을 살펴보니 김진국과 조진국이 수록공양 드릴 제물을 모두 차리고는 대충 반 근을 떨어버리고 길을 나서더니 얼마 안 가 서개남무광 절에 들려 거기서 바로 수록재를 드리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잔뜩 골이 난 동개남은중 절 스님은 이를 딱딱 부딪치며 중얼거렸다.

“그것 참 괴썸쿠다! 우리 절에 왔으면 아들 자식을 점지하여 주었을 것인데. 에라! 딸자식이 나 하나 쥐 버리자.”

30) 천 리를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 이 망원경은 과거까지 살필 수 있다.

그때 김진국과 조진국은 서개남무광 절에서 정성스레 수록재를 지내며 마침내 석 달 열흘이 지났다. 그 날 밤, 김진국은 윗녘에 누워 조진국은 아랫녘에 누워 잠을 자는데 각자 신기한 꿈을 꾸었다. 날이 밝자마자 조진국은 반가운 마음에 김진국에게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부터 꺼냈다.

“여보, 대감님아! 이 절에도 자식 생길 덕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간밤에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지 뭐니까?”

“그래요. 어떤 꿈을 꾸었소?”

“백발노인이 나타나 담장나무를 안겨주는 꿈을 꾸었는데 붉은 나무를 품었으면 아들자식 낳을 꿈이겠거늘 흰 나무를 품었으니 딸자식을 낳을 꿈이 분명한 듯합니다.”

“그렇구려. 사실 나도 간밤에 꿈을 하나 꾸었소.”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술상을 받는 꿈을 꾸었는데 돼지고기 안주에 붉은 소주 먹는 것을 보았으면 아들자식이 분명할 터이나 지난밤 꿈에는 청감주(靑甘酒)에 호박전을 안주삼아 먹는 것이 보였으니 이 또한 딸아이를 낳을 꿈이 분명하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없는 처지에 아무런들 어떻겠소!”

김진국과 조진국은 마침내 서개남무광 절에서 자식을 점지 받은 뒤 수록재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조진국은 입덧이 나서 아무것도 통 먹지 못하게 되었다. 물만 마셔도 찬 냄새가 난다하고 진흙탕 냄새가 난다더니, 밥에서는 밥 냄새 나고 장에서는 장 냄새가 난다더니, 무엇을 갖다 줘도 입에 대지 못하더니 드디어 계집종을 불러 말하였다.

“늦인득이 정하님아. 파릇파릇 동쪽 바다 미역나물도 먹고 싶고, 갈기갈기 서쪽 바다 청각<sup>31)</sup>나물도 먹고 싶구나.”

늦인득이 정하님은 얼른 파릇파릇 미역나물과 갈기갈기 청각나물을 장만하여 조진국 앞에 내놓았다. 그렇지만 조진국 부인 한두 번 집어 먹고는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에구에구, 이것도 풀 냄새가 나서 못 먹겠구나. 동쪽 바다 큰 전복이 먹고 싶고 서쪽 바다 작은 전복이 먹고 싶구나.”

조진국이 말을 마치자마자 늦인득이 정하님은 동쪽 바다 큰 전복에 서쪽 바다 작은 전복에 대합까지 잡아다가 은장도로 네 귀통이 반듯반듯 잘라다가 은쟁반에 담아가니 조진국 부인은 한 번 두 번 집어 먹고는 금세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까다로운 입을 연다.

“에구에구, 짠물 냄새가 진동하여 이것도 못 먹겠구나. 시큼시큼한 정금나무<sup>32)</sup> 열매도 먹고 싶고, 맛 좋고 연한 다래도 먹고 싶고, 선득선득한 세금초<sup>33)</sup>도 먹고 싶구나.”

그 말 듣고 늦인득이 정하님은 신산만산 깊은 산, 숲속을 오르고 또 오르며 이 나무 열매 저 나무 열매를 찾아다니며 네 귀를 반듯하게 짜서 만든 금비단 주머니에 온갖 열매를 가득 따서 돌아왔다.

“상전님아, 상전님아! 이 나무 열매, 저 나무 열매 찾아다니면서 재수 좋게 온갖 열매들을 가득 따서 왔습니다. 어서어서 드십시오.”

그제야 조진국은 손을 뻗어 시큼시큼한 정금나무 열매를 한두 알 집어 먹더니 금세 손사래를

31) 청각과의 해초로 김장 때 김치의 고명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무쳐 먹기도 한다.

32) 철쭉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2~3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이다. 6~7월에 홍백색의 꽃이 총상(總狀)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로 9월에 까맣게 익으며 식용하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33) 팽이밥을 이르는 사투리로 잎을 따서 씹어보면 신맛이 많이 난다고 하여 시금초, 싱금초라고도 한다.

친다.

“이건 너무 시큼하여 이가 시려 못 먹겠다. 너나 먹어버려라.”

맛 좋고 연한 다래도 한두 알 집어 먹고는 금세 인상을 찌푸리며 말한다.

“이 다래는 나무 냄새가 너무 나서 못 먹겠구나. 너나 먹어버려라.”

선득선득한 세금초도 한두 알 먹어 보더니 내던진다.

“아휴, 이건 속이 시려서 도저히 못 먹겠다. 정하님아, 이것도 너나 먹어 버려라.”

조진국 부인은 이리 힘든 세월을 그럭저럭 지내는데 아버지 몸에서 석 달 지낼 검은 피를 얻어 놓고, 어머니 몸에서 일곱 달을 지낼 흰 피를 마련해 놓고 둘을 합치니 아홉 달이 넘고, 열 달이 되어 만삭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진통이 시작 되어 마침내 해산을 하고 보니 딸이 하나 나왔는데 앞 이마엔 해님이 뒤 이마엔 달님이 양 어깨엔 샨별이 오송송히 박힌 듯한 천하일색 딸이었다.

이 아기씨가 한두 살을 지나 세 살 되던 해에 조진국 부인이 말을 했다.

“대감님아, 이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 둘까요?”

“조진국 부인님아, 아기 이름을 자청하여 낳았으므로 자청비(自請妃) 석 자로 지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 운명적으로 만난 하늘나라 문도령

한 살이 되자 어머니 품에 안겨 온갖 어리광을 다 부리고, 두 살이 되자 아버지 무릎에 앉아 갖은 애교를 다 부리더니, 세 살 되어 이름 얻은 자청비 친할머니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네 살이 되자 친할아버지 무릎에 올라 온갖 어리광을 부리고, 다섯 살 때는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리광을 부리고, 여섯 살 때는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갖은 어리광을 부렸다. 이렇듯이 자청비는 갖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한 해 두 해 한 살 두 살 자라났다.

일곱 살 되던 해에 자청비가 대장간에 들어가 목수 연장을 마련하는데, 큰 톱 작은 톱 톱을 담고, 큰 도끼 작은 도끼 도끼를 담고, 곱자귀 귀자귀 자귀<sup>34)</sup>를 챙기고, 큰 끌, 작은 끌, 끌<sup>35)</sup>을 챙기고, 큰 대패 작은 대패 먹자 먹통 모두 모두 차려 들고 신산(神山) 숲으로 올라갔다. 자청비는 숲속을 다니면서 앞이 뽕죽, 날선 나무 베어다가 네 귀에 상투기둥<sup>36)</sup>을 세워 청기왕을 엮고 삼층 계단, 육층 계단을 마련하여 다락방을 지어 놓고 놀았다.

하루는 늦인득이 정하님이 후천당 연하못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와 참실밭줄을 네 귀에 걸어 놓고 깨끗하게 빨아낸 빨래감을 탁탁 털어 가지런히 널고 있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자청비가 늦인득이 정하님에게 말을 걸었다.

“늦인득이 정하님아! 너는 어떻게 하였기에 손발이 그렇게도 곱디고운 것이냐?”

다락방을 짓고 나니 손발이 곱질 않아 자청비는 정하님이 부러워서 물었다.

“애기씨, 애기씨! 김진국 님 입던 옷, 애기씨 입던 옷, 머슴들이 입던 옷을 모두 모아 뒷천당

34) 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의 하나로 곱자귀는 곱은 자귀, 귀자귀는 날이 있는 쪽이 넓적한 자귀를 이르는 제주 방언.

35)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걸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

36) 위를 상투처럼 내민 장부나 촉을 만들어 도리에 뚫은 구멍에 끼우게 된 기둥. 보를 꿰뚫고 도리에 끼운다.

연하못가에 나아가서 빨랫돌에 올려두고 빨래를 하고 오니 손발이 고와졌답니다.”

“애야, 그러면 내가 가서 빨래해도 손발이 고와지겠느냐?”

“애기씨, 애기씨! 우리 같은 종년도 맑은 물에 빨래를 하고 나면 손발이 고와지는데 상전님은 더욱 고와지겠지요.”

“그렇다면 나도 얼른 빨래하러 가야겠다.”

자청비는 늦인득이 정하님 말을 듣자마자 김진국 입던 옷에, 조진국 입던 옷에,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도 벗어 놓고, 집안 여기저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부랴부랴 빨랫감을 모으고 모은다.

“종들도 모두 옷을 벗어 놓아라. 늦인득이 정하님아, 너도 얼른 옷을 벗어라.”

마침내 아홉 말이 들어가는 커다란 바구니에 굵은 말총밭줄을 둘러 어깨에 짊어지고 동백나무 빨랫방망이를 끼고서는 뒷천당 연하못에 올라가서 빨랫돌 앞에 앉아 빨래를 시작했다. 자청비는 손발이 고와질 생각에 부지런히 빨래를 하는데 하늘 옥황에서 문국성 문 도령이 내려와 서울로 글공부 재주공부 떠나던 중에 연하못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문 도령은 우연히 한 여인이 연하못가에 앉아 빨래하는 것을 보았다. 슬쩍 본 인물이 천하일색이라 마음은 설레지만 남자의 기백이라면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 애기씨 참 곱기도 곱구나! 그냥 지나치기 아쉬우니 물이나 조금 달라 하여 얻어먹고 가야겠다.’

속으로 생각하며 자청비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얻을 수 있겠소?”

놀라지도 않고 자청비는 바가지를 두세 번 씻어 물을 가득 뜬 후에 갈댓잎 몇 잎 띄워 놓고 물을 대접한다.

물바가지를 받아든 문 도령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거참, 이 애기씨, 얼굴이 곱기는 곱다마는 마음속은 그렇지 못하구나.”

“아니, 어찌하여 제 얼굴과 속마음이 같질 않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물을 대접할 일이라면 물에 티끌이 있을 때는 마땅히 건져 내고 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하여 애기씨는 맑은 물에 도리어 티끌을 올려놓고 주는 것이오?”

“도령님아, 도령님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도령님아! 먼 길을 가느라 목이 말라 물이 그리워 속이 바짝바짝 타 보이는데 이런 때에 물을 그냥 드리면 목을 열어 허겁지겁 마실 테니 물마시다 물병이 날 것이고, 손에는 손병이 날 것이고 발에는 발병이 날 것입니다. 모든 병에는 약이 있고, 온갖 체한 데에도 약이 있으나 물로 체한 것에는 약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속이 탈 때는 이렇게 나뭇잎을 띄어두고, 물을 마시면서 잇몸으로 조심조심 쪽쪽 빨아 먹으면 물을 마셔도 물로 체할 일이 없을 것이고, 손발에도 병이 없는 것입니다.”

문국성 문 도령은 마시기 싫은 물을 목이 말라 반가운 듯 받아 자청비가 일러준 대로 잇몸으로 조심조심 쪽쪽 세 모금을 빨아먹고는 바가지를 내려두고 나서서 다시 길을 떠나려 하니 자청비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 선비입니까?”

“나는 하늘 옥황에 있는 문선왕의 문국성 문 도령인데 서울로 글공부 재주공부 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청비가 그 말을 듣고 놀라는 듯하더니 바로 곧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제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서울로 글공부 가려고 삼 년 내내 버르고 있어도 함께 길을 떠날 벗이 없어 아직도 못가고 있으니, 제가 얼

른 집에 가서 오라비를 보내거든 서로 함께 벼를 삼아 글공부를 마치고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지요.”

자청비는 말을 마치자마자 빨던 빨래를 거두어 짚어지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방에 달려 들어가 다짜고짜 여쭙었다.

“어머니, 어머니! 여자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못하겠느냐! 하고 싶거든 하려무나.”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이번에는 부리나케 아버지 방으로 향하였다.

“아버지, 아버지! 여자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못하겠느냐! 하고 싶거든 해라.”

어머니 아버지 승낙을 얻은 자청비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입고 있던 여자 옷을 후다닥 벗어두고, 남자 옷을 꺼내어 갈아입고는 비단 같이 곱고 긴 머리를 풀어 동백기름을 발라 땀기로서 돌러 올려 맨 뒤, 발끝이 뽀족하게 솟은 코쟁이버선 신고, 검은 꽃당혜<sup>37)</sup> 찾아 놓고서 일천장 벼룩들에 삼천 장 먹을 아름가득, 책도 아름가득, 붓도 잔뜩 쥐어 호주머니 가득 담아가지고는 서둘러 후천당 연하못으로 향하였다.

과연 연하못가에 문 도령이 여전히 앉아 있었다. 자청비는 목소리를 걸걸하게 가다듬은 뒤 시치미를 툭 떼고 입을 열었다.

“나는 김 도령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누이가 빨래하러 갔다가 서울로 글공부 재주 공부 가는 도령님이 있으니 나에게 벼 삼아 같이 가서 공부하고 오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왔는데 과연 도령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군요. 아까 우리 누이가 본 도령이 맞으신지요?”

혼자 멀뚱히 앉아 있던 문 도령은 곱상한 도령이 나타나 자신을 찾자, 반색하며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사람ियो. 자네 얼굴도 매우 고운 것이 아까 금방 빨래하러 온 그 애기씨랑 얼굴이 꼭 같이 생겼구려.”

“도령님아, 도령님아!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도령님이로구나. 한 배에서 태어난 돼지도 생김새가 같고, 동백나무 가지 끊어 마디를 잘라 쪼개 보아도 가지런한 것이 꼭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한 어머니,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 닳겠습니까?”

“그 말 듣고 보니 그럴 듯하오.”

김 도령으로 변장한 자청비는 이렇게 하여 문 도령과 금세 벗이 되어 함께 서울로 글공부 재주공부를 하러 길을 나섰다. 몇 날 며칠을 걸려 서울에 도착한 자청비와 문 도령은 일천서당을 찾아가 삼 년을 계약하고 한 선생 밑으로 나란히 입학하게 되었다.

선생은 함께 들어온 자청비와 문 도령을 불러 말하였다.

“김 도령과 문 도령은 이제부터 한 방에서 글도 함께 배우고, 잠도 같이 자고, 밥도 한 솥에 먹고 지내도록 하여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함께 지내게 된 자청비와 문 도령은 한솥밥을 먹고, 한 방에서 잠을 자고, 똑같이 글공부를 했다. 그럴수록 자청비의 마음 한편은 불편해졌다. 이렇게 계속 가까이하다가는 자신이 여자라는 것이 들통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문 도령과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자청비가 피를 내어 말을 꺼냈다.

37) 여러 가지 빛깔을 넣어 곱게 만든 어린아이의 마른신. ‘당혜’는 예전에 사용하던 울이 깊고 앞 코가 작은 가죽신. 흔히 앞 코와 뒤꿈치 부분에 꼬부라진 눈을 붙이고 그 위에 덩굴무늬를 새긴 것으로, 남녀가 다 신었다.

“이보게, 문 도령아! 우리가 부모님을 하직하고 먼 길 떠나 공부하러 이곳까지 왔는데 한 글자라도 더 명심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렇지.”

그러자 자청비는 얼른 가서 물동이 한가득 물을 길어 물동이 언저리에 젓가락을 걸쳐 놓고, 이불 사이에 가져다 놓고는 말한다.

“지금부터 이것을 건드려서 젓가락이 떨어지면 글을 써도 영망이 될 것이니 절대 이 물동이를 넘어오면 안 되네.”

문 도령은 성품이 원체 고지식한지라 그 말을 듣고 난 뒤, 옆구리를 세워 한 쪽으로 돌아 누어서는 혹시나 물동이에 몸이 닿을까 이리저도 못하고 저리저도 못한 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문 도령의 다리는 짜릿짜릿 저리고, 웅크려 있는 허리도 옥신옥신 쭈셨지만 여전히 돌아눕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반면 한결 속이 편해진 자청비는 이리 돌아누워 썩근썩근, 저리 돌아누워 씨근씨근 문 도령 애타는 속은 모른 채 달게도 잠을 잤다.

날이 밝자 문 도령과 자청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전에 선생 앞으로 글을 지으러 갔다. 그러나 문 도령은 글을 더 잘 써보겠다고 조심조심 물동이를 파하느라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정신이 휘황하여 영망으로 글을 썼다. 밤새 실컷 잠을 잤던 꽤 많은 자청비는 좋은 글을 술술 쓰니 듣는 것이 칭찬이었다.

이력저력 두세 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 자청비를 지켜보던 선생은 의심쩍은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흠, 김 도령은 이리 보아도 여자로 보이고, 저리 보아도 여자로 보인단 말이야. 앓는 모습을 보아도 여자 같고, 걸음걸이를 보아도 여자 같고, 목소리를 들어도 여자 같으니…….”

하루는 선생이 자청비를 불러놓고 말을 꺼냈다.

“김 도령아! 너는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여자로 보이는구나. 아무리 살펴봐도 여자로 보이는구나.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젓가슴이 불룩하단 말이나?”

“선생님, 선생님! 우리 부모님 역시 이러하옵니다.”

“그렇다면 이리와 보아라. 내가 한 번 만져서 확인해 봐야겠다. 남자라면 가슴이 딱딱할 것이오. 여자라면 가슴이 부드러울 것이니라.”

그러자 김 도령은 사지에 잔뜩 힘을 주고 다가갔다. 미심쩍어 하던 선생은 김 도령의 가슴팍을 만지더니 가슴이 남자처럼 딱딱하자 고개를 가우똥하며 입을 열었다.

“남자가 분명하구나.”

그래도 선생의 마음엔 의심쩍은 생각이 내내 떠나지를 않았다.

어느 날 또 다시 의심 많은 선생은 김 도령과 문 도령을 모두 불러 놓고 피를 내어 시합을 시키기로 하였다.

“김 도령과 문 도령은 위아래 옷을 모두 벗어두고 달리기 시합을 해보아라.”

그러자 김 도령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애써 감추고는 태연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 법은 이러합니까? 옷을 모두 벗고 두고 달리를 합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아버지 몸에서 뼈를 얻고 어머니 몸에서 살을 빌어 어머니 배 속에서 아홉 달 열 달 만삭 차고 열두 구멍 팔대문을 열어 밝은 세상 태어날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오면 어머니는 고운 귀저기를 마련하고, 난지 삼일 되어 목욕시킨 뒤에 붓디창<sup>38)</sup> 지어 입히고, 두세 살이 되면 노봉옷을 지어 입히고, 일곱이 되면 위아래

38) 생후 삼 일 되어 입히는 삼베 훌두루마기.

옷을 모두 지어 입히고 지냅니다. 그러다 서울 올라와 스승님을 만나 글공부 재주공부뿐 아니라 바른 행실을 배우려고 했는데 벗고 지내던 옷을 입으라면 몰라도 입고 지내던 옷을 벗고 뛰라고 하니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도령이 이렇게 불쑥 말하니 머쓱해진 선생이 땅을 치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옷일량은 벗지 말고 침베바지에 적삼<sup>39)</sup>을 지어 입고 달리기 경주를 해 보아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마친 김 도령은 얼른 뒷집에 사는 청태국 마귀할망네 청대나무 밭에 들어가 굵은 칼로 왕대를 베어 놓쳤다. 왕대 한 마디를 잘라 참실 줄로 꿰어두고 청대나무 밭을 여기저기 살폈다. 주먹만큼 큰 소라 껍데기 두 개가 눈에 띄자 꼭지에다 구멍 뚫고 왕대나무 마디와 함께 참실 밧줄로 꿰어서 사타구니에 단단히 매달았다. 일을 마친 김 도령은 침베바지를 입고 적삼을 걸치고 달리기 시합을 하러 나왔다.

시합을 시작하려고 하자 김 도령이 미리 선수를 치며 말하였다.

“달리기를 할라치면 여자는 종아리가 무거워서 남자보다 뒤처지고 남자는 종아리가 가벼워서 여자를 앞지르기 마련이란다.”

그러나 막상 달리기 시합을 하고 보니 김 도령이 앞서고 문 도령이 뒤처졌다. 그러자 여전히 미심쩍어하던 선생이 다시 말하였다.

“이번에는 김 도령과 문 도령이 씨름이나 한 판 해보아라.”

이번에는 김 도령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확실히 알아보려고 선생은 일부러 씨름을 시켜보았는데, 겨루기를 할 때마다 문 도령이 넘어졌다. ‘아무리 보아도 김 도령은 여자로 보이는데 이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선생은 또 다른 겨루기를 시켰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 제쳐두고 오줌 싸기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아라.”

“그럼 해보겠습니다.”

김 도령은 먼저 대답하고 나서 재빨리 대나무 붓 자루를 하문<sup>40)</sup>에 꼭 눌러 대고 힘을 주어 오줌을 갈기자 오줌 줄기가 열두 집채를 가볍게 넘어갔다. 뒤따라 문 도령도 힘주어 오줌을 갈겼는데 문 도령의 오줌 줄기는 여덟 집채만을 겨우 넘어갔다.

마침내 선생은 김 도령에 대한 의심을 풀고 김 도령에게 상품까지 주니, 김 도령은 기뻐하며 상품을 받고 문 도령은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앉아 있었다.

## 문도령과 몰래 맺은 하룻밤 인연

그때 하늘 옥황에서는 문 도령의 아버지 문선왕이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다.

**문국성 문 도령아! 서수왕의 집안과 우리 집안이 사돈을 맺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어서 돌아와 서수왕의 셋째 딸에게 장가를 들도록 하여라.**

글쓰기를 마친 문선왕은 편지를 고이접어 새 날개에 끼워 넣어 문 도령이 있는 곳으로 내려 보내니 문 도령을 찾은 새는 무릎에 편지를 떨어뜨리고는 이내 높이 날아가 버렸다.

별안간 편지가 무릎에 떨어지자 놀란 문 도령은 얼른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서수왕

39) 윗도리에 입는 홑옷.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40) 여자의 성기.

막내딸에게 장가가라.’는 하늘 옥황 아버지의 편지였다.

문 도령은 편지를 들고 서둘러 선생님께 나아가 소식을 전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하늘 옥황 문선왕 아버지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놀란 선생이 편지를 열린 펼쳐 읽어 보니 문 도령을 장가보낸다는 내용이였다.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 도령에게 말하였다.

“좋은 일이다. 너는 어서 하늘 옥황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여라.”

선생의 허락을 받은 문 도령은 짐을 꾸려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문 도령의 사연을 알게 된 김 도령은 서둘러 제 맘대로 그럴듯한 편지 한 장을 다듬어 허둥지둥 선생님 앞으로 서두르며 들어간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도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정말이나? 어디 한번 읽어보자.”

김 도령이 건넨 편지를 선생이 받아서 읽어보니 눈을 찌르는 구절이 있었다.

**김 도령아! 김 도령아! 어서 어서 돌아와서 너의 얼굴 밝은 얼굴 보자꾸나. 네가 집을 떠난 후로 너희 어미 중병 들어 오늘내일 하신다. 어서 어서 돌아와서 네 어미 좀 보아라.**

편지를 다 읽은 선생은 상황이 가볍지 않음을 알고는 김 도령에게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선생의 말을 받은 김 도령은 곧바로 하직 인사를 드리고는 차비를 차렸다. 혹시라도 문 도령을 놓칠까 재빨리 짐을 꾸려 집 밖을 나서는데 웬일인지 문 도령은 그제야 큰 대문 앞을 겨우 지나고 있었다.

“문국성 문 도령아! 거기 있게. 나랑 같이 떠나세.”

반가운 마음에 큰소리로 문 도령을 부르며 뛰어가니 문 도령이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 말하였다.

“김 도령아, 자네는 어찌하여 떠나는 것인가?”

“우리 아버지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선생님께서 편지를 받아 보시더니 나에게도 서둘러 가라고 하였다네. 일이 참 공교롭네. 같이 공부하러 왔다가 같이 떠나다니.”

김 도령과 문 도령은 나란히 손을 잡고 내려오다 처음 만났던 후천당 연하못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김 도령이 열린 말을 꺼냈다.

“문국성 문 도령아! 우리가 삼 년 내내 서울에서 그늘에 앉아 글공부만 했으니 몸에 늘어붙은 때가 없겠는가? 이리 와 보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물에서 목욕이나 하고 가세.”

“그럼 그렇게 하세.”

그러자 김 도령이 다시 말을 꺼냈다.

“문국성 문 도령아! 공부를 해도 너는 나보다 뒤떨어지고, 달리기를 해도 나보다 뒤처지고, 씨름을 해도 나를 못 이기고, 오줌 싸기를 하여도 나보다 약하였으니, 자네는 저기 끝에 가서 목욕을 하게. 나는 윗물에서 목욕하겠네.”

김 도령의 말을 들은 문 도령은 달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왜 그렇게 하는가? 같이 앉아 같은 물에서 서로 도와 목욕하며 등의 때도 밀어주면 좋지 않은가?”

“나는 싫네. 그렇게는 아니할 거네.”

“그래? 그렇다면 나도 싫네.”

결국 문 도령은 아랫물로 가고 김 도령은 윗물로 가서 제각각 목욕을 하기로 했다. 아랫물에 몸을 담근 문 도령은 오랜만에 흠뻑 젖어 양 손발의 때를 밀어 몸을 씻느라 정신이 없는데 윗물로 간 김 도령은 윗물가에 말없이 앉아 몸에 물을 적시는 듯 마는 듯하였다. 그리고는 무엇이 답답한지 가슴을 탕탕 치더니 배나무 잎 하나를 따와서 그 위에 몇 자 글을 적기 시작했다.

**문국성 문 도령아! 글공부 재주공부 함께 하며 한 술으로 밥을 먹고 한 방에서 잠을 자며 삼 년 내내 같이 있었는데 남녀구별법도 모르더냐?**

일사귀 가득 글귀를 적은 김 도령은 흐르는 물에 일사귀 동실 띄워두고는 급히 떠날 채비를 하였다. 채비를 차린 김 도령은 책 보따리를 둘러메고 길을 나서며 소리쳤다.

“문국성 문 도령아! 어서 가세. 나는 먼저 가겠네.”

“김 도령아! 어찌 먼저 가나? 기다리게나.”

“그럼 빨리 오게나.”

김 도령은 뭔가 바쁜 듯이 문 도령이 있는 아랫물 옆으로 휙 지나가버렸다. 다급해진 문 도령은 허둥지둥 몸을 씻고 일어서려는데 위쪽에서 글귀가 가득 적힌 나뭇잎이 동실동실 떠내려 오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하며 얼른 건져 보니 김 도령이 글을 지어 띄운 것이었다. 그러나 문 도령은 글을 읽고도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문 도령은 서둘러 김 도령을 쫓아가려고 나뭇잎을 한 손에 들고 풍덩풍덩 물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러나 급하게 옷을 입으려하자 맘대로 될 리가 없다. 한쪽 바짓가랑이에 양쪽 다리가 들어가고 저고리는 뒤집어진다. 다리를 급히 빼내어 두 가랑이에 집어넣고 허리띠 칠 짚이 없어 바지허리는 굽이쳐 잡고, 대님 칠 틈이 없어 바짓가랑이는 확 걸어 올리고, 대님과 허리띠는 대충 손에 거머쥔 채 허겁지겁 달려가며 소리를 지른다.

“김 도령아! 기다리게. 같이 가세.”

“어서 오게나. 뭘 그리 허겁지겁하고 있는가?”

“물어볼 말이 있네. 나뭇잎에 적어 놓은 글귀는 무슨 뜻인가?”

“글귀대로라네. 자네는 아직도 모르겠는가?”

문 도령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김 도령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도령의 옷을 입은 김 도령의 얼굴에서 3년 전 연하못가에서 물바가지 건네주던 얼굴 고운 아가씨가 나타났다. 문 도령은 제 가슴을 팡팡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 그동안 내가 왜 몰라봤을까!”

문 도령은 연신 좋아하며 가슴을 치고, 스스로 정체를 밝힌 씩씩하던 김 도령은 어디 가고 두 볼이 발그레한 자청비만 서 있었다.

가슴이 들뜬 문 도령, 속이 후련해진 자청비가 서울서 공부하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동안 어느덧 자청비네 집, 김진국 대감이 사는 집 앞 노뚝돌<sup>41)</sup>에 이르렀다. 그때 자청비가 문 도령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다.

“이제는 내 정체를 그대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았으니 다른 길이 없네요. 여기 노뚝돌 곁에 잠시만 앉아 있으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 여자 옷 한 벌 지어 올 테니 그대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랑 같이 집으로 들어가요.”

41)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놓은 큰 돌(下馬石).

문 도령이 그 말 들으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그렇게 하지요.”

얼른 대답을 마친 문 도령은 노뚝돌 위에 앉아 기다린다. 그 사이 제 방으로 달려간 자청비는 그동안 입고 있던 남자 옷을 얼른 벗고 원래 입던 여자 옷을 찾아 입고는 반갑게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어머니! 여자인 제가 서울에서 글공부 재주공부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자청비야!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동안 고생했다. 공부도 할 만큼 했으니 집문서도 받고, 발문서도 받고, 종문서도 받아라. 이제 네가 우리 집의 상속자가 아니냐?”

이번에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드린다.

“아버지, 아버지! 여자로 태어난 저도 서울까지 올라가서 글공부 재주공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청비야, 장하구나! 자, 여기 집문서도 받고, 발문서도 받고, 종문서도 받아라. 네가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버지께 인사를 모두 마친 자청비는 다시 어머니 방에 들어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는 문 도령 이야기를 꺼내었다.

“어머니, 어머니, 고운 우리 어머니! 하늘 옥황에 무남독녀가 이번에 저와 같이 서울에서 삼 년 내내 함께 지내며 공부하고 돌아오다 발에는 발병이 나고 손에는 손병이 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저와 같이 우리 집에 머물러도 될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

“어머니, 어머니! 여자와 남자가 어찌 같이 지내며 글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여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는 열다섯이 넘었느냐, 아직 넘지 않았느냐?”

“열다섯은 아직 넘지 않았어요. 저와 동갑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네 방으로 데려다가 오늘 밤은 자고 가라 그렇게 말하여라.”

어머니의 승낙을 받은 자청비는 몹시 기뻐하며 여자 옷을 들고 급히 문 밖으로 나갔다. 문 밖 노뚝돌 위에 문 도령이 아직 앉아 있었다.

자청비는 문 도령에게 여자 옷을 입혀주며 단단히 일러준다.

“우리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열다섯이 넘었는지 아닌지 아버지가 묻거든 아직 넘지 않았다고 대답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문 도령은 자청비가 일러준 말을 생각하며 집안으로 들어가 자청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

“저는 자청비와 함께 서울에서 글공부 재주공부를 한 친구입니다.”

“나이는 열다섯을 넘었는가, 한 넘었는가?”

“열다섯 안쪽입니다.”

“그렇다면 자청비 방에 가서 머물게.”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문 도령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자청비는 문 도령 손목을 꼭 잡고 말하였다.

“문 도령야, 문 도령야! 우리 함께 식사 상을 받았으니 오늘 밤은 놀음놀이나 하며 지새워 봅시다.”

식사 상을 앞에 두고 자청비가 먼저 앉아서 서울 사람은 술 병 한 번 고아 자소주가 되고,

두 번 고아 불소주<sup>42</sup>)가 되고, 세 번 고아 환화주<sup>43</sup>)가 된다. 농잔<sup>44</sup>)에 응노대<sup>45</sup>) 두고, 칠첩반상<sup>46</sup>) 가득히 돼지고기 안주 마련하여 들어가니 자청비는 문 도령 손목을 부여잡고 말하였다.

“문 도령아, 문 도령아! 첫 잔은 인사 차리는 술이요, 둘째 잔은 대접하는 술이요, 셋째 잔은 친구 사귀는 술이라 합니다.”

한 잔 한 잔 술 석 잔을 모두 나누어 마신 뒤 자청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와 내가 오늘 밤 천생배필을 맺는 것이 어떠하오?”

“그거, 바라던 일이오. 같이 누워 봅시다.”

술 석 잔을 나누어 먹고 같이 누워 보니, 둘 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날이 밝는 줄도 모르고 깊이 잠이 들었다.

문 도령이 먼저 깨어 밖을 보니 먼동이 흰히 밝아오고 있었다. 문 도령은 서둘러 자청비를 깨웠다.

“자청비야, 자청비야! 나는 지금 옥황으로 올라가야 하겠구나.”

그 말 듣고 자청비는 다짐하듯 말을 한다.

“문국성 문 도령아! 지금 꼭 가야 하면 신표(信標)<sup>47</sup>)나 두고 떠나시오.”

그러자 문 도령은 복숭아씨 두 알을 주머니에서 내어주며 말하였다.

“이 복숭아씨를 그대 집 장독 뒤에 심어, 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열려 잘 익으면 그것을 따 먹고 춘삼월 좋은 날에 밝은 얼굴, 홍안(紅顏)<sup>48</sup>)을 우리 서로 마주합시다.”

문 도령의 말을 들은 자청비가 이번에는 문 도령에게 정자나무 씨 두 알을 주면서 말하였다.

“문국성 문 도령아! 이 정자나무 씨를 심어 나무가 커서 꽃이 피면 나를 보듯이 보아라.”

자청비와 문 도령은 마침내 이별을 하였다. 문 도령은 훌쩍 말을 타고 하늘옥황을 향해 날아 올라가버렸다.

자청비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지만 문 도령이 두고 간 복숭아씨를 정성껏 심었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리고, 맛있게 복숭아를 몇 번이나 새로 따먹어도 문 도령은 아무 연락이 없었다. 편지 한 장 없이 고운 얼굴 한 번, 젊은 얼굴 한 번 마주 보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 외로운 자청비와 하인 정수남의 싸움

그러던 어느 날, 심심하고 적적하여 이웃집에 놀러 간 자청비는 그 집 마당 한 편에 마른나무 싹 동<sup>49</sup>), 젖은 나무 싹 동 층층이 쌓아 놓은 것을 보았다. 자청비는 제 집 마당은 텅텅 빈 것이 떠올라 얼른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다.

42) 도수가 불처럼 매우 높은 소주.

43) 불소주보다 더 독한 술로 보임.

44) 술잔의 일종.

45) 술잔대, 술잔받침.

46) 밥, 국, 김치, 장류, 조치 이외에 숙채, 생채, 구이, 조림, 전유어, 마른반찬, 회 따위의 반찬을 담은 접시가 일곱인 밥상. 또는 그런 밥상에 쓰는 그릇 한 벌.

47) 뒷날에 보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물건.

48)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

49) 물건을 묶어 세는 단위. 굵게 묶어서 한 덩이로 만든 묶음. 한 동은 먹 열 장, 붓 열 자루, 생강 열 접, 피륙 50필, 백지 100권, 꽃감 100접, 벚짚 100단, 조기 1,000마리, 비웃 2,000마리 등을 이른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이웃집에 놀러가 보니 우리 집 종놈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염통 같은 보리밥에 삼나무 키울 만큼 거름 진 된장을 하루에 몇 섬씩 먹으면서도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부아가 치민 자청비는 말을 마치자마자 이번에는 하인 정수남이를 찾아 소리쳤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이놈저놈 괘씸한 놈아! 다른 집에 가보니 마른 나무도 쉰 동, 젖은 나무도 쉰 동 주저리주저리 쌓여 있더라.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화가 난 자청비를 보고 얼른 눈치를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다.

‘문국성 문 도령이 떠난 뒤로 소식이 없어 답답하고 화가 난 걸 풀 데가 없으니 공연히 나에게 시비를 거는구나.’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태연히 자청비에게 말하였다.

“상전님, 상전님, 그러면 제게도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 황구도끼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나무를 한가득 해오겠습니다.”

“늦인득이 정하남아. 정수남이에게도 구제기 잠방이<sup>50)</sup> 적삼을 만들어 입히고, 황구도끼 챙겨 주고,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도 마련해 주어라.”

늦인득이 정하남은 자청비가 시킨 대로 구제기 잠방에 적삼을 지어 정이 없는 정수남이에게 입히고, 황구도끼는 물론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를 마련하여 두었다. 그리고는 아침밥을 후닥후닥 지어 놓고, 점심 도시락까지 모두 차려 놓았다.

바가지같이 큰 입에 밥을 똑딱 털어 넣은 정수남이 의기양양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부터 서천꽃밭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제가 하루만 나무를 하면 열여덟 바리<sup>51)</sup>, 이틀을 하면 서른여섯 바리는 거뜨할 것이니 그리하여 오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오너라.”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소 아홉, 말 아홉을 몰고 서천꽃밭으로 느릿느릿 나무하러 가다 보니 길 가에 커다란 팽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정수남이 가던 길을 문득 멈추고, 동쪽으로 뻗은 가지에는 소 아홉 마리를 매어 두고, 서쪽으로 뻗은 가지에는 말 아홉을 매어 두고 몸을 쪽 잔뜩 늘어 하품에 기지개까지 시원하게 하더니 지나온 길 돌아보며 느긋하게 주저앉는다. 그러다 문득 발아래를 가만 보니 자그맣고 길쭉한 돌이 있어 베고 눕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에라! 이거나 베고 누워서 잠이나 좀 자야겠구나.’

정수남이는 갈 길을 깜빡 잊은 듯 태평하게 드러눕더니 금세 코를 골며 깊이 잠들고 말았다. 동쪽으로 돌아누워서 한 잠, 서쪽으로 돌아누워서 한 잠, 남쪽으로 돌아누워서 한 잠, 북쪽으로 돌아누워서 한 잠 이리저리 모양새를 바꿔가며 한참을 자던 정수남이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다.

“아아함! 벌써 날이 어두워지네.”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 정이 없는 정수남이 느릿느릿 정신 차려 머리를 긁적이며 주위를 살핀다. 아뿔싸, 소도 말도 다 쓰러져 있다. 커다란 팽나무에 단단히 묶었던 소 아홉, 말 아홉이 목이 말라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물 한 모금이 그리워서 나무 아래 모두 겹쳐 뒤엎긴 채 죽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죽어 있는 짐승을 보자 배가 먼저 고파진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다섯 치는 족히 되는 시커먼 손톱으로 소의 가죽 말의 가죽 하나씩 벗겨내어 쌓아 두고는 불을 때기 시작한다. 썩은 나무 베어 쌓고 청미래 덩굴로 불을 붙여 이리저리 후후 부니 불이 활활 타오른다.

50)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

51)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불이 활활 타오르자 소의 다리 하나 꺾어 불 속에 집어넣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앞뒤로 구우면서 잘 익었는지 본다고 한 점, 설익은 것 아닌가 본다고 또 한 점, 한 점씩 떼어먹고, 남은 다리 끊어오고, 몸통이도 떼어오고 야금야금 떼어다가 구워먹다 마침내 소 아홉, 말 아홉을 모두 먹고 남은 것은 머리와 발뿐이었다.

남김없이 먹고 나자 걱정이 조금 생긴 정이 없는 정수남은 가족이라도 가져가자 걸어다 짚어지고 별을 피할 궁리를 해본다.

‘자청비 애기씨는 고운 것을 좋아하니 물오리가 높고 있는 연못에 가 보자. 물오리들이 나와서 헤엄치고 있거든 한 마리 잡아다가 애기씨 눈에 들게 하면 이번 일도 용서받고 저녁밥도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정이 없는 정수남은 느긋하게 발을 옮겨 오리 못으로 가본다. 오리 못에 가보니 과연 오리가 쌍으로 푸덕푸덕 헤엄을 치고 있었다. 정수남은 지고 있던 소 아홉 가족, 말 아홉 가족을 살며시 내려놓고는 황구도끼<sup>52)</sup>를 들어 물오리 있는 곳으로 휙 하고 던졌다. 그러나 휙 소리에 물오리는 깜짝 놀라 푸드덕 날아가 버리고, 황구도끼는 침범 소리를 내며 가라앉아 버렸다.

정수남이는 할 수 없이 입고 있던 구제기 잠방이, 적삼을 몽땅 벗어두고 돌 몇 개를 가져다 대충 놓아두고는 황구도끼 찾으려고 물오리 연못으로 침범침범 들어갔다. 여기적거리며 동쪽으로 성큼, 서쪽으로 성큼, 남쪽으로 성큼, 북쪽으로 성큼, 연못 속을 여기저기 휘적거리려 보아도 황구도끼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정수남이 할 수 없이 연못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 날랜 도둑놈이 다녀갔는지 소 아홉, 말 아홉 가족은 물론 벗어 놓은 구제기 잠방이에 적삼까지 모두 짚어지고 가버린 뒤였다.

‘어이구! 이제는 어찌해야 하나?’

하릴없이 난감해진 정이 없는 정수남이 동쪽을 쳐다보니 황칠나뭇잎이 반들반들, 서쪽으로 돌려보니 떡갈나뭇잎이 반지르르, 남쪽을 쳐다보니 침대땡이 덩굴이 번들번들하였다. 정수남이는 얼른 황칠나뭇잎을 끊고, 침대땡이 덩굴을 걸어다가 자신의 사타구니에 달아두고는 집으로 향하였다.

정이 없는 정수남이 집 근처에 이르러 장독대 뒤를 보니 삼 년 묵은 간장독의 덮개가 꼭꼭 씌워져 있었다. 호기심 많은 정수남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독 가까이 다가가 도둑놈이라도 들어 있는가 싶어서 돌맹이를 주어서 던져보았다. 그러자 툭 소리가 나더니 삼 년 묵은 간장독과 오 년 묵은 간장독이 와장 창창 깨어지고 말았다.

‘아이고나! 이제 어찌하나? 큰일이로구나!’

정이 없는 정수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덮개를 주어서 머리에 쓰고, 장독대에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즈음 안채에 있던 자청비는 저녁때가 되자 늦인득이 정하님을 불러 일러둔다.

“저녁밥 지었다가 정수남이 나무하여 돌아오거든 먹으라주게.”

늦인득이 정하님은 자청비 분부대로 부지런히 저녁밥을 지어놓은 뒤에 국 끓일 간장을 뜨러 장독대로 갔다. 그런데 장독 가까이 다가가자 덮개를 씌운 장독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다. 늦인득이 정하님이 깜짝 놀라 숨죽이고 가만히 살펴보니 쭈그리고 앉은 것이 정수남이 아닌가. 화들짝 더욱 놀란 늦인득이 정하님이 허둥지둥 달려와 자청비에게 외친다.

“상전님아, 상전님아! 장독대에 갔더니 삼 년 묵은 간장독과 오 년 묵은 간장독이 저절로 걷고 있지 뭐니까. 아이고! 도둑이 들었구나. 깜짝 놀라 살펴보니, 아, 글썸 정이 없는 정수남이가 앉아 있지 뭐니까.”

52) 황구는 환부(丸釜), 곧 날이 둥근 도끼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나? 어서 정수남이를 이리로 잡아 들여라.”

늦인득이 정하님은 부리나케 장독대로 달려가 숨어 있는 정수남을 잡아다 자청비 앞으로 데려왔다. 나뭇짐도 없이, 데리고 간 소와 말도 없이, 황구도끼도 없이, 지어 입힌 옷까지 몽땅 잃어버린 채 돌아온 정수남이를 보자 자청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놈아, 저놈아. 소 아홉은 도대체 어디에 버렸으며, 말 아홉은 어디에 두고 온 것이냐? 또 새로 만들어 입혀 준 구제기 잠방이 적삼은 어디에 벗어두고, 황구도끼는 어디에 버렸느냐? 고양 놈, 내 가만두지 않겠다.”

자청비는 큰 소리로 종들에게 소리친다.

“앞밭에는 장검 걸고, 뒷밭에는 형틀을 걸어라. 깃발을 세우고 목 자르는 망나니 자강놈도 불러라.”

화가 오른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이려고 소리 높여 하인을 부르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때 정이 없는 정수남이 열린 입을 열었다.

“상전님, 상전님! 죽일 놈도 조반식사는 먹여주고 죽인다는데 조반식사는 못해도 말이나 한 마디 하고 죽겠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게냐?”

“예, 제가 아무리 상놈의 눈이지만 사람 눈이라는 게 상놈이나 양반이나 다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아,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신산만산<sup>53)</sup> 할로영산<sup>54)</sup> 들어가다 보니 큰 팽나무 한 그루가 있길래 동쪽으로 뻗은 가지에 소 아홉을 매어 두고, 서쪽으로 뻗은 가지에 말 아홉을 매어 두고, 잎이 선 나무들을 골라 척척 베고 있었는데, 아, 그때 하늘 옥황 문국성 문 도령이 무수한 궁녀며 신녀들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놀음놀이를 하고 있지 됩니까? 그래 그 모습 너무 재미있어 실컷 구경하다 그만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 문 도령의 뒤를 따라 준교산에 오르니까 준교 구경도 좋고, 영악산에 올라보니 영악 구경도 좋고, 호박산에 올라보니 호박 구경이 좋고, 던데산에 오르니까 던데 구경이 좋고, 마니산에 오르니 마니 구경이 좋고, 좀매산에 오르니까 좀매 구경이 좋고, 아외산에 오르니까 아외 구경이 너무 좋아 신이 났더랍니다.”

“정말이더냐? 그렇다면 나도 구경 좀 해볼 수 있을까?”

“아이고, 상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같은 상놈도 가서 실컷 구경 하는데 상전님이 구경 못하실 리 있겠습니까? 아무튼 상전님아! 그렇게 구경하다 보니 팽나무에 잘 매어 두었던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 그 사이에 모두 목이 말라 물이 그리웠는지 제 각각 줄을 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됩니까? 할 수 없이 물오리 잡아다가 상전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물오리가 사는 연못까지 가서 물오리 노는 곳에 황구도끼를 힘껏 던졌는데 물오리는 놀라서 ‘푸두둑!’ 날아가 버리고, 황구도끼는 연못 속에 ‘침병!’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할 수없이 입던 옷까지 흘랑 벗고, 연못 속을 헤집고 다녀도 찾지 못하고 나왔는데, 글썽, 그 사이에 연못가에 벗어 놓은 구제기 잠방이 적삼을 몹쓸 도둑놈이 그만 들고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상전님아! 그래서 이 꼴로 돌아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할로영산 갔다가 문국성 문 도령이 노는 것을 구경했다는 것이냐? 참

53) 산봉우리가 많은 산을 가리킬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뒤에 오는 할로영산과 어울려 무가의 리듬을 만들어 냄.

54) 신령스러운 한라산이라는 뜻인 한라영산(漢擎靈山)의 제주도 발음.

말이나?”

“했고말고요. 하려고만 하면 지금이라도 뭐 구경할 수가 … .”

문 도령 소식에 귀가 번쩍 뜨인 자청비는 정수남이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서둘러 늦인득이 정하님을 불렀다.

“늦인득이 정하님아! 정수남이 입게 지금 바로 긴 바지를 새로 만들어 주어라. 긴 적삼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어라.”

그러더니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살 달래기 시작했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네가 본 것을 구경할 수 있지?”

“뭘, 상전님 드실 밥일량은 참가루<sup>55)</sup> 다섯 되에 소금 다섯 되 섞어서 범벅을 하십시오. 또 제가 먹을 밥일량은 메밀껍질 다섯 말에 소금 한 홉을 넣은 듯 만 듯 넣어 범벅을 하십시오.” 정수남이 말대로 자청비가 서둘러 준비를 마치자 정이 없는 정수남이 선심 쓰듯 말한다.

“상전님은 큰 마누라<sup>56)</sup>가 타고 다니던 말을 타고 가십시오. 저는 말고삐를 잡고 상전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정수남이는 몰래 소라껍질을 가져다 말 등에 올려놓고 안장을 엮은 뒤 자청비 앞으로 말을 몰고 갔다.

“상전님아, 말에 오르십시오.”

자청비가 훌쩍 올라타자 말은 등이 아파 펄쩍펄쩍 날뛰면서 소란을 피웠다. 정수남이는 태연하게 말을 달래면서 입을 열었다.

“이 말 좀 보게나. 거 참, 주인도 못 알아보는 말이로구나. 큰 마누라가 타고 다닐 때는 이 말 위에서 고사(告祀)<sup>57)</sup>를 지내선지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자청비는 고지식하게 정수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어떻게 고사를 했더니?”

“예, 술 한 동이에 닭 한 마리, 밥 한 바구니, 무명 석 자 가져다놓고 고사를 지냈습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자청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술 한 동이, 밥 한 바구니, 무명 석 자를 차려 내와 말 앞에 놓더니 뭔가 말하는 시늉을 하면서 말 귀로 술을 떠서 부었다.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 귀를 설레설레 흔들며 모두 털어버렸다.

“아, 이 말이 이제 그만 먹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고로 말 머리에다 고사지냈던 음식은 주인이 먹는 것이 아니요, 종놈이 먹는 법입니다요.”

그렇게 말하더니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저 혼자 앉아서 말도 않고 고사음식으로 준비해 온 술 한 동이, 밥 한 바구니를 몽땅 비운다. 그것도 모자라 언제 가져왔는지 닭 한 마리까지 들고 박박 뜯어먹어 버렸다. 그러더니 잔뜩 부른 배를 두드리며 일어나 무명 석 자를 겹으로 접어 질끈 동여매더니 다시 자청비에게 말하였다.

“상전님! 이제 말을 타보십시오.”

자청비는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말에 오르려고 했다. 그때 정수남이 다시 소라껍질을 꺼내어 슬그머니 말 등에 놓은 뒤 말안장을 엮었다. 자청비가 말에 오르자 아니나 다를까 말은 등이 아파 또다시 놀라 날뛰기 시작했다.

55) 좋은 쌀가루나 (메)밀가루.

56) 마누라는 높임말로 여기서는 자청비의 아버지를 지칭함.

57) 액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

“이 말 좀 보게나. 아직도 제 주인 몰라보는 말이로구나. 상전님, 상전님! 할 수 없겠네요. 상전님께서 이 점심도시락을 지고 걸어서 따라 오십시오. 제가 대신 말 위에 올라타고 가면서 이놈 행실 한 번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자청비는 속이 상했지만 문 도령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꼭 참았다. 자청비는 말에서 내려 여섯 말 한 홑 분량의 점심을 짊어진 채 걸어서 길을 나섰다. 그 사이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말 등에 올려놓은 소라껍질 꺼내어 던져버리고는 태연히 말에 올라 채찍을 흔들면서 설렁설렁 길을 떠났다.

## 정수남의 귓구멍에 꽂힌 담뱃대

자청비는 여태껏 어쨌죽지에 밧줄을 매어본 적도 등에 짐을 올려 본 적도 없었다. 얼마쯤 가지 않아 여섯 말 한 홑의 범벅을 진 자청비의 온몸에서는 중 방에 염주 떨어지듯 땀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청비는 힘이 부쳐 도저히 한 걸음도 더 갈 수가 없었다. 킁킁대던 자청비는 말 위에 편안히 앉아 설렁설렁 앞서가는 정수남이를 불러 세웠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이제 그 말에서 내려라. 나도 좀 타고 가자.”

“자청비 애기씨! 어서 오십시오.”

정수남은 자청비 말을 한 귀로 흘려듣고 건성건성 대답을 해놓고는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몰아 가버린다. 자청비는 어쩔 수 없이 말 뒤꽂무니를 쫓아 혁혁대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 새 신산만산 할로영산으로 들어가 서천꽃밭에 다다랐다. 서천꽃밭 어귀 높직한 동산에 이르자 정수남이는 그때서야 말에서 내려 버젓이 나왔었다.

겨우 뒤따라온 자청비는 화가 잔뜩 나 호통을 쳤다.

“이 놈, 이 괘씸한 놈! 내가 타고 올 말을 끝까지 내가 타고 오느냐?”

“상전님, 상전님! 아, 말이 주인도 못 알아보고 오는 내내 성질만 내며 날뛰려고 하니 저야말로 죽겠습니다. 오죽하면 여기에 와서야 겨우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시끄럽다. 점심이나 꺼내놓고 좀 먹고 가자.”

화를 참으며 자청비가 말을 하자마자 정수남이는 참가루 다섯 되, 소금 다섯 되 섞은 범벅은 자청비 앞으로 가져다가 획 하니 던져두고는 자기 먹을 몫을 챙겨들고 구렁<sup>58)</sup> 쪽으로 성큼성큼 내려갔다. 그러자 자청비가 열린 정수남이를 불러 세웠다.

“애야, 뭐 하러 거기까지 가서 혼자 앉아 먹느냐? 이리와 같이 앉아서 먹자꾸나.”

“자청비 애기씨, 자고로 종과 주인은 같이 앉아 밥을 먹으면 부부가 된답니다. 저랑 부부가 되시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같이 앉아서 먹겠습니다.”

정수남의 말에 말문이 막힌 자청비는 결국 혼자 점심을 먹기 시작했고,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멀찌감치 떨어진 구렁에 앉아 점심 보따리를 펼쳤다. 정수남이는 제 범벅을 메추라기만큼, 병아리 몸집만큼, 큼직큼직하게 떼어내어 꿀떡꿀떡 맛있게도 먹었다. 하지만 자청비는 가마귀 딱지<sup>59)</sup>만큼 범벅을 떼어도 먹을 수가 없었다. 짜고 써서 도저히 씹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자청비는 정수남을 불렀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네 범벅을 조금만 다오. 나도 한 번 먹어보자. 내 범벅은 너무 써서 먹

58) 움썩하게 팬 땅.

59) 아주 작은 소라 껍데기를 말함.

지를 못하겠다.”

“상전님아! 자고로 주인이 먹던 범벅은 종이 먹을 수 있지만은 종이 먹던 범벅은 개나 먹는 법입니다. 애기씨, 개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배가 고파 못 견디겠으니 조금만 떼어다오.”

자청비가 조금만이라도 떼어달라고 자꾸 보채니까 할 수 없다는 듯 정수남이는 자기 먹는 범벅에서 겨우 가마귀딱지<sup>60)</sup>만큼 떼어 자청비에게 가져다주었다. 배가 고평 터라 그거라도 감지덕지 얼른 받아 입에 넣으니 그 맛이 기묘하여 꿀이나 한 가지였다.

정수남의 범벅 맛을 본 자청비는 제 범벅은 더 이상 입에 대고 싶지도 않았다. 자청비는 먹다 만 것을 그대로 밀어두고는 정수남이를 불렀다.

“정수남아! 내 범벅은 더 먹기가 싫구나. 너나 몽땅 가져다 먹어 버려라. 어서!”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범벅을 가져다가 상전님 먹던 범벅은 장에다 찍어 반찬 삼아 먹고, 제 범벅은 밥으로 먹었다. 거지처럼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도 자청비가 짐을 몽땅 짊어지고 가는데, 점심 때 범벅을 가마귀딱지만큼 먹어 놓으니 힘이 부쳤다. 자청비는 물이라도 실컷 먹고 싶어 애타게 물을 찾았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물이 그리워 죽겠구나.”

때마침 길가에 우물이 눈에 들어왔다. 자청비는 얼른 발걸음을 멈추며 입을 열었다.

“나, 요 물 한 모금만 먹고 가련다.”

“요 물은 보아하니 새가 먹 감고 간 물이라 못 먹습니다. 이 물은 먹으면 구역질이 나는 것은 물론이요, 발에는 발병이 나고, 손에는 손병이 나고, 목에는 목병 납니다.”

정수남이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내 자청비가 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배는 고평지 목은 마르지 짐은 무겁지 자청비는 기운이 다 빠져서 정신이 어질어질했다.

이렇게 저렇게 마침내 신산만산 할로영산 서천꽃밭에 이르러 길목에 막 접어드니 산딸기나무 가시나무가 무성한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다.

“자청비 애기씨, 이 물은 좋은 물이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으려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바가지 통째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바가지가 모가지로 들어가서 못 먹고, 물동이로 떠서 먹으려고 하면 물동이가 모가지로 들어가서 못 먹습니다. 이 물은 손으로밖에 못 먹습니다. 상전님아, 우선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먼저 먹는 것을 보고서 괜찮거든 그때나 드십시오.”

말을 마친 정수남이는 저고리도 훌렁 바지도 훌렁 옷을 몽땅 벗어던져두고는 침땡땡이 덩굴을 걷어다가 사타구니 안쪽에 걸어 맨다. 그러더니 침땡굴 한쪽 끝을 자청비에게 건네준다.

“상전님아, 이것 좀 잡고 서 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물 먹을 때 물귀신이 저를 확 잡아당기어 버릴 겁니다.”

자청비는 정수남이 꼴 보기가 민망했지만 목이 말라 시킨 대로 침땡땡이 덩굴을 꼭 잡은 채 버티는데 정이 없는 정수남은 우물에 얼굴을 처박고 들어가 물을 먹기 시작했다. 꼭 소대가리에 물 들어가는 모양새로 정수남은 저 혼자 꿀꺽꿀꺽 다섯 동이나 되는 물을 먹어댔다. 한껏 먹고 나자 우물 밖으로 머리를 쳐든 정수남이 자청비를 불렀다.

“상전님아, 이 물 마셔도 괜찮겠소. 상전님도 그 옷일랑 벗어두고 드십시오.”

자청비는 종놈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싫었지만 속이 타들어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정수남이가 시킨 대로 치마도 벗고 저고리도 벗는다. 그러나 차마 다 벗어버릴 수가 없어 속곳 하나는 남겨 둔 채 우물가에 달려가 엎드려서 물을 먹으려 했다. 그때 정수남이 얼른 불러 세우며 말

60) 팽이밥처럼 작은 딱지.

한다.

“상전님아! 상전님도 나처럼 속곳까지 벗어버리시오. 여기 내 아랫도리에 매어두었던 요 칩덩굴을 줄 테니 상전님도 잘 매어두시오. 안 그러면 물을 먹기 어렵소. 내가 잘 잡고 서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실컷 드시오.”

자청비는 할 수 없이 속곳마저 던지고 칩덩굴이 덩굴을 아랫도리에 걸어 매고는 우물로 들어간다. 자청비가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손에 잡고 있던 칩덩굴이 덩굴 줄은 가시나무에 친친 감아두고, 자청비가 벗어 놓은 옷은 산딸기나무 위에 걸어두었다. 그러더니 사금파리를 주워 다가 풍당풍당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물 위에 하나씩 띄우기도 하면서 희롱을 한다.

“상전님아, 문 도령을 만나보고 싶으시오? 하늘 옥황 문 도령이 일만 이천 궁녀 선녀 거느리고 내려와서 놀음놀이 하는 것이 이것이니 실컷 구경하시오. 준주산의 준주 구경이 이것이니 실컷 구경하시오. 던데산의 던데 구경이 이런 것이니 실컷 구경하시오. 쯤매산이 쯤매 구경도 이런 것이니 실컷 구경하시오.”

정수남은 자청비를 실컷 골려주고는 자리를 피해 멀찌감치 도망을 쳐버렸다.

‘내가 요 놈에게 단단히 속았구나!’

자청비는 이를 물고 바깥으로 얼른 나와 옷을 찾았다. 그러나 자청비는 산딸기나무 수풀에 걸려 있는 옷을 내리려고 해도 몸이 따라워 내릴 수가 없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자청비는 정수남을 불렀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내 옷 좀 가져다 나오.”

멀찍이 숨어서 보고 있던 정수남은 웃음을 참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상전님아, 옷을 주면 저를 살려 주시겠소?”

“왜 너를 죽이겠느냐? 내 옷이나 가져다 나오. 네 말대로 들어주마.”

정이 없는 정수남이는 그제야 히죽히죽 설렁설렁 걸어 나와 옷을 가져다주었다. 자청비는 재빨리 옷을 받아 왼쪽으로 입어 오른쪽으로 옷끈을 동여매고, 오른쪽으로 입어 왼쪽으로 끈을 동이며 허둥지둥 옷을 입었다.

그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던 정수남이 자청비에게 다가와서 음흉한 속내를 드러냈다.

“상전님아, 아까 제 말 잘 듣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해보지요. 애기씨 손목이나 한번 잡아 봅시다.”

자청비는 정수남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만 인적 없는 산속이라 좋은 말로 타일렀다.

“내 손목 잡을 바에는 내가 눕는 방에 가 보아라. 내가 쓰던 금봉채가 있을 테니 그거나 잡아봐라. 내 손목 잡는 것보다 더욱 좋을 것이다.”

정이 없는 정수남도 물러서지 않았다.

“애기씨,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애기씨 젖이나 조금 만져 보겠습니다.”

“내 젖 만질 바에는 내가 눕는 방에나 가 보아라. 은당병이 있을 테니 그거나 만져 보아라. 내 젖만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니라.”

“애기씨, 그것도 싫으면 이렇게 하지요. 우리 입이나 한번 맞추어 봅시다.”

“내 입 맞추느니 내 눕는 방에나 가 보아라. 꿀단지 하나 있을 테니 그 안에 혀를 넣어 보아라. 나랑 입 맞추는 것보다는 더욱 좋을 것이니라.”

정수남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애기씨,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함께 자리 깔고 누워 봅시다.”

“나와 눕느니 내 눕는 방에 가보아라. 안자리는 능화자리 바깥자리는 꽃자리 번지르르 깔려

있고, 머리맡엔 한서병풍 이러 저리 둘러쳤고 발밑에는 족자병풍 휘휘친친 둘러쳤으니, 자장 자장 잘 베개에 금산비단 이불 덮고 포근하게 누워 보아라. 나와 눕는 것보다야 더욱 좋을 것이니라.”

밀고 당기고 말씨름을 하다 보니 그럭저럭 서산으로 해가 다 내려갔다. 자청비가 지는 해를 보며 말하였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날이 벌써 지는구나. 할 수 없으니 그냥 여기 움막이나 지어라. 오늘 밤은 우리 여기서 새고 가자.”

정수남은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하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 동쪽 나무는 서쪽으로 휘어잡아 묶어 두고, 서쪽 나무는 남쪽으로 휘어잡아 매어 두고, 남쪽 나무는 북쪽으로 휘어잡아 묶어 두고, 북쪽 나무는 동쪽으로 휘어잡아 엮었다. 정수남이 서둘러 움막 두 채 지을 틀을 대강 잡자 두 움막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다.

자청비가 그걸 보며 말하였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멀리 짓지 말고 나란히 지으려무나.”

“종놈과 상전님이 움막을 나란히 지으면 부부가 되는 법입니다. 애기씨랑 나랑 부부가 되시렵니까?”

“종놈이랑 어떻게 부부가 되느냐? 잔말 말고 다시 집을 지어라.”

정이 없는 정수남은 히죽히죽 속으로 웃으며 다시 가까이 움막을 짓는다. 자청비가 누울 움막은 밤하늘의 별이 다 보이도록 지붕에 구멍이 송송하게 대강대강 지어 두고 자기가 누울 움막은 단단히 잘 지었다.

움막이 다 지어지자 제각각 들어가 이력저력 밤을 새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청이 넘어가자 부엉이는 부엉, 족족새는 족족 여기저기 새소리가 멈추지를 않고, 우우 늑대들이 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무서움을 타지 않는 씩씩한 자청비도 구멍 송송 별 보이는 움막 아래서 무서움을 타느라 잠을 못 자고 있었다.

참다 참다 자청비는 정수남을 부른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늑대는 우우 하는데 구멍은 송송 못 참겠다. 이리 빨리 좀 오너라. 나랑 나랑 꼭꼭 안고 오늘 밤은 누웠다가 내일일랑 가자꾸나.”

정이 없는 정수남이 고지식한 정수남이 오라는 말을 듣고 꺼떡꺼떡 자청비의 움막 속으로 들어가자 앓을 사이도 없이 자청비가 말을 한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이 움막은 구멍이 너무 송송 뚫려 있구나. 짐승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구멍들을 잘 막아라. 우리 안고 누운 것을 하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종과 주인이 한데 누우면 죄가 깊어지는 것이다. 구멍마다 꼭꼭 막아라.”

자청비의 말대로 정이 없는 정수남은 움막 바깥으로 나가 부지런히 구멍을 막아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청비는 움막 안을 기어다니며 정수남이 한 구멍을 막으면 이내 두 구멍을 뚫어 두었다.

“정수남아! 여기도 막아라. 저기도 막아라. 이제 보니 여기에도 구멍이 송송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정수남은 부지런히 구멍을 막아댔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 사이 천왕닭이 목을 들어 울고, 지왕닭이 굽이를 꺾어 울고, 인왕닭이 날개를 치면서 울자 먼동이 트고 날이 흰하게 밝아왔다. 정이 없는 정수남은 그제야 속은 것을 알고 부아가 나 얼굴이 검었다가 희었다가 하였다.

자청비는 움막 안에 앉아 성이 잔뜩 난 정수남이의 거동을 살피고는 슬슬 걱정이 들었다.

‘저 놈이 화가 난 꼴을 보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저 놈을 먼저 달래야겠다.’

자청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수남을 부른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고생이 많았구나! 힘들 텐데 얼른 들어와 내 무릎을 베고 눕거라. 내가 이나 좀 잡아주마.”

자청비가 부르는 소리에 금세 마음이 풀린 정수남은 후다닥 움막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자청비의 은결 같은 무릎 위에 땃방석<sup>61)</sup>같이 푸시시한 머리통을 슬며시 올려놓는다.

자청비가 정수남이의 머릿속을 뒤적이며 왼쪽 귀밑을 걸어 보니 흰 모래밭에 검은 모래를 던져 놓은 듯 하고, 오른쪽 귀 밑 걸어 보니 검은 모래밭에 흰 모래를 뿌려 놓은 듯 머릿니가 득실득실 하였다. 굵은 이는 임금 같고, 중간 이는 한 마을 면장 같고, 작은 이는 동네 이장 같았다. 자청비가 잘잘한 이부터 손가락 끝으로 톡톡 눌러가며 일일이 죽이는 동안 정이 없는 정수남이의 두 눈에 잠이 가득 차더니만 이내 스르르 감기고 말았다.

“이 놈 저 놈 꽤심한 놈 같으니! 아무려면 제까짓 것이 내 무릎 위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자청비는 얼른 정수남의 담뱃대를 꺼내 들고 자고 있는 정수남이의 왼쪽 귀에 찢어서 오른쪽 귀로 빼내고, 다시 오른쪽 귀로 찢어서 왼쪽 귀로 빼내버렸다. 그러자 정수남은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

자청비는 죽은 정수남을 뒤로하고 말에 오르며 말을 재촉한다.

“이 말아, 저 말아. 내가 나를 데리고 길을 잘 찾아간다면 너도 녹봉을 먹고 살고, 나도 녹봉을 먹고 살 것이요. 길을 잘 못 찾아간다면 내 칼로 너를 찢러 죽여 두고, 나는 나대로 죽어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들었는지 말은 자청비를 태우고 산을 잘도 내려갔다.

중산마을쯤에 내려오다 보니 백발이 성성한 신선(神仙) 셋이 모여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다. 자청비가 방향을 돌려 그쪽으로 올라가니 신선들이 자청비를 돌아보고 물었다.

“어찌하여 너에게서 피 냄새가 나는 것이냐?”

“오는 길에 제가 타고 온 말의 발에 매추라기가 밟혀 죽는 바람에 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년 저년, 꽤심한 년이로구나. 내가 타고 온 말꼬리 뒤로 더벅머리 총각 놈이 두 귀에 피가 빨갱게 나서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자청비는 그제야 말머리 아래로 사뿐히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아이고! 부디 살려주십시오. 신선님들께서 보신 놈은 제가 데리고 갔던 종놈인데 마음이 음흉하고 행실이 불량하여 제가 죽여 두고 오는 길입니다.”

“너는 오늘 정오쯤이면 그 귀신에게 죽을 것이다.”

자청비는 깜짝 놀라 두 손 모아 애걸한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자청비가 두 손을 모아 애처롭게 빌자 세 신선은 자청비에게 정수남 귀신을 떼어 낼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었다.

“어서 일어나서 길을 떠나거라. 가다 보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을 텐데 세 군데 샘이 있을 게다. 너는 맨 아래쪽 샘물에서는 목욕을 하고, 가운데 샘물에서는 하욕(下浴)을 하고, 위쪽 샘물로는 멍쌀밥을 지어 놓고 북두칠성 대성군(大星君)에게 축수를 드리고 옥추경<sup>62)</sup>을 정성을

61) 매통이나 땃돌 밑에 까는 짚으로 만든, 전이 있는 둥근 방석.

62) 도교의 경문(經文) 가운데 하나로 귀신을 쫓을 때 외운다.

다해 세 번 읽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 귀신이 떨어질 것이다.”

자청비는 신선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고 말에 올라 서둘러 길을 떠났다.

산길을 내려가다 보니 아나나 다를까 물길이 흐르고 있었다. 자청비는 신선들이 일러준 대로 끝 샘물에서는 목욕하고 가운데 샘물에서 하욕한 다음 윗 샘물을 떠다 깨끗이 쌀을 씻고 밥을 지어 북두칠성 대성군에게 축수를 드리고는 옥추경을 세 차례 열심히 읽었다. 그러자 말꼬리에 붙어 쫓아오던 정수남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다.

## 청태산 할망의 베 짜는 여인

자청비는 말머리를 집으로 돌렸으나 정수남을 죽인 일이 걱정스러웠다. 자청비의 걱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은 주인을 집 문 앞에 내려놓았다.

말에서 내린 자청비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느닷없이 묻는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먼저 달래봐야지.”

“달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호되게 꾸짖어야지.”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때려야지.”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아 힘겨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죽여 버려야지.”

자청비는 이때다 싶어 정수남이 말을 꺼낸다.

“어머니, 어머니! 정이 없는 정수남이 말입니다. 행실이 너무 불량하여 제가 힘에 겨워 죽여 두고 왔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나? 딱하기도 딱하구나. 계집애가 잘나기도 잘났구나! 어서 가서 하루에 콩 석 섬을 가는 내 머슴 정수남을 데려오너라. 하루에 조 석 섬을 가는 내 머슴 정수남을 데려오너라! 하루에 수숫대 닷 섬을 가는 내 머슴 정수남을 데려오너라!”

자청비는 어머니한테 큰 야단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죽은 정수남을 살려내어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자청비는 스스로 치맛자락을 올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 붙여놓고, 큰 쟁기를 찾아 둘러맨 뒤 소를 몰고 너른 들로 나가 밭을 갈고, 좁씨 석 섬을 뿌려놓고, 밟아놓고 돌아왔다.

“어머니, 어머니! 나도 정수남처럼 좁씨 석 섬을 갈고, 밟아주고 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또 무슨 말인 게냐? 계집애가 딱하기도 딱하구나! 잘나기도 잘났구나! 하필이면 때도 아닌 곳은 날을 골라 밭을 갈고 씨를 뿌렸느냐? 당장 가서 내 좁씨를 모두 거둬오너라.”

어머니의 역정만 산 자청비는 부랴부랴 세경 땅 너른 땅에 가서 조 석 섬을 모아 왔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조를 모두 거둬 모아왔으니 받으십시오.”

어머니는 그 좁씨를 건네받은 뒤에 좁씨를 담아 놓은 먹서리<sup>63)</sup>에서 좁씨를 한 톨씩 꺼내가며 먹줄을 두고 일일이 세어 보았다. 그런데 꼭 한 알이 부족하였다.

63) ‘먹’이라고도 하며 짙으로 날을 촘촘히 걸어서 만든 그릇의 하나로 주로 곡식을 담음.

어머니는 야박하게도 자청비를 또 다그치기 시작했다.

“조 한 톨이 부족하구나. 얼른 가서 모자란 조 한 톨을 찾아오너라.”

다시 매서운 야단을 들은 자청비는 할 수 없이 때죽나무 회초리를 둘러매고 부족한 좁씨 한 톨을 찾으러 나섰다. 그 때 땅 바닥에서 개미가 좁씨 한 알을 물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며 부지런히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청비는 다행이라고 기뻐하면서 개미를 향해 말하였다.

“이 개미야, 저 개미야! 그 좁씨 여기에 뺏어 놓아라. 나는 그 좁씨 한 톨을 찾으러 다시 왔다.”

하나 개미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걸 내가 물어다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 양식으로 쓸 것이다.”

“이 개미야, 저 개미야! 너 아주 꾀뽀하구나!”

화가 난 자청비는 들고 있던 때죽나무 회초리로 개미 등을 세게 내리쳤다. 그러자 개미 등이 그만 때깍하고 끊어져 버렸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개미허리는 잘록하여 흔들흔들 하는 것이다.

때죽나무 회초리로 크게 맞은 개미가 깜짝 놀라 입안에 물었던 좁씨를 툭하고 뺏어버리자 자청비는 얼른 그것을 주어다 어머니 앞으로 가져갔다.

“어머니, 어머니! 이제 모자라던 한 알까지 찾아왔으니, 조 석 섬을 모두 거두어왔습니다.”

“계집애가 잘나기도 잘났구나! 어떻게 밭을 갈고 좁씨를 뿌려 놓고는 그것을 다시 모아 올 수 있느냐? 너는 보통 애가 아니니 네 명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집을 나가 아무데나 가서 살아라.”

말을 마친 조진국 부인은 물명주 한 필에 검은 암소까지 마련하여 주었다. 자청비는 검은 암소에 물명주를 메고 입을 옷가지도 챙겨 실은 뒤 늦인득이 정하님의 배움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길을 나선 자청비는 자기도 모르게 문 도령을 처음 만난 후천당 연하못가에 이르렀다. 소를 매어 두고 앉아 있노라니 자꾸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자청비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목을 놓아 슬피 울며 탄식을 하였다.

그때 마침 청태산 마귀할망이 연하못가에 빨래를 하러 왔다가 울고 있는 자청비를 보고 말을 걸어왔다.

“어느 집 애기씨기에 여기에 앉아 이리도 슬피 탄식을 하고 있소?”

“말도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조진국이요, 아버지는 김진국인데 부모님이 늦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수록재까지 올리고 태어난 게 접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가련하다 가령비, 자청하다 자청비입니다. 그런데 천생배필 문 도령이 신표를 남기고 떠난 뒤 마음 답답하게 지내다가 문 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정수남의 핏에 빠져 할로영산 올랐다가 음흉한 정수남이 놈을 죽이는 바람에 어머니 눈에는 가시가 되고, 아버지 눈에는 미움을 사서 집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없고 어찌해야 하는지 앞길이 막막하여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었답니다.”

“저런! 그런 딱한 사연이 있었구면. 나는 청태산 마귀할망일세.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우리 집에 나랑 가서 수양딸로 살아보지 않을라나?”

“아이고! 천만 고맙습니다.”

그 길로 자청비는 청태산 마귀할망을 좇아 청태산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자청비가 집에 들어가 이곳저곳 살펴보니, 마귀할망의 집에는 비단 짜는 베틀에 모단<sup>64)</sup> 짜는 베틀이 있었다.

“어머니, 수양어머니! 이것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64) 중국 우단(벨벳)의 한 가지로 비단의 일종임.

“이것은 비단 베틀이요, 이것은 모단 베틀이다.”

“그럼, 이것들은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하늘 옥황 문선왕의 아들 문국성 문 도령이 서수왕의 셋째 딸에게 장가를 간단다. 그래서 하늘 옥황에 올라가 팔아 보려고 옷감을 짜는 중이란다.”

“어머님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그 옷감을 짜 보겠습니다.”

“그래, 짤 수 있거든 한번 짜 보아라.”

청태산 마귀할망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곧장 모단 베틀에 올라 앉아 모단을 짜기 시작했다. 처음 앉은 베틀이 오래된 것처럼 익숙했다. 자청비는 착착 베틀을 돌려가며 모단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간 겪었던 온갖 일들이 하나 둘씩 떠올랐다.

자청비는 문 도령 혼인에서 마두납채<sup>65)</sup>로 삼을 옷감 위에 그간의 이야기들을 수놓기로 하였다. 서울로 글공부 가던 문 도령이 연하못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바가지에 나뭇잎을 훑어 준 이야기, 글공부 가서 달리기 시합 오줌 멀리 짜기 시합한 이야기, 윗물 아랫물에서 목욕하던 이야기를 날날이 모단 위에 수로 새겨갔다.

하룻밤 사이 모단 비단을 모두 짠 자청비는 마귀할망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수양어머님아! 이 모단은 부디 다른 데 가서 팔지 말고, 꼭 문선왕에게 가서 파십시오.”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마.”

청태산 마귀할망은 자청비가 짠 비단과 모단을 짚어지고 하늘 옥황으로 올라갔다. 할망은 제일 먼저 문선왕이 있는 궁으로 들어가 목청을 높였다.

“옷감 사옵소서.”

“이리로 들어오면 내가 사겠소.”

옷감 판다는 소리를 들은 문선왕의 부인이 할망을 불렀다. 청태산 마귀할망은 얼른 옷감을 지고 들어가 부인에게 펼쳐보였다. 자청비가 짠 비단 모단을 유심히 보던 부인은 수놓은 글귀에 찬탄을 하면서도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린다.

“거참, 생전 본적 없는 희한한 비단이로구나.”

그 때 문 도령은 옆방에서 선비들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치던 중이었다. 옆방에서 어머니가 자꾸만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 묻는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애야! 너 장가들 때 쓸 옷감을 사려고 하는데, 생전 본 적 없는 물건이 왔구나.”

“그럼, 늦인득이 정하님에게 시켜서 이리 보내보십시오.”

늦인득이 정하님이 옷감을 들고 문 도령에게 가서 옷감을 보여주자 들추어 보던 문 도령은 모단 위에서 자청비의 글씨체를 보고 깜짝 놀라 뛰어왔다.

“어머님, 이거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이 할망이 가져왔구나. 청태산 마귀할망이라고 한단다.”

“할망, 이 옷감 누가 짠 것이오?”

마귀할망도 놀라 얼른 대답한다.

“우리 집 수양딸이옵니다.”

“할망 수양딸이 누구요?”

“아버지는 김진국, 어머니는 조진국인데 부부가 나이 서른에야 수록재를 드려서 낳은 자청비라고 합니다. 어찌다가 아버지 눈 밖에 나고, 어머니 눈에 가시가 되어 집에서 못살고 쫓겨나게 된 것을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 수양딸로 삼아 지내고 있지요. 그 아이가 하룻밤 사이

65) 혼인날 가지고 가는 납채(納采). 또는 그 채단. 요즘은 보통 혼인날 전에 보낸다.

에 짠 옷감입니다요.”

문 도령은 깜짝 놀라 마귀할망의 손을 잡았다.

“그 자청비는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일세. 할망, 오늘 밤 아무도 몰래 자청비 있는 곳으로 찾아갈 테니 자청비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게.”

마귀할망은 왕비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귀할망이 떠난 뒤 문 도령은 그때부터 해가 지기를 학수고대했다. 언제쯤에나 해가 저서 자청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해가 떨어지고 제자들이 모두 돌아가자 문 도령은 부지런히 글 읽기까지 마친 뒤 아무도 몰래 청태산으로 내려갔다.

그 무렵 청태산 마귀할망은 자청비를 불러 놓고 일렀다.

“자청비야. 오늘 밤에 손님이 올 것이니 꼭 대문을 열어두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후 청태산에 도착한 문 도령은 자청비가 있는 방문 앞까지 이르렀다.

“으흠, 이 문 좀 열어주시오.”

인기척을 듣고 놀란 자청비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아니, 이 밤에 누구십니까?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은 무슨 귀신이겠느냐? 살아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문 도령이다!”

그러나 자청비는 문 도령이라는 말을 듣고도 방문을 열지 않는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문 도령이 틀림없다면 이 창구멍으로 손가락이나 내밀어 보십시오.”

자청비 말에 문 도령은 얼른 창구멍을 뚫고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러자 자청비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시험해 보려고 바늘을 찾아와 손가락을 푹꾹 찔러댔다. 자청비가 문도 안 열어주고 손가락만 아프도록 푹꾹 찔러대자 화가 치민 문 도령은 그만 옥황으로 올라가버렸다.

이튿날 날이 밝자 마귀할망 손님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아침상을 차렸다. 상을 들고 수양딸의 구들방으로 갔을 때 자청비만 혼자 앉아있었다. 게다가 비릿한 피 냄새까지 풍겼다. 깜짝 놀란 마귀할망이 입을 열었다.

“아니, 어찌하여 네 방에서 피 냄새가 나느냐?”

“어머님아, 어머님아! 지난밤에 하늘 옥황 문국성 문 도령이라는 자가 와서 대뜸 문을 열고 하지 뭘니까? 틀림없이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여 몰래 옥추경을 삼세 번 읽었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서 있기에 다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창구멍으로 손가락을 내밀라 했지요. 그리고는 내민 손가락을 바늘로 콕콕 찔렀는데 사람이었는지 정말 피가 나더니 그만 그 사람은 화가 나서 하늘 옥황으로 올라가버렸습니다.”

마귀할망은 화가 나서 목청을 높였다.

“그게 사실이더냐? 그렇게 했으니 어머니 눈에 가시가 되고, 아버지 눈에 미움을 샀지! 네가 서방을 얻더라도 문국성 문 도령보다 더 잘난 서방을 얻을 수 있겠느냐? 들어오는 복을 방망이로 내쫓았구나. 이제는 내 눈에도 꿀 보기 싫다. 내 집에서도 당장 나가버려라.”

다시 쫓겨날 신세가 된 자청비는 잠시 후 결심한 듯 입을 연다.

“설운 어머님, 설운 수양 어머님! 어머니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고운 칼 가져다가 길고 긴 제 머리카락 속속들이 베어 주십시오. 저는 머리 깎고 절에나 가겠습니다.”

“알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마귀할망은 고운 칼을 가져다 참비단 같은 길고 긴 머리카락을 속속들이 잘라내어 열댓 자 긴 자락 보자기에 푹푹 말아 싸주었다.

자청비는 청태산을 떠났다. 그러나 어디에도 갈 곳을 없었다. 할 수 없이 자청비는 다시 연하못가로 내려가 홀로 빨랫돌 위에 걸터앉아 긴 숨을 내쉬고 있었다.

## 자청비, 칼선다리를 타고나서 문 도령과 혼인하다

그때 하늘 옥황의 문 도령은 심화병(心火病)<sup>66)</sup>이 나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 자신도 못 알아본 자청비, 문도 열어 주지 않은 자청비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문 도령은 선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너희들은 지금 내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청비가 먹는 물을 떠와야 한다. 그 물 뜨기 전에는 하늘 옥황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라.”

선녀들은 걱정하며 자청비 사는 마을을 찾아 내려왔다. 하지만 자청비가 먹는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선녀들은 발을 동동 굴리며 헤매다가 연하못가까지 이르러 제비 울 듯 울기 시작했다.

마침 혼자 앉아있던 자청비가 궁녀 선녀들을 보고 말을 건넸다.

“무엇 때문에 그리들 울고 있는지요?”

그러자 선녀들이 입을 모아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 옥황 문국성 문 도령의 심부름으로 왔답니다. 문 도령이 지난 밤 청태산에 내려왔는데도 자청비 애기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병이 나서 누워만 계시더니 별안간 자청비 애기씨가 먹는 물을 떠오라고 우리를 보내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도대체 어느 물을 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청비는 환한 얼굴로 얼른 입을 열었다.

“자청비가 마시는 물이라면 내가 잘 알고 있지요. 그 물은 얼마든지 떠다줄 수 있어요. 대신 나를 하늘 옥황에 데려다만 준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꼭 그리 하겠습니다.”

선녀들의 다짐을 받은 자청비는 얼른 연하못 물을 떠서 선녀들에게 건네주었다. 선녀들은 기뻐하며 물동이를 받더니 약속대로 자청비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물동이 가장자리에 올라앉으십시오.”

자청비가 물동이 가장자리에 올라앉자 물동이는 금세 하늘로 둥둥 올라갔다. 잠깐 사이 물동이는 하늘 옥황에 이르렀다.

선녀들은 자청비를 내려주며 손을 들어 가리켰다.

“이곳이 문선왕이 사는 곳이고, 저곳이 문 도령이 사는 곳입니다.”

선녀들이 말을 마치자 자청비는 얼른 일러두며 말하였다.

“물을 가져다 문국성에게 주면서 내가 여기 왔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녀들이 대답을 하고 떠나자 자청비는 품 안에서 바늘을 꺼내 한 침 찔러 큰 고깔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두 침 찔러 중의 가사를 만들어 걸치고, 세 침을 찔러 큰 장삼을 만들어 입었다. 자청비는 중 차림에 밀 터진 자루를 들고 문 도령 사는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큰 소리로 외쳐댔다.

66) 마음속에서 북받쳐 나는 화. 마음속의 울화로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몸에 열이 높아지는 병.

“시주 받으러 왔습니다. 시주 좀 하십시오. 우리 절은 절도 혈고 당도 혈어 시주 받아다가  
헌 절 고치고 헌 당 고치려고 왔습니다.”

그 때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문 도령은 어머니께 말하였다.

“어머님아, 어머님아! 말<sup>67)</sup>로도 시주를 하지 말고, 되<sup>68)</sup>로도 시주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  
발<sup>69)</sup> 뚜껑으로 하나만 주어 보내버리십시오.”

아들의 말을 듣고 왕비가 하녀를 불러 시킨다.

“늦인득이 정하님아! 밖에 있는 중에게 주발 뚜껑으로 한 번만 퍼서 시주를 주어 보내버려  
라.”

늦인득이 정하님이 부인이 시킨 대로 주발 뚜껑을 들고 시주를 떠 주려고 문선왕이 먹다 남  
긴 쌀독을 들여다보니 흰 쯤이 잔뜩 일어 있었다. 깜짝 놀라 문선왕 부인이 먹던 쌀독을 들여  
다보니 이번에는 검은 쯤이 일어있었다. 할 수 없이 문 도령이 먹는 쌀을 보았더니 쯤이 없이  
멸정하였다.

늦인득이 정하님은 문 도령 쌀을 주발뚜껑 한 번 떠내어 대사에게로 갔다.

“대사님아, 대사님아! 시주 받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대사는 자루를 꺼내어 가장자리를 바르게 한 뒤 쌀을 건네받아 곧장 자루 안으로 쌀  
을 붓는다. 그러나 밀이 터진 자루인지라 쌀은 그대로 주르륵 바닥에 쏟아져 버렸다. 늦인득  
이 정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성을 잔뜩 내며 말하였다.

“이 중 보게. 참말로 께썸한 중이로구나. 밀 터진 자루 들고 와서 시주 쌀을 달라더니 몽땅  
쏟아버리고. 에이, 그 쌀이나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주워 가시오.”

자청비는 대답도 않고 수그린 채 얼음같이 차가운 손으로 바닥에 흩뿌려진 쌀알들을 한 톨씩  
일일이 주워갔다.

쌀을 주우면서 자청비는 문 도령 있는 집안을 힐끔힐끔 들여다보았다. 문 도령은 어린 선비  
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앉아 있으면서도 긴 한숨, 짧은 한숨, 번갈아 내쉬면서 아이고,  
아이고 탄식만 하고 있었다. 자청비가 모르는 척 그 쌀을 알알이 다 줍고 나니, 해는 이미 서  
산 아래로 넘어가버렸다. 자청비는 터진 자루 밀을 잘 움켜쥐고, 쌀을 담아 대문 밖으로 나가  
서는 문 도령 집 앞 정자나무 밑에 가앉았다.

어느새 날은 어둑어둑해졌다. 문 도령에게 글을 배우던 제자들은 밤글까지 읽기를 모두 마치  
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허전해진 문 도령은 사랑방에 들어가 홀로 앉아 글을 읽는데 생  
각할수록 자청비 행동이 원망스럽고 부아가 나서 글귀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자리를 털  
고 문밖에 나가 소변을 보고 돌아왔지만 탄식은 떨쳐지지를 않았다.

그 때 자청비가 담 너머 정자나무 아래 앉아 물끄러미 달을 올려다보며 혼자 노래를 지어 부  
른다.

“오늘이야, 오늘, 오늘이로구나. 달이 곱기는 곱다마는 초승달이요 반달이로구나. 원천강의  
사주던가, 원천강의 팔자던가. 아버지는 김진국이요, 어머니는 조진국. 내 이름은 가련하다 가  
령비요, 자청하다 자청비. 후천당 연하못에서 빨래를 하였더니, 하늘 옥황 문선왕의 문국성 문  
도령을, 글공부 재주공부 서울 가던 문 도령을 만났었구나. 옛날 옛적 문 도령이 복숭아씨 두  
알 주며, 이 복숭아씨 고이 심어 열매 열면 따서 먹고 춘삼월 호시절에 고운 얼굴 마주하자며

67) 부피의 단위.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말은 한 되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  
당한다.

68)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 주로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  
다.

69) 늦쇠로 만든 밥그릇. 위가 약간 벌어지고 뚜껑이 있다.

그렇게 작별 한 뒤 소식조차 없으니 나의 팔자던가, 나의 사주던가.”

달밤에 홀로 부르는 자청비의 구슬프고 처량한 노랫소리는 문 도령이 앉아 있는 방안까지 흘러들어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자 귀가 번쩍 뜨인 문 도령은 저도 모르게 장단을 맞추면서 화답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이 곱기는 곱다마는 저 달이 아무리 곱다고 한들 자청비 애기씨만큼이야 고울까!”

문 도령을 따라 자청비도 소리를 한다.

“달이 맑고 맑아 곱기도 곱다마는 하늘 옥황 문국성 문 도령만큼이야 고우랴!”

문 도령은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펄쩍 뛰어 나갔다. 그러나 정자나무 아래에는 자청비가 아니라 머리를 박박 깎은 여승만 앉아 있었다.

“웬 중이 여기 앉아 있는 게냐? 이 중 꽤 씩하다. 여기 앉아서 여태껏 나를 놀리고 있었구나.”

자신을 못 알아보고 버럭 화부터 내는 문 도령을 보자 자청비는 화가 나 입을 열었다.

“저를 몰라보시겠다면 저를 잡아놓고 이 긴 자락 보따리를 털어보십시오.”

그 말 듣고 문 도령은 활짝 달려들어 여승이 들고 있는 긴 자락 보따리를 낚아챘다. 보따리를 펼치자 열두 폭 금색 홀단치마가 나오고, 그 위에 선땃 자 길고 긴 참비단 같은 머리칼을 베어 놓은 것이 나왔다. 문 도령은 그제야 자청비를 알아보았다. 문 도령은 자청비를 꼭 끌어 안고는 얼른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모양이 되었느냐?”

“말도 마시고 이르지도 마시오. 나는 그동안 당신 때문에 할 고생 안 할 고생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아왔소.”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고생을 하였던 것이냐?”

자청비는 그때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 놓았다. 문 도령은 자청비의 두 손을 꼭 잡고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사연에 귀를 기울였다.

“내 다시는 그런 고생을 안 시키겠소. 오늘부터는 함께 지냅시다.”

문 도령은 다짐을 말을 하고는 자청비를 병풍 뒤에 숨겨두었다.

마침내 자청비를 만나 함께 있게 되면서 문 도령을 괴롭혔던 마음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히 사라졌다. 식욕도 솟구치는지 밥을 먹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님아! 오늘은 느닷없이 시장기가 자꾸 돕니다. 늦인득이 정하님에게 말하여 흰 쌀죽이나 한 그릇 끓여 달라 하십시오.”

아들 얼굴에 생기가 돌자 어머니는 얼른 분부한다.

“늦인득이 정하님아! 너희 작은 상전님이 또 시장기가 난다 하니 흰 쌀죽이나 한 그릇 끓여다 주어라.”

늦인득이 정하님이 쌀죽을 한 그릇 쭈어서 문 도령 방으로 들고 가자 문 도령이 반갑게 상을 받았다. 문 도령은 급히 먹는 척하다가 정하님이 나간 뒤에는 몰래 자청비를 불러냈다. 그 이후로도 늦인득이 정하님이 문 도령 방으로 식사 상을 들고 갈 때마다 밥을 많이 퍼가도 매번 사발 바닥까지 드러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노릇이었다.

며칠 뒤 늦인득이 정하님이 문선왕의 부인 방에 들어가서 입을 열었다.

“상전님아, 상전님아! 요즘 작은 상전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쌀죽 끓여 오라고 하시더니, 식사 상을 들고 가면 매번 사발 바닥까지 싹싹 비우신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애야! 그렇다면 내가 식사 상을 들고 가서 두고 오는 척 하다가 몰래 숨어 누구랑 같이 있

는 것인지 한번 엿들어 보아라. 설마 길 가던 계집애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니겠지?”

부인의 단단한 분부를 받은 늦인득이 정하님은 다음날 아침 문 도령 방에 식사 상을 드려 두고 나오는 척 하다가 이내 몸을 숨긴 뒤 손가락에 침을 적서 창문에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는 몰래 방 안을 들여다보니 상을 받은 문 도령이 병풍 뒤로 들어가 고운 처녀 한 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문 도령은 그 처녀를 제 무릎에 앉혀 두고 다정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늦인득이 정하님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부인에게 달려가 본 것을 모두 아뢰었다. 정하님의 말을 들은 문성왕의 부인이 불같이 화를 낸다.

“양반 집이 망하려면 사당군중(私黨群衆)<sup>70</sup>이 드나들며 집안을 어지럽히고, 상놈이 잘 되려면 양반이 된다고 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길 가던 계집아이 끌어들이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하필이면 하늘 옥황 문선왕은 천왕공사(天王公事)<sup>71</sup>를 보려고 멀리 떠나 있었다. 부인은 급히 문선왕에게 편지를 써내려갔다.

**문선왕님아, 문선왕님아! 삼 년 걸려 마칠 공무 일 년 만에 마치시고, 일 년 걸려 마칠 공무 하루 만에 마치시고, 어서 속히 돌아오십시오. 문국성 문 도령이 길 가던 계집아이를 몰래 데려다가 집안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돌아와서 들여놓든지 내놓든지 어떻게든 하십시오.**

문선왕의 부인은 종을 시켜 편지를 문성왕이 있는 곳으로 급히 보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안의 자청비가 눈치를 금방 채고 문 도령을 불렀다.

“지금 어머님께서 나를 죽일 길을 닦고 있으니 나를 도와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 길을 마련할 수 있겠소?”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문 도령은 자청비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제가 어머님 방에 놀러 좀 왔습니다.”

“거기 앉아 놀아라.”

화가 풀리지 않은 어머니를 앞에 두고 문국성 문 도령은 태연하게 말한다.

“어머님아, 제가 또 시장기가 납니다. 밥이나 있으면 조금 주십시오. 먹고 가렵니다.”

“식은 밥밖에는 없다.”

“식은 밥도 좋습니다.”

“국이 없어 못 먹는다.”

“된장이라도 좋습니다.”

문선왕 부인은 할 수 없이 아들에게 식은 밥에 된장을 내어 주었다. 문국성 문 도령은 두세 손가락을 맛있게 떠먹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님아, 식은 밥도 맛있고, 된장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아, 묵은 된장이 답니까, 새 된장이 답니까?”

문선왕 부인은 문국성 문 도령의 뜬금없는 질문에 어리둥절한 가운데 새 된장이 달다고 하면 부잣집 아이라서 버릇없이 그것만 달라고 할까봐 잠시 궁리하더니 이렇게 답하였다.

70) 사사로운 목적을 위하여 모인 무리.

71)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해야 하는 공적인 일.

“새로 된 된장이 달기는 달다마는 장 냄새가 많이 나고 풋내가 돈단다. 새 된장보다는 묵은 장에 깊은 맛이 더 있단다.”

“그럼, 밥은 더운밥이 좋습니까, 식은 밥이 좋습니까?”

문선왕의 부인은 이번에도 문 도령이 더운밥만 달라하며 버릇없이 굴까봐 염려하여 이렇게 답하였다.

“더운밥이 따뜻하니 좋기는 좋지만 급한 때 먹으면 속을 바작바작 데워버리니 식은 밥이 더 좋단다.”

문국성 문 도령의 질문은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어머님아, 어머님아! 그러면 옷은 묵은 옷이 좋습니까, 새 옷이 좋습니까?”

“새 옷이 반드르르 곱기는 곱다마는 어디 가서 앉으려 해도 먼지를 툭툭 털어내야 하니 뭐가 좋겠느냐? 아무데서나 마음 편히 앉을 수 있는 수수한 묵은 옷이 좋겠지.”

“어머님아, 어머님아! 그렇다면 사람은 묵은 사람이 좋습니까, 새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은 새로 만난 사람이 번지르르 곱다마는 오래 알아온 묵은 사람이 정이 들어 더욱 좋겠지.”

문국성 문 도령은 자청비가 일러준 대로 마침내 할 말을 꺼냈다.

“어머님아, 그러면 서수왕 셋째 딸에게 장가 안 들겠습니까. 묵은 사람과 살겠습니까.”

“이놈아, 이놈아!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어디서 길 가던 계집아이를 데려다 몰래 숨겨 놓고는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

“어머님아, 어머님아! 길 가던 몹쓸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가련하다 가령비, 자청하다 자청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저와 함께 서울서 글공부도 했는데 글재주도 저보다 더 많고, 씨름을 해보아도 저를 이기고, 달리기를 해보아도 저를 이기고, 온갖 것이 저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제 속마음 알아주는 이 사람과 살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그래도 말을 안 듣는구나. 어떤 길 가던 계집아이 데려다 놓고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문선왕의 부인은 다시 서둘러 문선왕에게 편지를 띄웠다.

**빨리 돌아와서 이 집안을 다스리십시오.**

집안 사정이 급하다 싶었는지 편지를 받은 문선왕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문국성 문 도령이 그렇게 나온다면 버전본<sup>72)</sup>을 주지 말고 내 버전 한 켄레를 자청비가 만들어서 올리게 하오. 그 버전을 내가 신어 내 발에 꼭 맞으면 내 며느리가 분명하오.**

문선왕의 분부를 전해 들은 자청비는 버전본도 없이 버전 한 켄레를 금방 만들어서 문선왕께 보냈다. 자청비가 보내온 맵시 있는 외씨버전<sup>73)</sup>은 맞춘 듯이 문선왕의 발에 빈틈없이 꼭 들어 맞았다. 그러자 그걸로 부족하다 여겼던지 하늘 옥황 문선왕은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었다.

**옷본을 주지 말고 이번에는 내 쾌자<sup>74)</sup>를 한 벌 지어 올리게 하오. 그 옷을 내가 입어 내**

72) 버전을 지을 때에 감을 떼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종이 본.

73) 오이씨처럼 볼이 조붓하고 가름하여 맵시가 있는 버전.

74) 소매가 없고 등솔기가 허리까지 트인 옛 전투복. 근래에는 복건과 함께 명절이나 돌에 어린아이가

**몸에 꼭 맞으면 내 머느리가 분명하오.**

문선왕의 분부를 전해들은 자청비는 이번에도 쾌자 한 벌을 금방 지어서 문선왕께 올려 보냈다. 자청비가 보내온 맵시 고운 쾌자는 맞춘 듯이 꼭 맞았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하나 없었다.

하늘 옥황 문선왕은 자청비를 쫓아낼 더 이상의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자 궁리 끝에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문선왕은 명을 내려 급히 일천 선비들을 불러 모았다.

“일천 선비들아 큰 구덩이를 파라.”

일천 선비들이 서둘러 일을 하여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구덩이에 수천 석의 불타는 숯을 깔아 놓고, 그 위에 쉼터 자 되는 칼선다리<sup>75)</sup>를 만들어 놓으라고 명했다. 새파랗게 날이 선 칼날의 다리가 이글거리는 숯불 위에 만들어지자 자청비에게 분부를 내렸다.

**저 칼선다리를 타고 올라 옥황의 문선왕께 절하고 다시 칼선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내 머느리가 분명하다.**

하늘 옥황 문선왕의 전갈을 받은 자청비는 다리에 오를 차비를 차린다. 쉼터 자 방아머리<sup>76)</sup>를 우두커니 둘러 엮고, 구슬동이 곁 바지에 물명주 단속곳<sup>77)</sup> 받쳐 입고, 열두 폭 금 자수에 다홍대단 비단치마, 구슬동이 저고리를 걸쳐 입고, 뽀족하게 코가 선 버선에 태사신<sup>78)</sup>을 신었다.

차비를 마친 자청비는 옥황에 오르는 칼선다리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며 자청비는 다리를 올려다본다. 백탄숯불에 달아오른 칼선다리는 불이 붙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가령비 자청비는 무엇이 서러운지 백옥 같은 얼굴에 구슬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자청비는 하느님을 향해 눈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기 시작하였다.

“밝고 밝으신 하느님, 제게 죄가 있거든 홀연 강풍이나 불어주십시오. 하지만 죄가 없거든은 세상 수 천리에 비나 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행실이 불량하고 마음이 흉악한 정이 없는 정수남이를 죽인 것 밖에는 죄가 없사옵니다.”

자청비는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며 하늘 향해 삼세 번 축수를 드렸다.

그때 동쪽에서 삼시간에 채롱만 한 검은 구름이 등실등실 떠오더니 사방 수 천리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시원한 빗줄기에 달아오른 칼선다리가 잠깐 사이 식어버렸다. 자청비는 그제야 칼선다리를 타고 조심조심 나아갈 수 있었다.

그때 옆에서 놀고 있던 궁녀 선녀 무리들이 자청비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쑥덕거렸다.

“저 녀는 무슨 깊은 죄가 있어 쉼터 자 칼선다리를 타고 오르는 거지?”

자청비는 깔깔대며 놀리는 소리에 부글부글 속이 끓었지만 갈 길이 바빠 부지런히 다리를 건너 오른다.

마침내 쉼터 자 칼선다리를 건너 하늘 옥황에 오른 자청비는 문선왕이 거하는 궁으로 나아가

---

입는다.

75) 칼날로 만들어진 다리.

76) 금, 은, 옥 등으로 만든 장신구의 일종.

77) 여자 속옷의 하나. 양 가랑이가 넓고 밑이 막혀 있으며 흔히 속바지 위에 덧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는다.

78) 남자의 마른신. 비단이나 가죽으로 울을 하고, 코와 뒤축 부분에는 흰 줄무늬를 새겼다.

절을 올렸다.

“아버님, 소녀가 당도했습니다.”

“설운 애기가 올라왔구나.”

그러자 첫 번째 궁문이 열리더니 이내 정월 바람살<sup>79)</sup>에 눈까지 사룩사룩 내려 추워져 자청비를 고생시켰다. 그때 문선왕이 나와 자청비를 향해 말하였다.

“인간 세상에 있다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것이냐?”

“아버님 앞에 절하러 올랐습니다.”

자청비가 문선왕께 절을 올리자 두 번째 궁문이 스르르 열린다.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형틀을 쓰고 앉아 있는 이들이 있었다. 자청비가 궁금해서 묻는다.

“저 이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된 것입니까?”

“저들은 형제간인데 인간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이 분가를 시켰더니 ‘내 게 많다, 네 게 많다’ 싸우다가 불효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스르르 세 번째 궁문을 열린다. 들여다보니 방이 두 개가 보였는데 한 방은 매우 좋았고, 다른 방은 그렇지 못하였다. 자청비는 먼저 좋고 깨끗한 방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의복을 갖춰 입고, 질 좋고 번쩍거리는 놋그릇과 푸짐한 음식들, 맑은 물이 가득 찬 물동이까지 옆에 두고 편안히 앉아 있었다. 자청비가 또 묻는다.

“아버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자는 인간세상에서 부모를 성심껏 공경하여 집안이 늘 화목하였으므로 저렇게 좋은 곳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청비는 다른 쪽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 방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채 엎어져 있다. 벌을 내리는 신장들이 엎어진 여자의 목을 밟았다 났다 하자 얼굴이 검어졌다 하얗졌다 죽었다 살았다 한다.

“저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여자는 인간세상에서 술장사를 하며 살았는데 손님들이 술에 취하면 구정물을 길어 놓아 두었다가 술이라고 속여서 먹인 뒤에 제값을 받고, 또 가만히 있는 남의 서방을 꼬드겨 제 집에 데려와 놓고, 도둑질을 시도 때도 없이 하였다. 그 죄가 깊어 저렇게 다스리는 것이다.”

더 들어가자 이번에는 네 번째 궁문을 스르르 열린다. 그곳에는 인간 백성들이 넓고 넓은 땅에서 말과 소를 부려 밭을 갈고 있었다. 다섯 번째 궁문을 열리자 그곳에도 역시 인간 백성성 수많은 남녀종들이 모여 넓고 넓은 세경땅을 갈고 있었다.

자청비는 농사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삼사월에 좁씨를 뿌리는 것도 좋고, 오뉴월에 종들이 나와 앉아 김매는 것도 좋고, 칠팔월에 세경땅에 오곡 농사가 잘 되어가는 것도 좋고, 구시월에 곡식마다 셋노랑게 단풍 든 것도 좋고, 시월 달에 모든 곡식 베고 거두어서 쌓아 놓는 것도 좋고, 동지선달에 띠를 베어다 지붕 덮는 것도 좋았다. 자청비는 일 년 내내 농사짓고 사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

농사짓는 구경을 하면서 세경땅의 한 곳에 이르자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꽃밭 앞에 서서 문선왕이 돌연 자청비에게 묻는다.

“너는 이 중 무슨 꽃이 제일 좋으냐?”

자청비는 웬일인지 동백꽃이나 정자나무 꽃이 좋다고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묻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잠시 궁리 끝에 답을 한다.

“저는 목화가 가장 곱습니다.”

---

79) 세차게 부는 바람의 기운.

“어찌하여 목화 꽃이 곱다는 것이냐?”

“아이고, 아버님아! 인간세상 백성들이 옷을 만들어 입는 꽃이 목화 아닙니까? 곱고 고운 꽃 중의 꽃이지요.”

그때서야 문선왕은 고개를 끄덕인다.

“설운 얘기가. 너는 세경신으로 들어설 운명이로구나. 이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마. 어서 가서 문 도령하고 살림을 차려라. 칼선다리를 다시 타고 지금 곧 내려가거라.”

하늘 옥황 문선왕께 인사를 마친 자청비는 올라갈 때처럼 신뎃 자 칼선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때 자청비가 옥황에 올라갈 때처럼 한쪽에서 앉아 놀던 궁녀 선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자기들끼리 깔깔대며 속덕거렸다.

“저 년은 얼마나 깊은 죄가 있기에 올 때도 갈 때도 칼선다리를 밟는 거지?”

두 번이나 그 말을 듣자 자청비는 벌떡 울화가 치밀었다. 핫김에 급하게 칼선다리를 내려오다 주르륵 미끄러져 순식간에 칼날에 발뒤꿈치를 조금 베고 말았다.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벤 자리에서는 붉은 피가 번져 나왔다.

마음이 급한 자청비는 피가 흐르는 것도 생각지 않고 문선왕 부인에게 달려갔다.

“어머님아! 하늘 옥황 아버님 전에 다녀왔습니다. 칼선다리 건너올라 아버님과 세경땅을 보고 왔습니다.”

자청비는 공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손을 올려 절을 올렸다. 그때 칼선다리 탈 때 베인 발에서 피가 나는 것을 문선왕 부인이 보았다.

“네게서 피 냄새가 나는구나.”

자청비는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 대답한다.

“남자로 태어나면 한 번씩 번을 서고<sup>80)</sup>, 여자로 태어나면 한 달에 닷새 월경을 합니다.”

자청비는 이렇게 둘러댔지만 깔깔대며 놀리던 궁녀 선녀들이 마음속에 떠올라 화가 끓어올랐다. 그래서 자청비는 시어머니 방을 나오면서 종이로 발뒤꿈치를 쓱쓱 닦아내어 던지며 중얼거렸다.

“에잇, 궁녀청에나 떨어져라. 선녀청에나 떨어져라.”

그러자 자청비의 피가 묻은 종이는 살랑살랑 날아 역새밭도 지나고 수수밭도 지나서 궁녀청 선녀청에 내려앉았다. 그래서 역새 잎도 불긋불긋해지고, 수수대도 불긋불긋해졌다. 그래서 궁녀선녀들은 자청비가 칼선다리를 타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웃어댄 죄로 한 번 월경을 하면 열흘도 하고, 보름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자청비를 보고 불쌍히 여겨 준 여자들은 월경을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밤이면 끝나버렸다.

## 문도령의 죽음과 서천꽃밭 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온갖 고초를 겪은 자청비는 마침내 문국성 문 도령과 새살림을 꾸렸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살림한 지 일 년이 채 못 되어 문선왕과 다른 나라 왕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문선왕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

문선왕의 탄식이 밤낮으로 늘어갈 때 자청비가 나아가 문선왕께 묻는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무슨 일이 있기에 탄식을 하십니까?”

80) 옛날 남자들이 변방에 나가 의무적으로 수자리를 서던 일.

“이웃나라와 다툼이 일어나 아무 달 아무 날에 싸우러 나오라고 하니 여간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님아, 아버님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가 비록 여자지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냐? 널 믿어도 되겠느냐?”

자청비는 문선왕을 안심시킨 후에 그날부터 두 이레 열나흘을 정성들여 비수검을 만들고, 오 소리감투에 오색갑옷도 지어 놓았다. 약속했던 날이 되자 마침내 자청비는 미리 준비해 놓은 갑옷을 입고, 감투를 쓰고, 검까지 챙겨 들고는 천리마를 타고 전장으로 나아갔다.

자청비가 싸울 태세로 당당하게 나타나자 적국의 군사들은 질세라 활을 쏘아대며 칼을 휘둘렀다. 그때 자청비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면서 비수검을 한 번 들어 오른쪽으로 휘두르자 삼천 명의 군사들이 쓰러졌다. 다시 검을 들어 왼쪽으로 한 번 더 휘두르자 이번에는 오천 명의 나머지 대군이 쓰러졌다.

적군을 모두 물리치고 자청비 돌아오자 문선왕은 매우 기뻐 크게 환대하며 말하였다.

“기특하게도 잘 싸웠구나! 무슨 벼슬자리를 하고 싶으냐?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평양감사는 어떠하냐? 팔도를 다스리는 도통제사(道統制使)는 어떠하냐? 아니면 제주도 군수를 하겠느냐?”

그러자 자청비가 손사래를 치며 입을 열었다.

“이것도 저것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주도에 들어가 살고 싶으니 물 한 쪽, 땅 한 쪽만 떼어 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여라.”

자청비는 원대로 제주도에 낙향하여 문 도령과 살림을 함께 꾸리며 살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일 년도 채 못 살았을 때 문 도령과 자청비 부부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못된 선비 무리가 마을 한 쪽에 살고 있었다.

“문국성 문 도령은 고운 계집 데려다가 놀면서 편히 살고, 제주도의 땅 한 쪽, 물 한 쪽을 베어 가졌구나. 배가 아파 못살겠다. 그러니 우리가 두 이레 열나흘 낙성잔치 한다 속여 문 도령을 불러다가 독한 약주로 죽이고, 자청비는 데려다가 돌림마누라로 해버리자.”

못된 선비 무리는 문 도령을 없앨 계략을 이렇게 짠 뒤에, 다음날 찾아와 태연스레 말한다.

“우리가 두 이레 열나흘 낙성잔치를 하려 하니 잔칫상 받으러 꼭 오시오.”

잔치가 있다는 말에 문 도령은 자청비가 새로 만들어 준 옷을 말끔히 차려 입고 구경이나 한 번 가보기로 하였다. 문 도령이 집을 나서자 자청비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문 도령을 불러 세운다.

“여보, 낭군님아! 내가 옷깃 안에 솜을 가득 넣어놓았으니 잔칫집에서 술을 주거든 석 잔 이상은 마시지 말고 먹는 듯 마는 듯이 옷깃에 넣은 솜 안에 모두 부어버리시오.”

“그렇게 하리다.”

문국성 문 도령은 자청비의 당부를 기억하며 낙성 잔칫집으로 향하였다. 대문에 이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이 나와서 문 도령을 반갑게 맞이하며 집안으로 청하였다. 그러더니 이내 술 잔을 쥐어주고는 계속해서 독한 약주를 따라주기 시작한다.

문 도령은 첫 잔, 둘째 잔, 셋째 잔을 차례차례 받아서는 먹는 듯 마는 듯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옷 안에 넣은 솜에 부어버리곤 하였다. 그러자 낙성 잔칫집 사람들은 문국성 문 도령이 독한 술을 주는 족족 모두 마셨으니 곧 죽어버릴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문 도령을 쫓아내다시피 대문 밖으로 밀어낸다.

“이놈! 빨리 여기서 나가버려라. 네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널 치워버리겠느냐!”

모두들 재촉하자 문 도령은 태연히 나서서 유유히 천리마를 타고 삼도천(三途川) 거리로 향했다. 그때 문득 한쪽 다리를 절고, 한쪽 팔은 구부러진 절름발이가 누더기 망태기를 어깨에 지고는 절뚝거리며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문국성 문 도령아! 내가 주는 술 한 잔 먹고 가소.”

‘저런 절름발이 병신이 무슨 악한 마음이 있어 술잔에 약을 탔겠어?’

문 도령은 잔치집에서 술을 먹는 등 마는 등 한지라 절름발이가 주는 술 한 잔을 의심 없이 받아서 확 들이키고는 다시 천리마를 타고 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점점 정신이 아득아득 가물가물 하더니 겨우 대문 안에 이르렀을 때 그만 정신을 잃고 ‘쿵’ 소리를 내며 말 아래로 떨어졌다. 베를 돌리고 있던 자청비는 물명주를 짜다 말고 말울음소리를 들었다.

‘우리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 천리마 영물인데 아이고 필시 내 낭군이 죽었구나!’

자청비는 속으로 짐작하고 바로 물명주를 끊고, 열두 폭 비단치마 돌려 입고 황급히 달려 나갔다.

“아이고, 낭군께서 정말로 죽었구나!”

자청비는 쓰러진 문국성 문 도령을 물명주 치마로 감싸서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왔다. 안 자리에는 능화자리, 바깥자리에는 꽃 명석을 반지르르 깔아놓고, 머리맡에는 한서병풍 발밑에는 족자병풍을 휘휘 둘러친 방안에 문국성 문 도령을 좋은 베개로 받쳐두고 비단이불로 덮어두었다. 그리고는 앞밭으로 갔다 뒷밭으로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등애를 잡아다가 머리털로 일일이 다리를 묶어 문 도령 눈썹에 모두 달아맸다.

자청비가 태연히 베틀에 앉아 물명주를 짜고 있을 때 일천 선비들이 찾아 왔다. 문국성 문 도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러온 것이다.

“문국성 문 도령은 어디 갔습니까?”

자청비는 느긋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답을 한다.

“우리 낭군님은 어제 낙성잔치에 가서 술을 잔뜩 마셨는지 많이 취해 돌아오셔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일천선비들은 자청비의 말이 아무래도 믿어지질 않았다.

‘참말로 문 도령이 자고 있을까?’

선비들은 슬며시 문 도령이 자고 있는 방문으로 가서 귀를 대보았다. 방 안에서는 자청비가 문 도령의 눈썹에 묶어놓은 등애가 도망치려고 웅웅대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선비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며 입을 딱 벌린다.

“아따, 그 놈 참 장수로구나! 독주를 석 잔이나 먹었는데도 쿵소리가 저 정도니!”

선비들은 망연자실하여 자청비가 명주를 짜고 있는 베틀 곁에 와서 올망졸망 서 있다. 그 모양을 본 자청비가 태연히 입을 열었다.

“그리 서 계시지 말고 앉기라도 하십시오. 저는 명주를 짜느라 손이 바빠 내려주지 못하니 그 위에 있는 무쇠방석을 가져다 깔고 앉으십시오. 우리 집 대감이 늘 깔고 앉는 방석입니다.”

선비들은 모두 달려들어 자청비가 말한 무쇠방석을 내려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너무 무거워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들 수가 없었다. 창피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여 선비들은 눈만 말뚱말뚱 뜨고 우두커니 있었다. 자청비가 그 모습을 보고는 천천히 말한다.

“그냥 제가 내려 드리지요.”

그러더니 자청비는 베틀에 앉은 채로 몽둥이로 방석을 툭 건드린다. 그러자 무쇠방석은 덩그르릉 소리를 내며 가볍게 떨어졌다. 선비들이 더욱 쪼그라들어 무쇠방석을 받아 깔고 앉자 이

번에는 자청비가 베틀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향한다. 자청비는 큰 솔에 무쇠로 수제비를 띄워 푹푹 끓이더니 큰 매함지<sup>81)</sup>에 퍼놓고는 안쪽에 메밀나깨<sup>82)</sup> 수제비를 대여섯 개 넣어서 선비들에게 가져갔다.

“우리 집 대감이 늘 먹는 수제비국입니다. 한 번 잡쉬들 보십시오.”

일천선비들은 상을 받아 놓고 무쇠 수제비를 하나씩 떠서 덥석 입에 넣었다. 그러자 어떤 놈은 이가 부서져 버리고, 어떤 놈은 잇몸이 벗겨져 피를 줄줄 흘리고, 어떤 놈은 뺨아서 던져 버린다. 다들 입을 부여잡고 어찌할 줄 몰라 야단법석들이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자청비가 타박하듯 말을 한다.

“거, 무슨 음식을 그렇게들 경박스럽게 잡수십니까? 제가 한번 먹어 볼 테니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드십시오.”

자청비는 함지를 앞으로 확 당겨 무쇠 수제비는 함지 한쪽으로 삭삭 밀어두고, 메밀나깨 수제비를 건져 재빨리 하나 입 속으로 넣어 꿀꺽 씹어 삼키고는 또다시 한 개를 건져서 가볍게 먹었다. 지켜보던 선비 무리들은 더욱 마음이 쭈그러들어 몸 둘 바를 몰라 하였다. 그 꼴을 보고 내내 참고 있던 자청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고얀 놈의 자식들아, 사람을 불러다 독한 술을 먹여 죽이고는 집에까지 슬금슬금 찾아왔느냐? 뭐 좋은 것이라도 있으면 가져가려고 온 것이냐?”

화가 치민 자청비는 배틀 몽둥이를 집어 들고 보이는 대로 선비 놈들의 어깨뼈를 한 번씩 내려쳤다. 그 사이 쟁 놈은 재빨리 달아나고, 굵은 놈은 한 대씩 맞고 도망가느라 허둥지둥 정신이 없었다.

자청비는 일천선비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고는 문 도령이 누워 있는 방을 서른여섯 용두걸쇠<sup>83)</sup>로 마흔여덟 자물쇠로 단단히 채우면서 마음도 단단히 쳤다.

‘서천꽃밭 들어가서 사람 살리는 꽃을 따와 낭군을 살려내야지.’

자청비는 비단치마 저고리를 벗어놓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은 뒤 천리마에 올랐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을 향해 먼 길을 떠났다.

## 뼈가 붙고 살이 오르는 환생꽃

서천꽃밭으로 부지런히 달리던 자청비는 아이들을 보고 말을 잠시 멈추었다. 길가에서 아이들 둘이 죽은 궁덕새<sup>84)</sup>를 앞에 두고 티격태격 다투고 있었다.

“내가 먼저 주웠다.”

“아니야, 내가 먼저 봤다니까.”

자청비는 말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너희들은 어째서 티격태격 싸우느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죽은 궁덕새 하나를 발견했는데 서로 먼저 주웠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81) 멧돌질을 할 때 등글고 넓적하여 멧돌을 얹히기가 좋은 함지.

82) 메밀가루를 체에 치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

83) 용의 머리 모양을 떠서 만든 걸쇠(대문이나 방의 여닫이문을 잠그기 위해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의 쇠).

84) 부영이의 제주도 말.

“애들아, 그럼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냥씩 줄 테니 그걸 나한테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자청비는 아이들에게 돈을 한 냥씩 꺼내주고는 죽은 궁덕새를 받아서 말안장에 걸고 다시 서천꽃밭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어느덧 서천꽃밭 앞에 나타났다. 자청비는 궁덕새를 꺼내어 왼쪽 눈으로 화살을 찔러 오른쪽 눈으로 빼내고는 꽃밭 사이에 몰래 떨어뜨려 두었다. 그리고는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꽃감관댁 노릇들에 내려섰다.

그때 양반 상놈을 구별할 줄 알아 상놈이 오면 가까이 달려와 멍멍 내달아 멍멍 짓고, 양반이 오면 앞발 두 개를 꿇고 앉아 멍멍 짓는 발바리가 자청비를 보고는 두발을 꿇고 멍멍 짓어 대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고 서천꽃밭 꽃감관(監官)이 큰 딸을 부른다.

“큰 딸아기야, 꽃밭에 도둑이 들었는지 대문 밖에 나가 보아라.”

큰 딸아기가 나가 보니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발바리가 멍멍 짓는다. 이번에는 꽃감관이 둘째 딸을 불렀다.

“둘째 딸아기야. 이번에는 네가 나가 꽃밭에 도둑이 들었는가 보아라.”

둘째 딸아기가 대문 밖에 나가 보지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딸아기야, 네가 나가 보아라”

셋째 딸아기가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노릇들에 어떤 도령님이 서 있었다. 셋째 딸아기는 후다닥 집안으로 달려들어 아버지께 알렸다.

“아버님아, 아버지님아! 저 대문 앞에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도령님이 한 분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물어봐라.”

셋째 딸아기는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 자청비에게 묻는다.

“도령님은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이 어떻게 이러한 꽃밭에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셋째 딸아기는 자청비의 대답을 듣고는 쪼르륵 집안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을 한다.

“아버님아, 아버지님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안으로 들어오라 청하여라.”

셋째 딸아기가 다시 나와 자청비를 청하자 자청비가 입을 열었다.

“아, 나는 다른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요. 나는 서울로 과거보러 가는 선비인데 우연히 이 앞을 지나다가 말 위에서 보니 저 꽃밭 위에서 궁덕새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내가 화살 한 발을 쏘았더니 한 마리는 날아가고 한 마리는 화살을 맞았는데 어디로 떨어졌는지 찾을 길이 없어서 이려고 있다가요.”

셋째 딸아기는 도령의 사연을 그대로 전하자 꽃감관이 다시 딸들을 차례로 불렀다.

“큰 딸아, 나가서 궁덕새를 찾아보아라.”

큰 딸아기가 나가 꽃밭을 살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둘째 딸아, 네가 나가서 찾아보아라.”

둘째 딸아기도 나가 꽃밭을 살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딸아, 네가 나가서 궁덕새를 찾아보아라.”

결국 셋째 딸이 다시 나가 살펴본다. 셋째 딸의 눈에는 화살을 맞아 죽은 궁덕새가 금방 들어왔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참말로 궁덕새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궁덕새를 이리 가져와 보아라.”

서천꽃밭 꽃감관이 셋째 딸이 주어진 궁덕새를 받아 보니 궁덕새의 왼쪽 눈에서 오른 쪽 눈으로 과연 화살 한 대가 꿰뚫어져 있었다. 꽃감관은 감탄하며 도령을 집안으로 급히 불러들였다.

“도령은 재주가 뛰어난 선비구려. 사실 우리 집에는 조화를 부리는 부엉새가 가끔 찾아와서는 노뚝돌 위에 앉아 울어대곤 합니다. 그 놈의 새가 한 번 울면 일 년 조화를 주고, 두 번 울면 그 조화가 이 년도 가고, 삼 년도 가곤 한답니다. 조화를 주면 꽃은 모두 시들시들 시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도령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나머지 궁덕새를 잡아 주면 내가 천금의 상은 물론이요, 세상 만물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자청비 자청도령은 꽃감관의 말을 듣고 선뜻 대답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령은 곧바로 안사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말하였다.

“제가 문구멍으로 화살을 겨누고 기다리고 있다가 궁덕새가 오거든 화살을 쏘겠습니다.”

도령은 문구멍을 뚫어 화살을 겨누고는 궁덕새가 나타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더니 밤이 점점 깊어 자정 무렵이 되자 자청비는 옷을 훌랑 벗어두고는 훌이불을 몸에 친친 감은 채 밖으로 나갔다. 자청비는 궁덕새가 날아와 운다는 노뚝돌 위에 등을 붙이고 벌렁 누워 몸에 감은 이불을 펼쳤다.

얼마 후 과연 궁덕새 한 마리가 내려와서는 자청비 배 위에 턱 하니 앉았다. 궁덕새가 ‘부엉’ 하고 한 번 울었을 때 숨죽이고 있던 자청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뻗어 부엉이를 확 잡았다. 곧바로 자청비는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화살로 궁덕새의 왼쪽 귀를 찔러 오른쪽 귀로 빼내 노뚝돌 위에 던져두고는 방으로 돌아와 속편하게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간밤에 얼핏 궁덕새 우는 소리를 들은 꽃감관이 자청비를 찾아와서 물었다.

“간밤에 궁덕새 우는 소리를 들은 듯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결에 소리가 들려서 화살 한 대를 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꽃감관은 반신반의하며 대문 밖으로 나가 보았다. 과연 부엉새 한 마리가 노뚝돌 위에 죽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화살이 정확히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꿰뚫어져 있었다. 서천꽃밭 꽃감관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감탄하며 말한다.

“아이고, 도령님은 재주가 좋기도 하시오.”

곁에서 지켜보던 꽃감관의 셋째 딸아기가 도령에게 끌리는 마음이 어찌지 못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저 손님 도령님을 사위로 드리십시오.”

셋째 딸아기가 은근히 부탁하자 꽃감관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주가 뛰어난 도령님아,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막내 딸아기와 혼인하여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대감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정입니다. 부디 막내 딸아기와 혼인하십시오.”

도령이 깜짝 놀라며 몹시 당황하자 꽃감관은 더욱 간곡하게 말한다. 자청비 자청도령은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말했다.

마침내 날을 정하여 자청비는 서천꽃밭 꽃감관 막내딸에게 장가를 들어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부부가 되어 한 방에서 함께 살았지만 석 달 열흘이 지나도 서방은 각시에게 손 한번 내밀지 않았다. 참다 참다 꽃감관의 막내딸은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도가 너무 높은 사위를 보셨는지 남녀구별법도 모릅니다. 한 방에서 석 달 열흘을 지내도 손 한 번 내밀 줄을 모릅니다.

막내 딸아기의 한숨소리를 듣고 난 꽃감관은 사위를 불렀다.

“자네, 내 딸이 지체가 부족하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얼굴이 못나서 그런 건가? 어찌하여 부부가 되어 한 방에서 지내면서도 손 한 번 내밀지 않는 것인가?”

자청비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말한다.

“아, 그런 말씀이라면 말도 마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서울로 과거를 치르러 가는 길이었습시다. 과거 급제 전에는 각시 생각, 여자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시다.”

사위의 뜻을 알게 된 꽃감관은 셋째 딸을 불러놓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자청비 자청도령도 부인을 불러 살살 달래가며 말을 꺼냈다.

“나는 내일이면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야 하오. 내가 과거급제를 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진정으로 부인과 천년 가약을 맺겠소. 그런데 과거를 보러 가기는 가면서도 서천꽃밭 구경을 한 번도 못해봤으니 그것이 참으로 애석하오.”

“그렇다면 내일 서방님께서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 청하여 꼭 꽃밭 구경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참으로 고맙겠소.”

이튿날 아침에 꽃감관 셋째 딸이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아버지의 사위가 석 달 열흘이나 한 집에서 살고 과거 보러 떠나는데 꽃밭 구경 한 번도 안 시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먼 길 떠나기 전에 꽃밭 구경 한번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요.”

“애야! 꽃구경을 하다보면 꽃이 하나라도 상하지 않겠느냐?”

“아버님아, 그런 것이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한 송이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구경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려무나.”

꽃감관의 승낙을 받은 셋째 딸아기는 의기양양 앞에 서고 자청비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서천꽃밭 꽃구경을 하게 되었다. 그 전에 자청비는 아무도 모르게 금비단 주머니를 네 귀 반듯하게 만들어 허리에 차고 있었다. 셋째 딸아기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이것저것 꽃을 가리키며 신이 나서 말한다.

“이 꽃은 죽은 사람의 살이 오르는 꽃이요, 이 꽃은 뼈가 생기는 꽃입니다. 이 꽃은 허파가 되는 꽃이고, 이 꽃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꽃이고, 이 꽃은 웃음을 주는 꽃이랍니다.”

자청비는 셋째 딸아기가 설명해 주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발고랑 사이로 뒤따라가면서 꽃을 슬쩍 슬쩍 하나씩 따서 주머니 안에 차곡차곡 담아 갔다.

“이 꽃은 부자가 될 꽃이고, 이 꽃은 멸망꽃이고, 이 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환생꽃입니다.”

이렇게 셋째 딸아기는 꽃밭에 있는 모든 꽃을 일일이 가리키며 구경을 시켜주었고, 자청비는 몰래 그 꽃들을 모두 따서 주머니를 가득 채워두었다.

꽃밭구경을 마친 자청비는 떠날 채비를 하고 인사를 올렸다.

“그럼 저는 이만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서천꽃밭 꽃감관에게 절을 올리고 대문 밖을 나서자 뒤 따라 나온 셋째 딸아가 자청비를 다시 불러 세운다.

“서방님아, 서방님아! 가실 때 가시더라도 신표 하나는 남겨주고 가지지요.”

자청비는 할 수 없이 바지 대님<sup>85)</sup> 한 쪽을 풀고, 토시 한 짝도 벗어 셋째 딸아가 손에 쥐어 준다. 또 큰 얼레빗<sup>86)</sup> 한 개를 꺼내어 반으로 쪼갠 뒤 건네주며 말한다.

“이것들을 남길 테니 나중에 돌아오거든 그때 한 번 맞춰봅시다.”

마침내 자청비는 서천꽃밭을 떠났다. 한참을 천리마를 달려 다시 제가 살던 마을에 이르렀다. 자청비가 자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은 산딸기나무 가시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자청비는 날이 고운 칼을 꺼내 엉킨 나무를 싹싹 베어 내고는 문 도령이 누워 있는 방문 앞에 가서 서른여섯 용두걸쇠, 마흔 여덟 자물쇠를 모두 열었다. 방안으로 들어가 보니 문 도령은 살은 썩어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흩어져 있었다.

자청비는 뼈를 차곡차곡 모아놓고는 서천꽃밭에서 따온 뼈 오를 꽃, 살 오를 꽃, 허파가 될 꽃, 말을 하는 꽃, 환생꽃을 뼈 위에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때죽나무 회초리로 슬쩍 때리자 뼈가 붙고 살이 오르더니 문 도령이 눈을 번쩍 뜨며 기지개를 켜었다.

“아이고, 봄잠이라 내가 너무 오래 자버렸나 보구려.”

문국성 문 도령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가슴을 쓸어내린 자청비는 그제야 그간 겪은 일을 문 도령에게 들려주었다.

“낭군님아, 내가 마시지 말라고 한 독한 술을 마신 일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독주 먹고 죽은 낭군님을 살리려고 서천꽃밭까지 들어가 온갖 꽃을 꺾어와 낭군님을 다시 살렸습니다.”

문 도령은 놀라며 기억을 더듬는다. 잔칫집에 가서 술을 몰래 옷 속에 부은 일, 돌아오는 길에 절름발이를 만났던 일이 하나씩 떠올랐다. 고개를 끄덕이는 문 도령을 보며 자청비가 계속 말을 한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령 차림으로 서천꽃밭에 갔을 때 꽃감관 막내딸아기를 부인으로 삼아두고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꽃을 얻으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다시 살 수가 없으니 낭군님께서 나대신 그곳에 가십시오. 거기 가거든 그곳에서 삼 년을 살게 되면 나하고는 일 년을 살고, 석 달을 살거든 나하고는 한 달을 살고, 사흘을 살거든 나하고는 하루만 사십시오.”

자청비는 서천꽃밭 셋째 딸아기에게 남겨 주고 왔던 신표를 보여 주고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여기 토시 한 쪽, 대님 한 쪽, 큰 얼레빗 한 쪽이 있으니 이것들을 잘 가지고 가세요. 그 집 사람들이 떠날 때 타고 온 말은 맞아도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치미를 뚝 떼세요. 서울 가서 과거급제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삼년상 치르고,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어 삼년상 치르고, 그 뒤에는 심한 병이 들어 석 달 열흘 고생하고 났더니 이 모양이 되어버렸다고 하십시오.”

자청비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문 도령은 마침내 천리마를 타고 서천꽃밭을 향해 길을 나섰다.

85) 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의 끝 쪽을 접어서 발목을 졸라매는 끈.

86) 빗살이 굵고 성긴 큰 빗.

##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세 세경신

문 도령이 서천꽃밭 감관댁 노뎃들에 내려섰을 때 발바리가 이번에도 두 발을 꿇고 짓어대기 시작했다. 집안에 있던 꽃감관은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얼른 셋째 딸을 불렀다.

“막내 딸아기야, 얼른 나가 보아라. 네 남편이 온 것 아니냐?”

셋째 딸아기는 얼른 대문 밖으로 달려 나갔지만 말은 낮이 익은데 말에 탄 사람은 낮이 설었다. 실망한 셋째 딸아기는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향해 투덜댄다.

“아버님아, 말은 맞는데 사람은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들은 문 도령은 얼른 말을 매어 두고 집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장인어르신! 장모님! 막내 사위가 왔습니다.”

문 도령은 꽃감관 앞으로 나아가 넙죽 절을 한다. 그러나 꽃감관은 처음 보는 도령이었다.

“도령이 우리 사위일 리가 없소. 우리 사위는 그런 고생한 얼굴이 아니오.”

“아이고, 장인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사위얼굴을 못 알아보시다니요? 말도 말고 이르지도 마십시오. 서울 가서 과거급제 하고 잠시 고향집에 들렀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삼년상을 치렀습니다. 연달아 아버지도 돌아가시어 또 삼년상을 치렀는데 그 뒤로 심한 병까지 들어 석달 열흘이나 고생을 하고 보니 얼굴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셋째 딸아기 불러다 내가 헤어질 때 주었던 신표나 달라고 하십시오. 그거나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표를 확인해 보세. 자네 먼저 신표를 꺼내보게.”

서천꽃밭 꽃감관은 문 도령이 내놓는 물건을 보면서 막내딸을 부른다.

“애야, 막내딸아기야. 신표를 가지고 나오너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막내딸은 만지작거리고 있던 신표를 들고 나왔다. 막내딸은 문 도령이 내놓은 토시며, 대님이며, 열레빗이랑 자기 것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간다. 모든 물건들이 빈틈 없이 딱 짝이 맞았다. 꽃감관은 그제야 반색을 하며 문 도령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사위가 분명하구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먼.”

그 날 이후 문 도령은 꽃감관 셋째 딸아기와 부부가 되어 살림을 꾸려가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새 각시와 즐겁게 지내던 문 도령은 그만 자청비 생각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다. 시간은 쏠살같이 흘러 자청비와 약속했던 삼 년도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문 도령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자청비는 문국성 문 도령에게 편지를 쓴다. 물명주를 하얗게 빨아 옷을 지어 입고는 글월을 써내려간다.

**문국성 문 도령아! 삼 년이나 지나도 편지 한 장 없구나. 이놈의 집에서 나 혼자는 못살겠다.**

자청비는 눈물로 쓴 편지를 새 날개에 끼워서 서천꽃밭으로 보냈다. 새는 부지런히 서천꽃밭으로 날아가 이튿날 아침 문 도령이 세수하러 나올 때를 기다려 세숫대야 위로 편지를 떨어뜨렸다.

문 도령은 깜짝 놀라 얼른 글을 펼쳐보니 까맣게 잊고 있던 자청비가 보낸 것이었다.

“아차차, 잊었구나! 내가 자청비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문 도령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황급히 방안으로 들어와 옷

을 갖춰 입는데 정신은 없고 마음만 급하다. 망건<sup>87)</sup>을 써도 귀를 빼지 못하고, 윗당줄<sup>88)</sup>도 조이지 못하고 허겁지겁 아무거나 걸치고 나간다. 말안장을 엮는다는 것이 거꾸로 엮어놓고는 꽃감관 셋째 딸아기에게는 가노라 오노라 인사말도 없이 말 등에 거꾸로 앉아 자청비 집으로 달려간다.

말을 거꾸로 탄 문 도령이 집에 다다를 때 집안에 있던 자청비는 귀에 익은 말울음 소리를 듣고는 문 도령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자청비는 문을 달아 걸어버렸다.

말에서 내린 문 도령은 닫힌 대문을 쿵쿵 두드리며 크게 소리를 지른다.

“자청비야, 자청비야! 이 문 좀 열어봐라. 문국성 문 도령이 이제야 왔다.”

그러나 자청비는 문 도령이 야속하여 끝끝내 잠근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 도령은 할 수 없이 힘으로 잡아당겨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 도령이 들어오자 참지 못한 자청비는 비수검을 휘둘러 천장을 뚫고 하늘 옥황으로 올라가 문선왕께 나아간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소녀가 왔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적막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문국성 문 도령이 아홉 번 죽을 일도 소녀가 미리 막아 살려주고, 죽은 도령 살리려고 서천꽃밭 고생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서천꽃밭 꽃을 꺾어 돌아올 때 꽃감관의 셋째 딸아기를 얻어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와 문국성 문 도령을 살려낸 뒤 문 도령을 꽃감관 댁 셋째 딸에게 보내며 일러두길, ‘거기에서 삼 년을 살거든 나하고는 한 해를 살고, 석 달을 살거든 나하고는 한 달을 살고, 사흘을 살거든 나하고는 하루를 사십시오.’라고 하였는데, 문 도령은 서천꽃밭 들어간 후 내리 삼 년이 지나도록 글월 한 장 없었습니다. 참다못해 제가 먼저 편지를 띄웠는데 제가 오죽이나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삼 년을 훌쩍 넘어 오는 사람이 세수도 똑바로 하지 않고, 귀도 아니 빼고 망건을 쓰고, 윗당줄도 제대로 조이지 않은 채, 거꾸로 엮은 안장에 거꾸로 말을 타고 와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너무도 야속하고 너무도 쾌심하여 문을 아니 열었습니다.”

잔 잡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문선왕은 아들 편을 들어준다.

“아무리 그리하여도 문은 열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놈 가슴은 더욱 썩어 곰팡이가 일었을 것이고, 그놈 속마음은 더욱 타서 피가 고였을 것이다.”

시아버지 문선왕의 말을 들은 자청비는 선떡<sup>89)</sup>을 먹은 듯 가슴이 멍멍했다. 이 일 때문에 세상에는 잔 잡은 팔은 안으로 흰다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어쨌든 문선왕은 자청비의 멍멍한 가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망하듯 말을 한다.

“자청비야, 너에게 세경땅 다스리는 상세경을 맡기려고 하였다마는 너는 이제 중세경으로 내려 서거라. 네 마음이 쾌심하다. 너 대신 문 도령에게 상세신을 맡기고, 정수남에게는 하세경을 맡게 하겠다.”

그러더니 문선왕은 자청비에게 오곡의 종자를 따서 준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문 도령과 사이 좋게 세경땅을 다스리거라.”

자청비는 묵묵히 시아버지 문선왕의 오곡종자를 받아서 세경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자청비는 멍멍한 가슴이 풀리질 않아 정신이 팔렸는지 메밀 씨와 나물 씨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절반쯤 내려오다 정신이 든 자청비는 오던 길을 되돌아 문선왕에게 달려갔다.

87)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걸어 올려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보통 말총, 곱소리 또는 머리카락으로 만든다.

88) 망건당에 꿰 당줄.

89) 잘 익지 아니하고 설어서 푸슬푸슬한 떡.

“아버님아, 아버님아! 절반쯤 가다 보니 메밀 씨와 나물 씨가 없습니다.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걱정마라. 그것은 조금 늦어도 농사는 지어 먹는다.”

자청비가 메밀 씨와 나물 씨는 다른 씨보다 늦게 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도 메밀 농사와 나물 농사는 다른 곡식 농사를 다 마친 뒤 때가 좀 지나도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청비는 오곡 씨앗을 문선왕께 받아들고 다시 내려오다 문선왕이 하세경으로 삼으라고 한 정이 없는 정수남을 떠올렸다. 그래서 자청비는 음흉한 정수남을 죽였던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세월이 이미 흘러 정이 없는 정수남은 빼만 앙상한데 입으로는 왕대[大竹], 가는 대[小竹], 작은 그루터기, 큰 그루터기가 무성하고, 코로는 산딸기나무, 가시나무가 무성하고, 눈으로는 암눈비앗<sup>90)</sup>, 거친 소나무가 무성했다.

문 도령에게 했듯이 자청비는 고운 칼로 속속들이 나무 풀을 잘라 내고 앙상한 빼를 차곡차곡 맞춰 놓고는 문국성 문 도령을 살리고 남은 빼 오를 꽃, 살 오를 꽃, 허파가 될 꽃, 말을 하는 꽃, 환생꽃을 빼 위에 늘어놓는다. 그리고는 때죽나무 회초리로 슬쩍 때리자 빼가 붙고 살이 오르더니 정수남이 눈을 번쩍 뜨며 기지개를 켜었다.

“아이고, 봄잠이라 내가 너무 오래 자버렸습니다.”

정수남은 자청비를 보고는 ‘상전님’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정수남을 데리고 자청비는 어머니 조진국 부인이 계신 집으로 향하였다. 자청비의 마음속에는 정수남을 죽인 죄로 집에서 쫓겨나던 지난날이 자꾸만 떠올랐다.

옛집에 이른 자청비가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님아, 어머님아! 정이 없는 정수남을 살려 오래서 살려왔습니다. 다시 데리고 가십시오.”

“아니,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느냐? 나는 못 데리고 있겠다. 네가 어서 데리고 떠나거라.”

자청비는 할 수 없이 정이 없는 정수남을 종으로 데리고, 문국성 문 도령과 셋이서 세경땅으로 씨를 뿌리고 오곡 농사를 다스리러 내려간다. 셋이서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큰 보리씨 두 섬은 갈 수 있을 큰 밭에서 아홉 머슴이 아홉 소까지 거느리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자청비는 걸음을 멈추고 정수남을 불렀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한참을 오다 보니 시장기가 도는구나. 저 밭에 내려가서 점심이나 얻어오너라. 저 밭 머슴들이 밥을 주거든 만석꾼 부자로 보답하고 가자꾸나.”

정이 없는 정수남은 자청비 분부 받아 밭으로 내려가서 밭을 가는 아홉 머슴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게 일꾼님들, 세경신 하느님께서 이 앞을 지나가다 시장기가 도시어 점심밥을 얻어오라고 해서 왔소이다. 남은 밥이 있거든 조금만 내주세요.”

“길 가는 연놈들 나눠줄 밥은커녕 아홉 머슴, 아홉 소가 농사하면서 먹을 밥도 없다.”

머슴들은 매정하게 정수남을 쫓아버렸다. 빈손으로 돌아온 정이 없는 정수남은 자청비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자청비는 등을 잡아다가 머슴들 몰래 농사짓는 아홉 소의 귓속에 일일이 찔러 넣었다.

얼마 후 소들은 귓속에서 등이가 꼬무락꼬무락 웅웅거리자 기겁을 하며 날뛰더니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그 바람에 밭을 갈려고 들고 온 보습<sup>91)</sup>도 가로로 세로로 뒤엎겨 바작

90) 익모초의 다른 말.

91)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농기구. 삽 모양의 쇠조각으로 쟁기나 극쟁이의 술바닥에 맞

바작 부러져 버렸다.

자청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홉 머슴들에게는 급체를 준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머슴들은 별안간 배탈이 나서 아우성을 지르며 죽어갔다. 머슴들의 아우성을 조용히 지켜보던 자청비가 입을 열었다.

“이놈들아 생각해 봐라. 사람이 죽음과 맞설 수가 있겠느냐? 정이 없는 정수남아, 저 아홉 머슴들의 배꼽을 둘째손가락으로 꼭 누르고 왼쪽으로 일곱 번, 오른쪽으로 일곱 번을 돌려보아라.”

정이 없는 정수남은 자청비의 분부대로 아홉 머슴 있는 데로 내려가서 일일이 붙잡고 배꼽을 눌러 돌렸다. 그랬더니 아홉 머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오뚝오뚝 일어났다. 그러나 농사짓던 밭은 모두 영망진창이 되어 아홉 머슴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자청비가 다시 문 도령, 정수남과 함께 길을 떠나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 청태산 마귀할망 내외가 남의 밭을 갈고 있었다. 그것을 본 자청비가 정수남을 또 부른다.

“정이 없는 정수남아. 저 밭에 가서 점심이나 얻어 와라. 우리가 아직도 시장기를 있으니 저들에게 부탁하여 밥을 주거든 만석꾼 부자로나 만들어주고 가자.”

정이 없는 정수남은 남의 밭을 갈고 있는 청태산 마귀할망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세경신 하느님께서 점심밥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조금만 얻을 수 있겠소?”

“아이고, 그럼요. 그렇게 하시지요.”

밭을 갈던 할으방도 일손을 잠시 멈추더니 할망을 보고 소리쳤다.

“여보시오, 할망. 우리는 적게 먹어도 되니 많은 것으로 드리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마귀할망은 대답을 마치자마자 점심밥을 꺼내 준다. 그런데 주는 것을 보니 보리를 볶아서 별경게 만든 범벅이었다. 정수남은 범벅을 가져오자 상세경 문국성 문 도령, 중세경 자청하다 자청비, 하세경 정이 없는 정수남 세 세경신들이 둘러 앉아 나눠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범벅이 줄어들지 않았다.

배를 든든히 채운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은 밭으로 모두 내려가 밭을 갈고 있는 청태산 마귀할으방에게 말을 한다.

“덕분에 배불리 식사도 하였으니 우리가 대신 밭을 갈아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따비<sup>92)</sup>를 매고는 동서로 한 번 크게 따비질을 하자 소 서너 마리가 갈 밭이 한 번에 갈아엎어졌다. 몇 번 더 따비질을 하니 밭은 금세 고르게 갈렸다.

그때 자청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는 할으방은 서서 씨앗이나 뿌리십시오. 우리는 할으방 뿌린 씨앗이나 골라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리다.”

청태산 마귀할으방이 자청비가 시킨 대로 밭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마귀 할망이 끼어들었다.

“영감, 잡초 씨도 하나씩 뿌리십시오. 잡초가 자라거든 우리 심심할 때 소일삼아 김이나 매면 좋지 않겠어요.”

---

추어 끼워서 사용한다.

92)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쟁기보다 조금 작고 보습이 좁게 생겼다.

그 말 듣고 마귀할으방은 잡초 씨를 가끔씩 뿌렸는데 그 때문에 지금 세상 농사짓는 논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이다.

할으방이 씨를 다 뿌리자 세경신 하느님 자청비가 복을 빈다.

“한 되쯤 갈 수 있는 땅에는 백 바리<sup>93)</sup>를 실을 만큼, 한 말 갈 수 있는 땅에는 천 바리, 만 바리를 실을 만큼 곡식을 마련해 주소서. 청태산 마귀할망 내외를 만석꾼 부자로 만들어 주소서.”

세경신 자청비가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듣고 있던 마귀할망이 귀가 솔깃하여 끼어들며 입을 연다.

“아이고, 세경님아!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어디 먹고 살겠습니까? 농사지어 거둔 것을 검은 암소에 실으면 소의 등이 툭 구부러질 만큼은 되어야 우리 두 늙은이가 쌓아두고 배불리 먹습니다요.”

이때 마귀할망이 세경신에게 쓸데없이 이렇게 입방정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지금 세상 곡식이 익어갈 때 누런 조에 꺼먼 재가 나는 조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씨 뿌리는 데 가서는 ‘젓게 뿌려라. 넓게 뿌려라.’ 이런 주책없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청비는 문국성 문 도령과 부부가 되어, 정이 없는 정수남을 거느리고 세경신이 되었다. 상세경은 문 도령, 중세경은 자청비, 하세경은 정수남, 세 세경신은 나란히 세상의 농사를 돌보며 풍년도 내리고 흉년도 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경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세경신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소원을 하늘에 올린다.

세경신 하늘님아

우리 소원 들어 주소서.

옛날 옛적 서수왕의 막내딸애기가

문국성 문 도령에게 시집을 못 가

원한이 맺히고 맺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액을 주고 병을 주니 막아 주소서.

누런 조에 재가 생기는 것도

나라에 피가 생기는 것도 막아 주소서.

익은 콩이 말라죽는 병도

익은 팔에 스는 해충도 막아 주소서.

목화밭에 깨밭에 생기는 벌레도

메밀밭 나물 밭을 망치는 독충도 막아 주소서.

오이를 갈아 먹고 감자를 갈아 먹는

굽벙이도 막아 주소서.

우리 집에 소 한 마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소가 생기거든 날랜 송아지를 쑥쑥 낳게 하시고

말이 생기거든 날랜 망아지를 많이 많이 거느리게 하소서.

세경신 하늘님아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없이

온 집안이 대대로 풍족하게 하여 주소서.

93)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제주 한경면 고산리의 심방이었던 강을쟁이 구연한 것을 진성기 선생이 채록하여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에 실은 것을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